

연구용역 보고서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2015. 12



제 출 문

금융위원회 귀중

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서 당 연구원에 의뢰한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2.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목 차

I. 연구배경	1
II. 금융인력 현황조사 및 분석	5
1. 조사	5
가. 조사대상	5
나. 조사방법	8
2. 현황 분석결과	14
가. 개요	14
나. 세부 항목별 금융인력 현황	20
다. 기술금융 인력 현황	44
라. 금융보안 인력 현황	52
마. 시간제 일자리 현황	67
바. 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	77
3.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	97
가. 조사방법	97
나. 조사결과	98
다. 2015년 채용 계획 및 실적간의 차이 분석	99
III.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전망	101
1. 금융기관 서베이를 통한 수요전망	101
가. 서베이 개요	101
나. 세부항목별 수요전망	101
2. 거시경제분석모델을 통한 수요전망	120
가.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	120
나. 금융업 인력 수요 전망	126
3. 금융관련 전공별, 학위별, 자격증보유자 인력 공급 전망	149
가. 금융전문인력 자격요건	149
나. 세부항목별 인력공급 현황 및 전망	158

IV. 주요 이슈 집중분석	169
1.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	169
2. 최근 10년간 금융권 고용 추세 분석	172
가. 신규고용	172
나. 이·퇴직	183
다. 자발적·비자발적 퇴직	190
3. 금융권 수익과 고용간의 상관관계 분석	199
가. 과거 3년간 수익성 대비 업권별 고용현황	199
나. 주요 금융업권 수익과 고용간의 관계 분석	201
V. 맺음말	205
1. 2014년 조사와의 비교	205
2. 정책적 시사점	208
가. 금융권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208
나.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210
다. 성과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212
라. 기술금융 및 금융보안 인력 확충	213
3. 금융인력조사 개선방안	215
가. 조사표 개선	215
나. 조사방식 개선	216
다. 주요 관심항목 추가	217
<부록> 2015년 금융인력 통계표 작성요령	218
참 고 문 헌	242

표 목 차

<표 II-1> 금융인력 현황 조사 설문회수율	5
<표 II-2> 조사일정	6
<표 II-3> 국내 금융회사 인력현황 및 응답회사 인원	7
<표 II-4> 조 사 항 목	8
<표 II-5> 금융업 직무 해설표	10
<표 II-6> 자격증 분류표	11
<표 II-7> 어학성적 환산 참고표	12
<표 II-8> 업권별 전수화 가중치	13
<표 II-9> 업권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21
<표 II-10> 산업별 고용형태	22
<표 II-11> 성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22
<표 II-12> 전산업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23
<표 II-13> 전산업 남자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23
<표 II-14> 전산업 여자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24
<표 II-15>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별 규모	24
<표 II-16>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별 규모	25
<표 II-17> 업권별 직무 비중	27
<표 II-18> 직무별 남녀 고용 비중	29
<표 II-19> 여성의 직무 분포 비중	30
<표 II-20> 업권별 급여 수준 비중	32
<표 II-21> 성별 급여 수준 비중	33
<표 II-22> 업권별 연령 비중	34
<표 II-23> 성별 연령 비중	35
<표 II-24> 업권별 총 근무기간 비중	36
<표 II-25> 성별 총 근무기간 비중	37
<표 II-26> 업권별 학력 비중	39
<표 II-27> 성별 학력 비중	39
<표 II-28>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	41
<표 II-29> 업권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42
<표 II-30> 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43
<표 II-31> 성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43

<표 II-32> 기술금융 인력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44
<표 II-33> 기술금융 인력 남녀 비중	45
<표 II-34> 기술금융 인력 급여 수준 비중	46
<표 II-35> 기술금융 인력 연령 비중	47
<표 II-36> 기술금융 인력 총 근무기간 비중	48
<표 II-37> 기술금융 인력 학력별 남녀 비중	48
<표 II-38> 기술금융 인력 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49
<표 II-39> 기술금융평가회사 기술금융인력 현황	51
<표 II-40>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53
<표 II-41> 금융보안 인력 성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53
<표 II-42>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남녀 비중	55
<표 II-43>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급여 수준 비중	56
<표 II-44> 금융보안 인력 성별 급여 수준 비중	57
<표 II-45>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연령 비중	58
<표 II-46> 금융보안 인력 성별 연령 비중	59
<표 II-47>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총 근무기간 비중	60
<표 II-48> 금융보안 인력 성별 총 근무기간 비중	61
<표 II-49>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학력 비중	62
<표 II-50> 금융보안 인력 성별 학력 비중	63
<표 II-51>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	64
<표 II-52>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65
<표 II-53> 금융보안 인력 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66
<표 II-54> 금융보안 인력 성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66
<표 II-55> 시간제 일자리 현황	67
<표 II-56>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남녀 비중	68
<표 II-57>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급여수준 비중	69
<표 II-58> 시간제 일자리 성별 급여수준 비중	70
<표 II-59>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연령 비중	71
<표 II-60> 시간제 일자리 성별 연령 비중	72
<표 II-61>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총 근무기간 비중	73
<표 II-62> 시간제 일자리 성별 총 근무기간 비중	74
<표 II-63>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학력 비중	75
<표 II-64> 시간제 일자리 성별 학력 비중	76
<표 II-65> 채용현황	77

<표 II-66> 고용형태별 채용현황	78
<표 II-67> 성별 채용현황	78
<표 II-68> 업권별 채용현황	79
<표 II-69> 급여수준별 채용현황	79
<표 II-70> 연령별 채용현황	80
<표 II-71> 근무기간별 채용현황	80
<표 II-72> 학력별 채용현황	81
<표 II-73> 전공별 채용현황(대졸자 대상)	81
<표 II-74> 업권별 이·퇴직자 현황	83
<표 II-75> 업권별 남성 이·퇴직자 현황	83
<표 II-76> 업권별 여성 이·퇴직자 현황	84
<표 II-77>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자 현황	85
<표 II-78>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자 현황	86
<표 II-79> 급여수준별 이·퇴직자 현황	87
<표 II-80> 연령별 이·퇴직자 현황	88
<표 II-81> 업권별 이·퇴직자 전망	90
<표 II-82> 업권별 남성 이·퇴직자 전망	91
<표 II-83> 업권별 여성 이·퇴직자 전망	92
<표 II-84>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자 전망	93
<표 II-85>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자 전망	94
<표 II-86> 급여수준별 이·퇴직자 전망	95
<표 II-87> 연령별 이·퇴직자 전망	96
<표 II-88> 추가채용 규모 조사대상현황	97
<표 II-89> 업권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98
<표 II-90> 직무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98
<표 II-91> 2015년 실제 채용 규모와 채용 계획과의 차이	100
<표 III-1> 업권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101
<표 III-2> 고용형태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102
<표 III-3>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103
<표 III-4> 업권별 남녀 채용예상규모	104
<표 III-5> 직무 분류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106
<표 III-6> 직무 분류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107
<표 III-7> 급여수준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109
<표 III-8> 급여수준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110

<표 III-9> 연령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111
<표 III-10> 연령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112
<표 III-11> 근무경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113
<표 III-12> 근무경력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114
<표 III-13> 학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115
<표 III-14> 학력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116
<표 III-15> 대학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117
<표 III-16> 대학 전공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118
<표 III-17> 대학원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119
<표 III-18> 금융업 및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123
<표 III-19>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	125
<표 III-20> 금융업 및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126
<표 III-21>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130
<표 III-22> 고용탄력성	131
<표 III-23> 금융인력 수요 전망	140
<표 III-24> 금융인력 수요 증가율 전망	140
<표 III-25> 업권별 인력비중	141
<표 III-26>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142
<표 III-27>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142
<표 III-28>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143
<표 III-29>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	144
<표 III-30>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 전망	145
<표 III-31>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 추이 전망	147
<표 III-32>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147
<표 III-33>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148
<표 III-34>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148
<표 III-35> 업권별 학력 비중	149
<표 III-36>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	150
<표 III-37> 전공별 취업대상자	159
<표 III-38> 전공별 입학생 추이	160
<표 III-39> 전공별 입학생 증가율 추이	160
<표 III-40> 금융인력 공급규모 : 전공 기준	161
<표 III-41> 학위별 취업대상자	162
<표 III-42> 학위별 입학생 추이	163

<표 III-43> 학위별 입학생 증가율 추이	163
<표 III-44> 금융인력 공급규모 : 학위별 기준	164
<표 III-45> 금융관련 자격증 응시인원 현황	165
<표 III-46> 금융관련 자격증 합격자 현황	166
<표 III-47> 금융관련 전문인력 현황	167
<표 III-48> 금융인력 공급규모 : 자격증별 기준	168
<표 IV-1> 전산업 및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 및 증가율	169
<표 IV-2> 금융/보험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	170
<표 IV-3> 산업 대분류별 일자리 창출 기여도	170
<표 IV-4> 서비스업 세분류 업종별 일자리 창출 기여도	171
<표 IV-5> 종사상지위별 입직자 추이	173
<표 IV-6> 종사상지위별 입직률 추이	174
<표 IV-7>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종사상지위별 입직자 추이	175
<표 IV-8>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종사상지위별 입직률 추이	176
<표 IV-9>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종사상지위별 입직자 추이	177
<표 IV-10>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종사상지위별 입직률 추이	178
<표 IV-11> 종사상지위별 채용자 추이	179
<표 IV-12>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종사상지위별 채용자 추이	181
<표 IV-13>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종사상지위별 채용자 추이	183
<표 IV-14> 종사상지위별 이직자 추이	185
<표 IV-15> 종사상지위별 이직률 추이	185
<표 IV-16>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종사상지위별 이직자 추이	187
<표 IV-17>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종사상지위별 이직률 추이	188
<표 IV-18>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종사상지위별 이직자 추이	189
<표 IV-19>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종사상지위별 이직률 추이	190
<표 IV-20> 종사상지위별 자발적 퇴직 추이	192
<표 IV-21> 종사상지위별 비자발적 퇴직 추이	193
<표 IV-22>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종사상지위별 자발적 퇴직 추이	195
<표 IV-23>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종사상지위별 비자발적 퇴직 추이	196
<표 IV-24>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종사상지위별 자발적 퇴직 추이	197
<표 IV-25>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종사상지위별 비자발적 퇴직 추이	198
<표 IV-26> 주요 금융업권별 수익성지표 및 고용인원	200
<표 IV-27> 국내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와 총임직원수 추이	201
<표 IV-28>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수익성 지표와 총임직원수 추이	202

<표 IV-29> 손해보험회사의 주요 수익성 지표와 총임직원수 추이	203
<표 IV-30> 신용카드사의 주요 수익성 지표와 총임직원수 추이	204
<표 V-1> 국내 금융기관 인력현황	205
<표 V-2> 고용형태별 인력 비중	206
<표 V-3> 급여수준별 인력 비중	206
<표 V-4> 연령별 인력 비중	207
<표 V-5> 근무기간별 인력 비중	207
<표 V-6> 산업별 임금수준	209

그 립 목 차

<그림 II-1> 고용형태별 인력 비중	14
<그림 II-2> 성별 인력 비중	17
<그림 II-3> 직무별 인력 비중	17
<그림 II-4> 급여수준별 인력 비중	18
<그림 II-5> 연령별 인력 비중	18
<그림 II-6> 근무기간별 인력 비중	19
<그림 II-7> 학력별 인력 비중	19
<그림 II-8> 전공별 인력 비중(대졸자 대상)	20
<그림 II-9> 업권별 정규직 비중	21
<그림 II-10> 업권별 여성 비중	26
<그림 II-11> 업권별 영업·마케팅 직무 비중	27
<그림 II-12> 직무별 여성 고용 비중	28
<그림 II-13> 업권별 급여 연 5,000만원 이상 인력비중	32
<그림 II-14> 전체 업권 연령별 금융인력 비중	33
<그림 II-15> 업권별 10년 이상 근무자 비중	36
<그림 II-16> 전체 업권 학력별 금융인력 비중	38
<그림 II-17> 업권별 대출 이상 비중	38
<그림 II-18> 전체 업권 전공별 금융인력 비중	40
<그림 II-19> 업권별 경영/경제 전공 비중(대졸자)	41
<그림 II-20> 금융보안인력 업권별 정규직 비중	52
<그림 II-21> 금융보안인력 업권별 여성고용비율	54
<그림 II-22> 금융보안인력 급여수준별 비중	56
<그림 II-23> 금융보안인력 연령별 비중	58
<그림 II-24> 금융보안인력 근무기간별 비중	60
<그림 II-25> 금융보안인력 학력별 비중	62
<그림 II-26> 금융보안인력 전공별 비중	64
<그림 II-27> 시간제일자리 업권별 비중	67
<그림 II-28> 시간제일자리 업권별 여성비율	68
<그림 II-29> 시간제일자리 업권별 급여 연 2,500만원 미만 비중	69
<그림 II-30> 시간제일자리 전체업권 연령별 비중	71
<그림 II-31> 시간제일자리 업권별 12개월 미만 근무자 비중	73

<그림 II-32> 시간제일자리 업권별 고졸자 비중	75
<그림 II-33> '14.9월~'15.8월 말 신규 및 경력 채용 현황	77
<그림 II-34> '14.9월~'15.8월말 이·퇴직자 현황	82
<그림 II-35> '15.9월~ '16.8월 말 이·퇴직자 전망	89
<그림 III-1> 업권별 정규직 채용 예상 비율	102
<그림 III-2> 업권별 여성 채용 예상 비율	104
<그림 III-3> 업권별 영업·마케팅 직무 채용 예상 비율	105
<그림 III-4> 업권별 급여 연 5,000만원 미만 채용 예상 비율	108
<그림 III-5> 업권별 20대 채용 예상 비율	111
<그림 III-6> 업권별 근무경력 5년 미만 채용 예상 비율	113
<그림 III-7> 업권별 대졸자 채용 예상 비율	115
<그림 III-8> 업권별 경영/경제 전공자 채용 예상 비율(대졸자)	117
<그림 III-9> 경제성장률 추이	121
<그림 III-10> 잠재성장률 전망치	121
<그림 III-11> 2015~2020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전망	122
<그림 III-12>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124
<그림 III-13>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125
<그림 III-14> 금융업 취업자수	128
<그림 III-15> 금융업 부가가치	129
<그림 III-16> 금융업 취업자수 및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132
<그림 III-17>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의 전년대비 차이	144
<그림 IV-1> 입직자 추이	172
<그림 IV-2>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입직자 추이	174
<그림 IV-3>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입직자 추이	176
<그림 IV-4> 채용자 추이	178
<그림 IV-5>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채용자 추이	180
<그림 IV-6>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채용자 추이	182
<그림 IV-7> 이직자수 추이	184
<그림 IV-8>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이직자 추이	186
<그림 IV-9>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이직자 추이	188
<그림 IV-10>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수 추이	191
<그림 IV-11>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수 추이	194
<그림 IV-12>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수 추이	196
<그림 IV-13> 국내은행의 ROE와 총임직원수 추이	201

<그림 IV-14>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율과 총임직원수 추이	202
<그림 IV-15>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율과 총임직원수 추이	203
<그림 IV-16> 신용카드사의 총자산이익율과 총임직원수 추이	204

요 약

I. 연구배경

-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함.
 - 그리고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
- 본 연구는 동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 금융인력에 대한 자세한 현황 조사와 더불어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을 목적으로 함.

II.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분석

1. 조사

- 금융연구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2015년도 금융인력 현황을 조사하였음.
 - 은행 57개사, 보험 57개사, 증권/선물 63개사, 자산운용/신탁 98개사, 상호저축은행 79개사, 여신전문 72개사, 신탁 913개사 등 총 1,339개사임.
 - 2015년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 금융회사의 85.0%의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시장 인력구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

2. 현황 분석결과

- 2015년 조사대상 금융회사의 인력구조는 정규직이 88.1%, 비정규직이 11.9%를 차지
 -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정규직 비중이 67.5%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이 다른 산업에서의 고용에 비하여 상당히 안정적임을 시사함.
- 여성 고용비율은 46.0%로 나타남.
 - 업권별 여성 고용비율은 은행이 48.8%로 가장 높고, 보험(47.5%), 여신전문(47.2%), 신탁(42.9%), 상호저축(42.1%), 증권/선물(36.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권은 자산운용/신탁(27.0%)으로 조사됨.
- 가장 높은 인력 비중을 차지한 직무는 영업·마케팅(55.83%)이며, 다음으로 경영관리(13.86%), 영업지원(5.54%), 자산관리(3.86%), 보험(3.80%), 자산운용(2.43), 투자은행(1.38%) 순으로 나타남.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 업권을 제외하고 모든 업권에서 영업·마케팅 직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금융회사 직원의 60.8%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 및 증권/선물의 1.5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중은 각각 8.5% 및 3.8%로 전체 평균인 1.8%를 크게 웃돌고 있음.
- 연령별로는 30대(38.2%)가 가장 많고, 이어 40대(31.6%), 20대(16.3%), 50대 이상(13.0%), 20대 미만(0.8%)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 업권별로 50대 이상 연령 비중을 보면, 은행과 신탁이 각각 18.2%, 17.1%로 업권 전체 평균인 13.0%보다 높고, 이어 증권/선물(9.6%), 자산운용/신탁(9.3%), 상호저축(8.1%), 보험(7.0%), 여신전문(5.1%) 순으로 나타남.

■ 금융업에서의 총 근무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이 43.7%로 높게 나타났음.

○ 업권별로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의 비율을 보면, 은행(52.4%)이 가장 높고 이어 보험(42.3%), 신탁(41.1%), 증권/선물(34.4%), 여신전문(31.5%), 상호저축(13.7%), 자산운용/신탁(11.3%) 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졸이 59.6%로 과반을 차지하고, 이어 고졸(21.7%), 전문대졸(12.4%), 대학원졸(6.3%)의 순으로 나타남.

■ 대출자의 전공은 경영/경제가 41.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인문/사회 18.6%, 공학 6.5%, 컴퓨터/통신 6.1%, 법률 5.3%, 자연 4.9%, 기타 17.6%로 나타남.

■ 금융보안 인력은 전체 금융인력의 0.6%를 차지

○ 정규직 비중이 91.2%, 비정규직 비중이 8.8%

■ 시간제 근로자는 은행과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총 2,216명이며, 기술 금융 인력은 남성 383명, 여성 114명으로 총 497명으로 조사됨.

3.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 응답 금융회사들의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는 총 4,264명으로 조사됨.
- 상호저축과 증권/선물 업권에서 많은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사됨.
- 가장 많은 채용이 계획된 직무는 영업·마케팅으로 전체의 69.3%에 달하는 인원을 채용될 예정이며, 경영관리가 11.9%로 뒤를 이룸.

Ⅲ.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전망

1. 금융기관 서베이를 통한 수요전망

- 향후 1년 이내(2015년 9월 기준) 추가채용 예상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
- 고용형태별로는 증권/선물, 상호저축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과반수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으로 보임.
 - 업권별 정규직 예상채용 비율은 은행(93.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산운용/신탁(80.0%), 신탁(79.7%), 보험(64.0%), 여신전문(58.6%), 증권/선물(39.6%), 상호저축(35.4%)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채용 예상 비율은 44.0%
- 직무별로는 자산운용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영업·마케팅 직무로 과반수의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

- 급여수준별로는 은행, 보험, 증권/선물, 상호저축의 업권에서 2,500만원~5,000만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 근무경력별로는 상호저축, 은행, 보험, 여신전문, 신탁 업권의 경우 5년 미만의 근무경력 인력 비중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고,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5~10년 미만 경력자 비중이 높을 것으로 조사됨.
- 학력별로는 모든 업권에서 대졸자의 채용예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대졸자의 전공별로는 모든 업권에서 경영/경제 전공자의 채용예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2. 거시경제분석모델을 통한 수요전망

가.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

- 본 연구는 금융산업 성장 전망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함.
 - 시나리오 1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실질부가가치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하는 시나리오이고, 시나리오 2는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와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는 시나리오며, 마지막 시나리오 3은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에 비해 더 느리게 성장하는 시나리오임.
-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치를 이용하여 2015~2020년중 금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2015년중 90.5조원이었던 부가가치가 2020년에는 115.7조원으로, 시나리오 2에서는 107.0조원으로, 시

나리오 3에서는 98.3조원으로 증가함.

나. 금융업 인력 수요 전망

(1) 추정방법

■ 금융업 부가가치와 금융업 취업자수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실시함.

○ 검정결과 두 변수간의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어서 두 변수간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가가치 증가율이 취업자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

○ 금융업 고용탄력성은 약 0.15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융업에서 부가가치가 1% 늘어나면 취업자수는 0.15%(약 1,182명) 늘어남을 의미함.

(2) 금융업권별 인력 수요전망

■ 위와 같은 방법론에 기초하여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해 보면 시나리오 1에서는 매년 6,058명, 시나리오 2에서는 매년 4,083명, 그리고 시나리오 3에서는 매년 1,996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증가율로 보면 시나리오 1은 0.7~0.8%, 시나리오 2는 0.4~0.6%, 그리고 시나리오 3은 0.2~0.3% 정도의 금융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위의 금융인력 수요 증감은 해당년도의 입직자와 이직자를 가감한 순증감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금융관련 전공별, 학위별, 자격증보유자 인력 공급 전망

가. 전공별

-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는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임.
 - 동 방법은 금융인력의 전공이 대체로 상경계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상경계열 졸업생을 금융인력 신규공급 규모로 보는 방법임.
- 2011~2016년 입학생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졸업생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매년 54,867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2016년에는 56,787명, 2017년에는 55,498명, 2018년에는 54,455명, 2019년에는 53,285명, 그리고 2020년에는 52,166명으로 추정됨.
 - 전공별로 보면, 경제·경영은 매년 47,217명, 금융·회계·세무는 7,640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됨.

나. 학위별

- 상경계열 학위별 졸업상황을 보면, 2014년 대학의 취업대상자는 31,441명, 전문대학은 22,837명, 대학원은 1,842명으로 추정됨.

■ 향후 5년간 학위별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보면, 대학은 매년 30,739명, 전문대학은 22,327명, 대학원은 1,801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됨.

○ 대학의 공급규모는 2016년 31,815명에서 2020년 29,226명으로 감소하고, 전문대학도 2016년 23,109명에서 21,228명으로 감소할 전망

다. 자격증보유자별

■ 금융투자부문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평균 51,316명이 매년 합격하였으며, 보험부문의 경우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평균 797명이 매년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투자부문 금융인력 규모는 2016년 243,151명에서 2020년 177,48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보험부문은 2016년 3,348명에서 2020년 5,467명으로 증가할 전망

IV. 주요 이슈 집중분석

1.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

■ 2015년 취업자수는 2,586.7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05%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수는 78.8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5.85% 감소함.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취업자수 통계를 이용하여 금융/보험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2015년의 경우 전산업은 1.05% 증가하였는데 이중 금융/보험업의 기여도는 -0.19%p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2. 최근 10년간 금융권 고용 추세 분석

- 금융·보험분야의 입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중 연평균 6,781명에서 2010~14년중 연평균 8,743명으로 28.9% 증가
- 금융·보험분야의 이직자는 상용근로자 기준 2002~07년 평균 6,697.3명에서 2010~14년 평균 8,606.8명으로 28.5% 증가
 - 금융·보험분야의 이직률(당월이직자수/전월말근로자수×100)은 상용직의 경우 2010~14년 평균 2.0%로 전산업의 이직률 2.4%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보험분야의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3,707.5명에서 2010~14년 평균 3,840.8명으로 3.6% 증가

3. 금융권 수익과 고용간의 상관관계 분석

가. 과거 3년간 수익성 대비 업권별 고용현황

- 2014년 금융권 수익성은 2013년에 비해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국내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탁, 신용카드, 상호저축, 농협 등이 2014년 당기순이익이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반면 리스사, 할부금융사는 당기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반면에 고용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취업자수 감소가 나타나는 업권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국내은행, 농협, 리스사, 상호저축, 신용카드, 할부금융은 전년에 비해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탁은 전년에 비해 취업자수가 감소하였음.

— 생명보험은 2013년 2.1조원에서 2014년 3.2조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는 2,269명이 감소함.

나. 주요 금융업권 수익과 고용간의 관계 분석

■ 지난 10년간 국내은행의 수익성과 고용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은행은 ROE, NIM, 세후당기순이익 등 주요 수익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왔음.

■ 지난 10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고용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는 당기순이익은 2005년에는 2.1조원에서 2014년에는 3.2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고용도 증가세를 이어왔음.

■ 지난 10년간 신용카드사의 수익성과 고용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신용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05년 0.3조에서 2014년에는 2.1조원으로 대체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고용도 증가세를 이어왔음.

V. 맺음말

1. 2014년 조사와의 비교

■ 2015년 조사에서는 2014년과 비교해 볼 때, 금융회사수와 금융회사 취업자수는 모두 감소함.

○ 금융회사 수는 2014년에는 1,365개에서 2015년에는 1,339개로 26개가 줄어들었고, 금융업 취업자수는 286,218명에서 285,029명으로 1,189명이 줄어듦.

○ 업권별로 보면 금융회사수는 보험, 자산운용/신탁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줄어든 반면, 취업자수는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은행, 보험, 증권/선물, 신탁에서는 감소하였음.

— 특히 보험에서 1,502명, 증권/선물에서는 1,684명이 감소하여, 동 업권에서의 인력구조조정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고용형태별로 보면 2015년 정규직 비중은 88.1%로 2014년에 비해 하락하였는데, 이는 금융권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급여수준별로 보면 1억원 이상 비중이 줄어든 반면, 1억원 미만 비중은 늘어남.

○ 정년연장과 관련된 임금피크제 도입, 금융회사 수익성 하락에 따른 성과상여금 감소 등으로 1억원 이상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는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늘어난 것을 나타냄.

- 정년연장 등으로 50대 이상 근로자의 퇴직이 늦춰지면서 50대 이상 비중이 늘어나고 20대 청년층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이와 같은 정년연장 등에 따른 연령별 구조변화로 인해 근무기간별 인력비중에 있어서도 20년 이상 장기근무 근로자의 비중이 22.0%에서 23.7%로 늘어남.

2. 정책적 시사점

가. 금융권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본 조사에 따르면 2015년중 금융업 일자리는 금융인력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하락하였음.

- 2015년 중 금융/보험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 0.19%p로, 2014년 기여도인 - 0.11%p보다 낮아져,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금융권 일자리가 전반적인 일자리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권 일자리 부진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 금융권 일자리는 정규직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아서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금융권 임금수준(2014년 금융권 월평균 임금수준 5,233,974 원)도 타 업종(전 산업 3,189,995원)에 비해 높아서 타 업종에 비해 선호되는 일자리임.

■ 특히 금융권 일자리 창출은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

- 청년들은 초기 일자리 질이 전 생애 일자리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취

업하기 보다는 필사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유휴인력으로 남아 있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정년연장으로 인해 세대간 일자리 경합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나.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국제도시들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있었기 때문임.

- 물론 뉴욕, 런던, 도쿄 등은 정책당국의 정책적인 육성에 의해 금융산업이 발전했다기 보다는, 전통적인 경제·무역·상업도시에서 자연스럽게 금융산업도시로 성장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홍콩, 싱가포르 등은 금융산업 자체가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린 결과 지금과 같은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이 발전할수록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이에 따라 우수한 인력이 많이 확보되면서, 금융산업도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선순환 고리는 자연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우며 우선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산업 발전노력이 적극 추진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됨.
- 정부와 금융권이 금융업에서의 장기적인 비전과 성장가능성을 제시하게 되면 우수한 청년들이 금융권에 다수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성과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 금융산업이 보다 혁신적인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가 필요함.
 - 금융회사의 실적이 악화되어도 인건비를 줄일 수 없는 경직적인 구조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지난 10년간 국내은행은 ROE, NIM, 세후당기순이익 등 주요 수익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왔음.
 - 또한 금융회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스스로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혁신을 선도하는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성과주의 확산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라. 기술금융 및 금융보안 인력 확충

- 향후 기술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은 중장기 경제성장 기반 마련에 있어서 금융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新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나타난 기술금융 인력은 전체 금융인력에 비해 부족한 상태임.
 - 비록 각 금융기관들이 기보 등 외부의 기술평가 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기술금융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기술금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관련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금융보안과 관련된 신뢰성 회복을 위해 금융권도 금융보안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의 금융인력 재교육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금융인력조사 개선방안

가. 조사표 개선

■ 필수항목을 엄격히 선별한 후 설문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설문지 작성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면 금융회사들의 응답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직무연수, 어학능력, 현직무5년연속근무자 등에 대해서도 남녀를 구분하여 인력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남녀 구분이 분석상 중요하지 않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남녀구분없이 총원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조사방식 개선

■ 인터넷상에 금융인력조사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개별 금융회사가 조사표를 직접 입력하되 부정확하게 입력된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설문 인프라를 웹 공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에서 작성해 온 자료를 취합할 때 부분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입력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설문 인프라를 웹 공간에 구축하게 되면 금융인력조사가 매년 거듭될수록 누적되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금융인력조사 시점을 현행 10월~12월에서 9월~12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분석작업이 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반정도로 짧아져서 분석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함.
 - 따라서 8월말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소한 2개월 정도는 분석 및 연구기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주요 관심항목 추가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조사항목 추가
 - 국내 금융회사는 가계와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금융수요 충족과 글로벌 금융회사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해외진출에 나설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지점, 사무소, 현지법인 형태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자체 지점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적구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금융인력조사에서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인력과 현지채용 금융인력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I . 연구배경

- 금융은 경제주체간의 자금의 유통을 의미함.
 -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행위는 일시적인 자금 잉여 및 부족으로 인한 지출변동을 줄임으로써 소비나 기업 경영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함.
 - 금융제도는 이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일체의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수단·금융상품 등의 구조나 형태를 포괄하는 핵심적인 경제제도의 하나

- 금융산업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임.
 -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할 경우 높은 탐색비용으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금융산업은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소규모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활성화함.
 - 그리고 금융산업은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분산투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줌.
 - 또한 차입자의 신용도 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해 획득한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금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

- 또한 금융산업은 실물부문으로의 중개기능을 제공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미래의 성장동력인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임.
 - 특히 우리 경제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은 한층 더 증대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득증대 등에 따른 경제주체의 금융서비스 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여러 형태의 금융업이 도입되면서 점차 그 구조가 다양해짐.

○ 양적인 면에서도 1975년말 27조에 불과하였던 금융자산이 2010년말에는 1경 298조원으로 약 35년 동안 무려 374배 늘어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함.

□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그동안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에 치중해오면서 금융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나 인력의 전문성, 국제성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임.

○ 금융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국민소득)이 1975년의 2.67에서 2010년에는 8.78로 크게 높아졌으나 미국(10.32)이나 일본(12.1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국내 1위 은행의 자산규모는 글로벌 Top5의 1/10 수준이며 해외점포 자산비중은 해외 주요금융기관의 60%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태임.

○ 금융산업의 GDP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주요국의 8%대에 비해 크게 낮은 6%대에 머물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지니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금융제도 개편 논의를 보더라도 금융산업 발전 과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난 1980년대 이후 대다수 국가에서 규제완화, 금융자유화가 적극 추진되면서 신종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이

형성되는 등 금융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 특히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제한이 완화되면서 금융겸업화가 진전되었고 금융시장 통합화, 금융국제화, 금융기관의 대형화 등이 나타나고 있음.

□ 금융산업 발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금융인력의 확보 및 관리가 핵심적 과제임.

- 금융산업이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금융시장의 정보문제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지식 및 능력이 전문적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산업은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으로서의 발전동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함.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양성 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장기적 관점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6년 6월 14일 부총리 주재 「금융허브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함.

□ 그리고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

-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통계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3년 동안 인력수급 전망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다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연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반해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발전 측면에서 동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함.
- 따라서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에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관리를 위해 설립된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에서 통계조사사업 및 수급전망 연구를 다시 수행하게 되었음.

□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현재 금융인력에 대한 자세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을 목적으로 함.

- 금융업권별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종사자의 직무, 전공 등 특성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현행 금융인력 기초통계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 확장정도를 예측하여 금융인력의 수급전망을 실시하고자 함.
- 금융회사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2015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에서는 금융회사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방식의 조사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매월 발표하는 공식통계인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최근 10년간 금융권 고용 추세’를 분석함.

Ⅱ. 금융인력 현황조사 및 분석

1. 조사

가. 조사대상

(1) 국내 금융회사 현황

□ 금융연구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2015년도 금융인력 현황을 조사하였음.

○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선물, 보험(생명·손해보험사), 자산운용/신탁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신용카드사, 리스할부사, 신기술금융사), 신탁(신탁협동조합) 등 7개 업권 1,33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 중 2015년 9월말 기준 금융인력 현황 조사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은행 37개사, 보험 23개사, 증권/선물 49개사, 자산운용/신탁 80개사, 상호저축은행 79개사, 여신전문 43개사, 신탁 827개사 등 총 1,138개사임.

<표 Ⅱ-1> 금융인력 현황 조사 설문회수율

(단위: 개, %)

구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상호저축	여신			신탁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선물	신탁		신용카드	리스할부	신기술		
영업회사	57	25	32	56	87	7	11	79	8	45	19	913	1,339
응답회사	37	18	5	44	72	5	8	79	6	27	10	827	1,138
회수율(%)	64.9	72.0	15.6	78.6	82.8	71.4	72.7	100.0	75.0	60.0	52.6	90.6	85.0

자료: 금융통계월보 (2015. 6월 기준)

(2) 조사 현황

- 본 조사는 2015년 9월~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자료 조사를 위한 관계자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조사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

<표 II-2>

조사일정

일 자	조사 현황
2015. 9. 5	기초통계 조사 협조를 위한 관계자 회의
9. 7	금융전문인력 분과위원회 보고
9. 9	인사담당자 e-mail 파악
~10. 31	설문조사
~11. 13	조사종료
~12. 31	추가조사 및 분석

- 2015년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1,339개의 금융회사 중 1,138개의 회사가 응답하여 85.0%의 응답률을 기록함.
- 2014년 조사의 경우에는 1,365개의 금융회사 중 1,163개의 금융회사가 응답하여 85.2%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는데, 2015년에도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2013년의 77.4%보다는 높은 수준)
 - 다만, 응답회사 인원기준으로 보면 2014년 조사에서는 286,218명 중에서 231,702명이 응답하여 81.0%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285,029명중에서 187,119명이 응답해 65.6%를 기록함.
 - 응답회사 기준 회수율은 전년도와 비슷한데 반해 인원기준 응답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내은행의 응답이 적어진 것에 의한 것으로 보임. (국내은행은 2014년 12개사, 2015년 7개사 응답함.)

<표 II-3>

국내 금융회사 인력현황 및 응답회사 인원¹⁾

(단위: 개, 명, %)

구 분	영업회사 수	고용인원 ²⁾	응답회사 수	응답회사 인원
은 행	57	138,619	37	95,482 (68.9)
보 험	57	60,316	23	25,034 (41.5)
증권/선물	63	35,955	49	24,936 (69.4)
자산운용/신탁	98	6,111	80	4,109 (67.2)
상호저축	79	8,151	79	8,261 (101.3)
여신전문	72	26,235	43	19,856 (75.7)
신탁	913	9,642	827	9,441 (97.9)
총 계	1,339	285,029	1,138	187,119 (65.6)

주 : 1) 영업회사수 및 고용인원은 2015년 6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함.

2) 고용인원은 비상근임원을 제외한 총 임직원과 기타 및 직원외인원이 포함된 수치임. 본 보고서에서는 비상근을 제외한 총 임직원과 직원 외 인원을 포함한 수치를 사용함. 직원 외 인원은 촉탁 및 계약직, 파트 타이머 등을 포함함. 단, 은행의 경우 총 임직원과 계약직을 포함한 직원 외 인원, 해외근무임직원, 국외은행 임직원을 합한 수치에 비상근임원을 뺀 수치임.

3) ()의 수치는 고용인원 대비 조사회사 인원의 비율임.

1) <참고> 금융통계월보 상 고용인원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용 / 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총계
고용인원	136,898	60,316	36,557	6,313	8,802	26,454	17,505	291,549

자료: 금융통계월보 (2015. 6월 기준)

주: 금융권역별 고용인원은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금융월보」에 공시되어 있으나, 취합된 업무보고서가 상이하여 고용인원의 총합이 다를 수 있음. 부동산신탁사는 금융통계월보에 보고되지 않아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수치를 사용함.

나. 조사방법

- 2015년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 금융회사의 85.0%(응답회사 수 기준)의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시장 인력구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
 - 과거 조사와 비슷하게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 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
 - 본 조사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국내회사와 외국계회사를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음.

<표 II-4>

조 사 항 목

구 분	세 부 내 용
성별	남/여
직무	경영관리/영업·마케팅/영업지원/자산운용/자산관리/보험/투자은행/기타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총 근무기간	5년 미만/5~10년 미만/10~15년 미만/15~20년 미만/20년 이상
현직무 근무기간	현직무 5년 연속 근무자
직무연수	사내연수/외부연수/해외연수
자격증	변호사/회계사/국가기타/법정/공인/비공인/AICPA/CFA/FRM/국제기타
급여	2,500만원 미만/2,500~5,000만원 미만/5,000~7,500만원 미만/7,500~1억원미만/1억원~1.5억원 미만/1.5억원 이상
연령	20대 미만/20대/30대/40대/50대 이상
학력	고졸/전문대졸/대졸/대학원졸
전공	(대학) 경영·경제/법률/인문·사회/컴퓨터·통신/공학/자연/기타
	(대학원) MBA/경영·경제/인문·사회/컴퓨터·통신/공학/기타
어학능력	(영어) 상/중/하
	(제2외국어) 중국어/일본어/기타

- 상기 조사항목 중 '직무' 부분은 8개 그룹으로 중분류된 기준을 기초로 하여 29개의 세분류된 직무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음.
 - 2014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IT 보안 및 기타(휴직자, 파견자 등)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함.

- 조사항목 중 전공 부분의 항목을 재분류하여 대학은 7개 전공, 대학원은 6개 전공으로 구분하였음.
 - 대학 전공 중 기존 조사에 있던 경영·회계와 경제 항목을 통합하여 경영·경제로 분류하고 전산 대신 컴퓨터·통신을 도입하였고, 자연 전공을 추가하였음.
 - 대학원 전공은 기존의 전산 전공 대신 컴퓨터·통신 전공으로 대체함.

-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외에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규모'와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음.
 - 부가조사에서는 금융회사 종사자 및 이직자 현황, 채용 계획 및 실제 채용 규모, 기간제 근로자,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음.
 - 또한 자세한 성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14년과 동일하게 항목마다 성별을 분류하여 조사함.

<표 II-5>

금융업 직무 해설표

구분	세부직무	직무개요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경영기획, 경영평가, 예산, 자금, 회계, 세무
	인사·총무·홍보	인사, 노무관리, 교육, 비서, 사무행정, 총무, 자산관리, 언론홍보
	조사 연구·리서치	경제 및 산업 분석, 금융동향 모니터링,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IT 시스템운영 및 개발	정보시스템관련 기획, 개발, 운영
	IT 보안	정보기회사리, 보안 등 관련업무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감사, 법무, 내부규율감독, 준법감시 등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창구사무, 개인고객 여신심사 및 실행, 수신, 펀드, 신탁, 카드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고객지원(콜센터)업무, 개인관련 외국환업무, 지점장, 보험영업소장 등
	기업영업(법인브로커)	기업영업, 기업여신심사 및 기업대상 방카슈랑스상품, 기타금융상품 판매, 수출입 외국환 관련업무
	상품개발	여수신상품, 펀드, 유가증권, 파생금융상품, 카드, 보험 및 기타자산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마케팅 전략기획, PR/광고, 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자산부채관리, 시장위험관리, 신용위험관리, 운영위험관리
	결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뒤 매도증권과 매수증권을 수수하는 업무
	채권추심	채무자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자산운용	펀드(주식, 채권)	펀드거래 및 수익평가, 주식, 채권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파생상품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외환	단기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외화자산의 운용,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해외 발행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주식, 채권 등 기존투자대상이 아닌 제3의 자산에 대한 투자, PE, 헤지펀드, 부동산, 원자재, 금 투자 등
자산관리	신탁	고객신탁의 기획, 운용 및 수탁재산의 관리, 기록 및 보고업무
	연금	퇴직연금, 종신연금, 개인연금 등 관리 및 고객의 연금투자계획 자문, 지급 등 연금계획과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
	투자자문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추천 등의 자문을 수행
	PB(Private Banking)	거액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자산관리, 자산계획수립 지원 등
보험	Claim관리	클레임의 등록, 조사, 해결 등 클레임과 관련된 제반내용을 처리
	언더라이팅	보험가입 희망자의 건강상태, 직업, 취미 등의 고지내용과 청약내용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
	손해사정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수행
	보험계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국내의 PF과정에 참여, 심사 및 자문수행, 비유동성자산의 유동화, 회사보유 고유자산의 직접투자, 사모펀드 조성 및 투자 등
	기업금융(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 Mgmt.)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및 주선, IPO등의 업무기획 및 개발, 이를 주관하고 사후관리를 수행
	M&A	기업의 인수와 합병, 구조조정 등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휴직자, 타회사 파견자 등

- 상기 조사항목 중 ‘자격증’ 부분은 국가자격, 법정자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의 4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세부 자격증의 분류는 다음의 자격증 분류를 참고함.

<표 II-6>

자격증 분류표

구 분		자격의 종류	
국가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법정자격	투자권유 자문인력	1종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2종	증권투자상담사
		3종	파생상품투자상담사
		4종	투자자문상담사
		5종	전문투자자상담사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투자상담관리사
	투자운용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조사분석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증권분석전문인력		자산평가분석사
	위험관리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집합투자전문인력	집합투자재산평가사	
		집합투자재산계산사	
		집합투자기구평가사	
	증권분석사		증권분석사
	보험판매인력		변액보험판매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민간자격	공인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 신용위험관리사, 신용관리사, 재무설계사(AFPK)	
	비공인	외환전문역1종/2종, 은행텔러,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언더라이터, 종합자산관리사(IFP), 기타	
국제통용자격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FRM), 기타	

□ 조사항목 중 ‘어학능력(영어)’ 부분은 아래의 참고표를 기준으로 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조사함.

- 어학능력(영어)은 TOEIC을 기준으로 875점 초과를 ‘상’, 725~875점을 ‘중’, 725점 미만을 ‘하’로 평가하고, TOEFL과 TEPS 및 OPIc의 성적은 아래의 어학성적 환산표를 참조하여 산정함.

<표 II-7> 어학성적 환산 참고표

TOEIC	TOEFL			TEPS	OPIc	TOEIC	TOEFL			TEPS	OPIc
	CBT	iBT	PBT				CBT	iBT	PBT		
880	257	103	613	737~743	IM3	730	220	83	560	577~580	IM2
875	253	102	610	730~736	IM2	725	217	82	553	573~576	IM2
870	250	101	607	723~729	IM2	720	213	81	550	569~572	IM1

출처: TEPS관리위원회(2011.09기준). TEPS-TOEIC-TOEFL Conversion Table.

□ 업권 간의 응답률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표본편의(sample bias)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표본에 대한 전수화(全數化) 과정을 거쳐 분석을 시행

- 업권별 분석에는 문제가 없으나, 각 업권의 자료를 통합하여 금융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응답률이 높은 업권에 의해 분석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권별 고용인원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적용하여 표본을 전수화하였음.

<표 II-8>

업권별 전수화 가중치

업 권	가 중 치
은 행	1.451781
보 험	2.409363
증권/선물	1.441891
자산운용/신탁	1.487223
상호저축	0.986684
여신전문	1.321263
신탁	1.021290

주 : 가중치는 업권별로 [고용인원/응답회사인원]의 방법으로 산출함.

□ 한편 분석결과는 각 업권의 특성에 기인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권 간 직접 비교는 해석상의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예를 들면 보험업의 여성비중은 47.5%이고 자산운용/신탁업의 여성비중은 27.0%로, 두 업종의 여성비중은 20.5%p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데, 이와 같은 차이는 주로 업종별 특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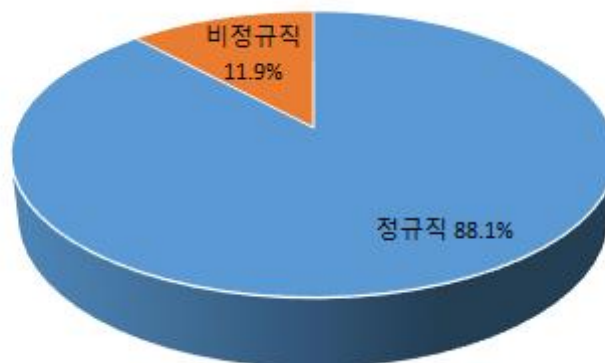
가. 개요

□ 고용형태별 인력 비중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88.1%, 비정규직이 11.9%임.
- 본 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나와 있는 비정규 근로자 범위에 따르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부가조사 시 인용하고 있는 근로자 정의를 동일하게 사용함.
 -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참고>를 참조하길 바람.
- 다만 본 조사에서는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은 제외하였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등록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은 129,796명, 손해보험은 155,854명으로 나타나며, 전속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은 120,933명, 손해보험은 80,400명으로 나타남.

<그림 II-1>

고용형태별 인력 비중



<참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비정규직 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 비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파견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 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 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 가정 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 일일(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제 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 위기의 극복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 속에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7월 23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 대책특별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다음의 사항들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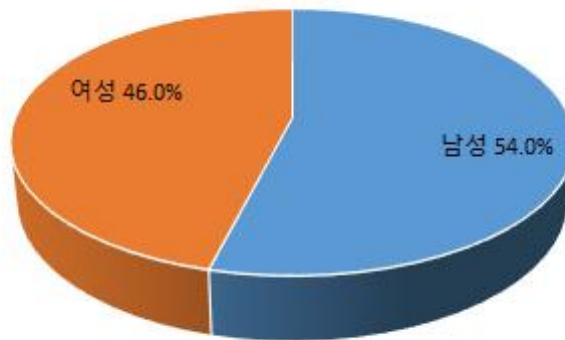
-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 향후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은 별첨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다.

□ 성별 인력 비중

- 조사대상 중 남성인력이 54.0%이고, 여성인력은 46.0%임.

<그림 II-2>

성별 인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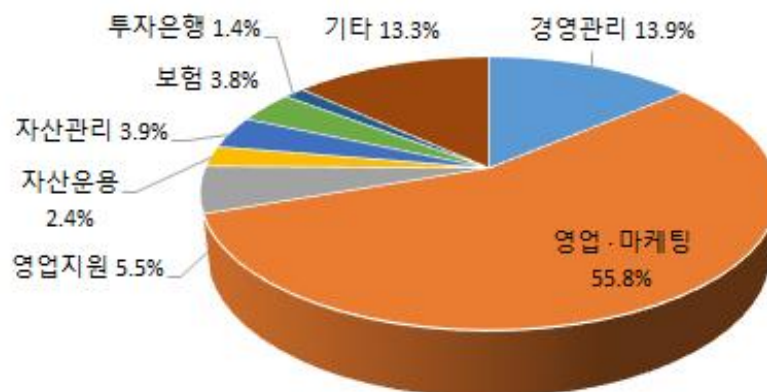


□ 직무별 인력 비중

- 금융인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직무는 영업·마케팅(55.8%)이며, 다음으로 경영관리(13.9%), 영업지원(5.5%), 자산관리(3.9%), 보험(3.8%), 자산운용(2.4%), 투자은행(1.4%)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3>

직무별 인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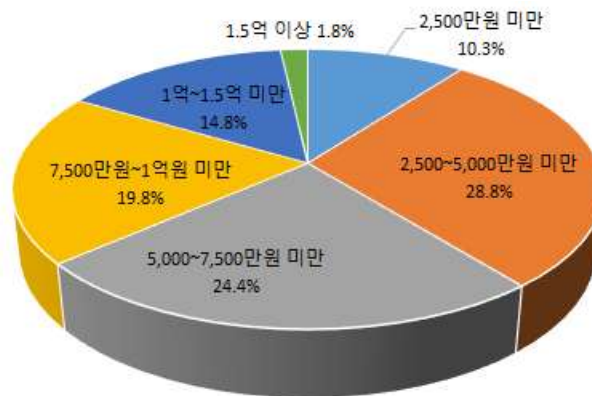


□ 급여수준별 인력 비중

- 급여수준별로는 2,500~5,000만원 소득자가 전체의 28.8%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5,000~7,500만원 미만(24.4%), 7,500만원~1억원 미만(19.8%), 1억~1.5억원 미만(14.8%), 2,500만원 미만(10.3%), 1.5억 이상(1.8%)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4>

급여수준별 인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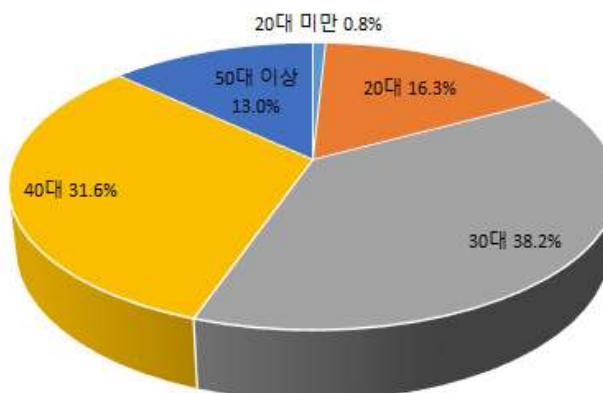


□ 연령별 인력 비중

-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전체의 38.2%를 차지하고 40대가 31.6%, 20대 16.3%, 50대 이상 13.0%로 나타났으며, 20대 미만은 0.8%에 불과함.

<그림 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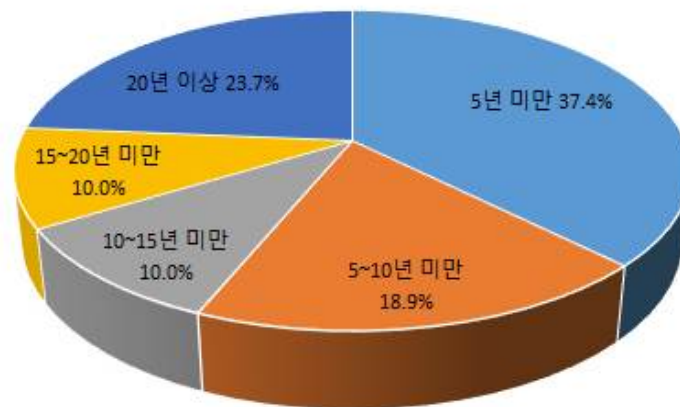
연령별 인력 비중



□ 근무 기간별 인력 비중

- 금융업에서의 총 근무 기간별로는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인력 비중이 37.4%이고, 20년 이상 23.7%, 5~10년 미만 18.9%, 10~15년 미만 10.0%, 15~20년 미만 1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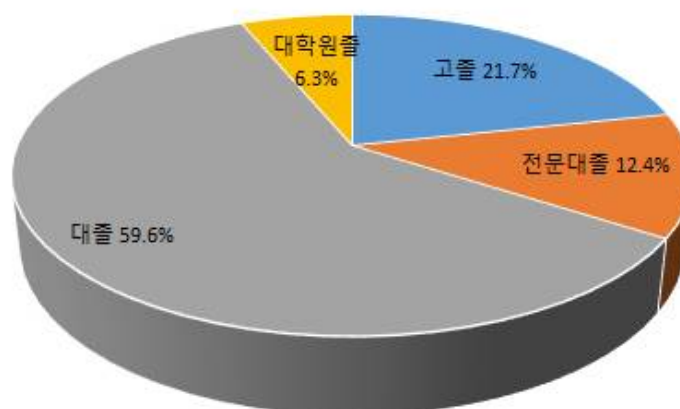
<그림 II-6> 근무기간별 인력 비중



□ 학력별 인력 비중

- 학력별로는 대졸이 59.6%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고졸 (21.7%), 전문대졸(12.4%), 대학원졸(6.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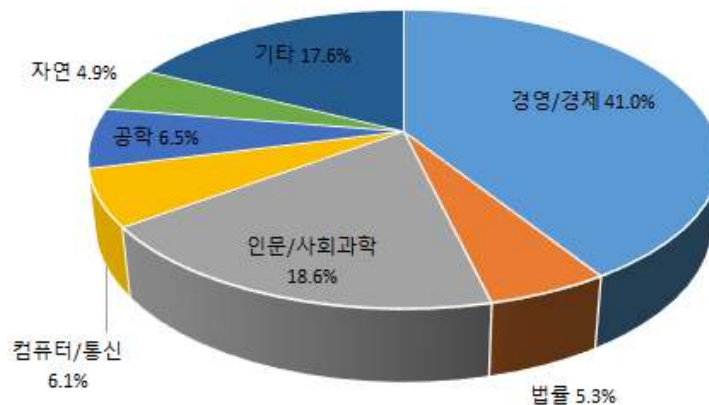
<그림 II-7> 학력별 인력 비중



□ 전공(대졸)별 인력 비중

- 대졸자의 전공별 인력 비중은 경영/경제(41.0%), 인문/사회(18.6%), 공학(6.5%), 컴퓨터/통신(6.1%), 법률(5.3%), 자연(4.9%)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8> 전공별 인력 비중(대졸자 대상)



나. 세부 항목별 금융인력 현황

(1) 고용형태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 2015년 조사대상 금융회사의 인력구조는 정규직이 88.1%, 비정규직이 11.9%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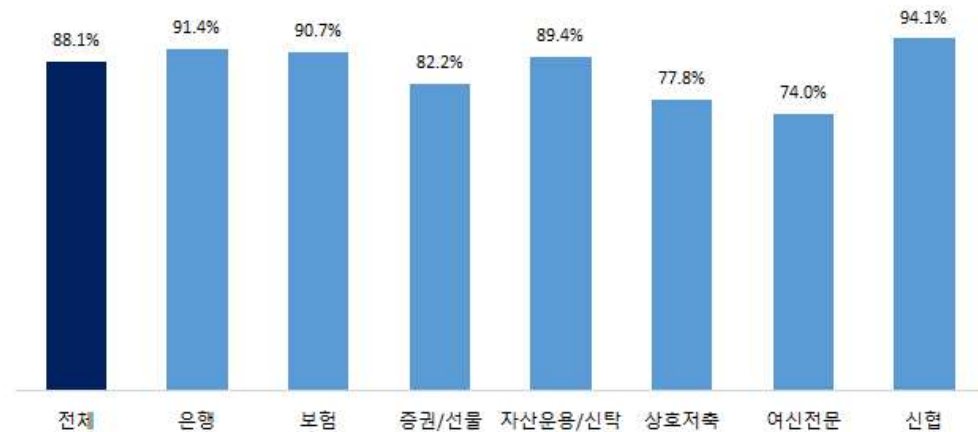
- 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권은 신탁(94.1%), 은행(91.4%), 보험(90.7%)이고, 여신전문은 정규직 비율이 74.0%로 타 업권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

-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정규직 비중이 67.5%인 점을 감안할 때, 금

융산업에서의 고용이 다른 산업에서의 고용에 비하여 상당히 안정적임을 시사함.

<그림 II-9>

업권별 정규직 비중



<표 II-9>

업권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정규직	88.1	91.4	90.7	82.2
비정규직	11.9	8.6	9.3	17.8
전체	100.0	100.0	100.0	100.0
구분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정규직	89.4	77.8	74.0	94.1
비정규직	10.6	22.2	26.0	5.9
전체	100.0	100.0	100.0	100.0

<표 II-10>

산업별 고용형태

(단위 : %)

	계	농림업 및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정규직	67.5	30.2	86.3	62.9	47.7	66.2	60.4	74.8
비정규직	32.5	69.8	13.7	37.1	52.3	33.8	39.6	25.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2015년 8월 기준)

② 성별 형태

- 2015년 조사대상 금융회사 인력 중에서 남성 정규직 비중은 91.5%, 여성 정규직 비중은 84.2%로, 남성의 정규직 비중이 7.3%p 더 높게 나타남.

<표 II-11>

성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구 분	남성	여성
정규직	91.5	84.2
비정규직	8.5	15.8
계	100.0	100.0

<표 II-12> 전산업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단위 : 천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16,104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19,312
정규직		10,658	10,725	11,362	11,515	11,823	12,295	12,699	13,041
비정규직		5,445 (33.8)	5,754 (34.9)	5,685 (33.3)	5,995 (34.2)	5,911 (33.3)	5,946 (32.6)	6,077 (32.4)	6,271 (32.5)
	한시적	60.4	60.9	57.7	57.4	57.6	57.7	57.7	58.0
	시간제	22.6	24.8	28.5	28.4	30.9	31.7	33.4	35.7
	비전형	39.2	39.7	40.3	40.5	38.7	37.2	34.8	35.2

주 : 1)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간 중복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2015년 8월 기준)

<표 II-13> 전산업 남자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단위 : 천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9,366	9,515	9,783	10,034	10,134	10,392	10,635	10,878
정규직		6,667	6,833	7,134	7,242	7,377	7,634	7,809	7,997
비정규직		2,699 (28.8)	2,681 (28.2)	2,649 (27.1)	2,791 (27.8)	2,757 (27.2)	2,758 (26.5)	2,826 (26.6)	2,882 (26.5)
	한시적	63.0	62.8	59.5	58.9	60.5	59.6	61.1	60.6
	시간제	13.8	13.7	16.1	16.8	18.4	19.1	20.8	23.9
	비전형	41.4	43.1	45.9	45.0	43.6	42.8	39.5	39.5

주 : 1)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간 중복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2015년 8월 기준)

<표 II-14> 전산업 여자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단위 : 천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6,737	6,964	7,265	7,476	7,600	7,848	8,141	8,434
정규직		3,991	3,891	4,228	4,273	4,445	4,661	4,890	5,044
비정규직		2,746	3,073	3,037	3,203	3,154	3,187	3,251	3,390
		(40.8)	(44.1)	(41.8)	(42.8)	(41.5)	(40.6)	(39.9)	(40.2)
	한시적	57.8	59.4	56.1	56.1	55.0	56.1	54.8	55.8
	시간제	31.2	34.4	39.3	38.5	41.8	42.6	44.4	45.7
	비전형	37.1	36.7	35.4	36.5	34.4	32.4	30.7	31.5

주 : 1)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간 중복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2015년 8월 기준)

<표 II-15>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별 규모

(단위 : 천명,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정규직		5,754	5,685	5,995	5,911	5,946	6,077	6,271
비 율	농림어업	1.9	2.1	2.0	1.5	1.4	1.3	1.4
	광·제조업	9.1	9.2	9.0	8.5	8.5	8.3	8.8
	(제조업)	9.1	9.1	9.0	8.4	8.5	8.2	8.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89.0	88.7	89.0	90.0	90.1	90.5	89.8
	(건설업)	12.6	12.6	12.0	11.7	11.6	11.1	11.6
	(도소매·음식숙박업))	18.3	18.6	18.1	18.7	19.0	19.7	19.8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47.6	47.5	48.3	49.2	48.4	49.1	49.1
	(전기·운수·통신·금융)	10.4	10.0	10.6	10.4	11.0	10.6	9.4

자료: 통계청(2015년 8월 기준)

<표 II-16>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별 규모

(단위 : 천명,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정규직		5,754	5,685	5,995	5,911	5,946	6,077	6,271
비 율	관리자·전문가	15.4	16.7	18.1	17.5	17.8	17.7	17.6
	사무 종사자	11.0	11.3	11.4	11.6	11.9	11.4	10.4
	서비스·판매 종사자	22.1	22.7	22.5	24.1	23.5	24.0	23.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4	0.6	0.5	0.5	0.4	0.4	0.4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16.9	16.4	16.3	15.8	15.8	15.7	16.7
	단순노무 종사자	34.2	32.2	31.2	30.4	30.7	30.8	31.2

자료: 통계청(2015년 8월 기준)

(2)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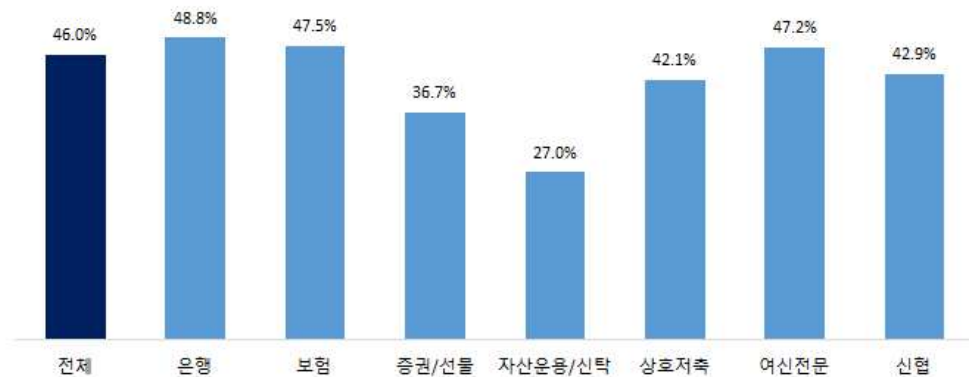
① 업권별 형태

☐ 조사대상인 7개 금융업권 전체적으로 여성 고용비율은 46.0%로 나타남.

☐ 업권별 여성 고용비율은 은행이 48.8%로 가장 높고, 보험(47.5%), 여신전문(47.2%), 신탁(42.9%), 상호저축(42.1%), 증권/선물(36.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권은 자산운용/신탁(27.0%)으로 조사됨.

<그림 II-10>

업권별 여성 비중



(3) 직무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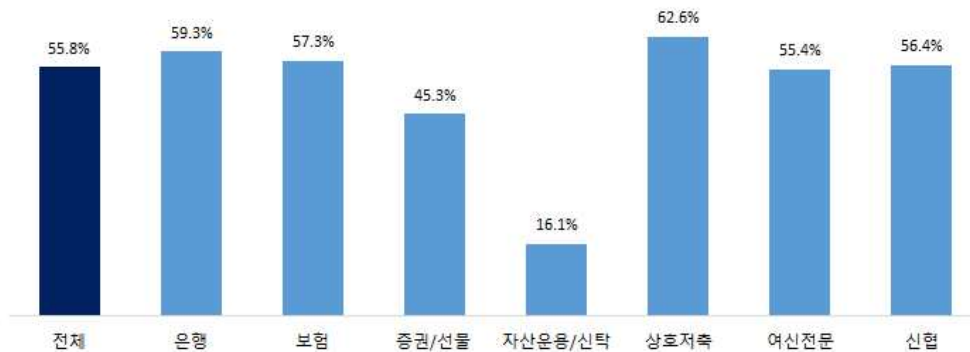
□ 조사대상 금융회사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인력 비중을 차지한 직무는 영업·마케팅(55.83%)이며, 다음으로 경영관리(13.86%), 영업지원(5.54%), 자산관리(3.86%), 보험(3.80%), 자산운용(2.43), 투자은행(1.38%) 순으로 나타남.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 업권을 제외하고 모든 업권에서 영업·마케팅 직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은행의 영업·마케팅 직무에 투입된 인력 비율이 높은 것은 대고객 창구를 통한 영업을 위주로 하는 국내 은행의 특성을 반영함.

○ 자산운용/신탁 업권의 경우 자산운용 직무 비중이 33.66%를 차지하고 이어 경영관리 직무 비중이 22.22%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11> 업권별 영업·마케팅 직무 비중



<표 II-17> 업권별 직무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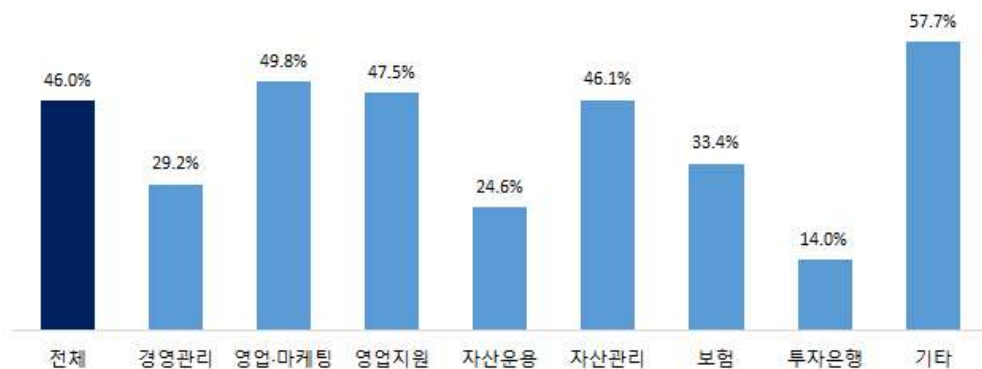
구 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경영관리	13.86	8.26	18.13	19.06
영업·마케팅	55.83	59.31	57.33	45.27
영업지원	5.54	3.37	1.28	3.91
자산운용	2.43	1.02	1.53	6.55
자산관리	3.86	3.02	0.70	15.90
보험	3.80	0.01	17.92	-
투자은행	1.38	0.64	0.13	6.36
기타	13.31	24.37	2.98	2.94
계	100.0	100.0	100.0	100.0
구 분	자산운용 /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경영관리	22.22	18.15	15.16	35.80
영업·마케팅	16.14	62.63	55.40	56.40
영업지원	6.86	15.65	25.83	4.85
자산운용	33.66	0.17	0.35	0.75
자산관리	10.61	0.11	0.03	-
보험	-	0.04	0.04	-
투자은행	9.47	0.38	0.23	-
기타	1.05	2.88	2.97	2.19
계	100.0	100.0	100.0	100.0

② 성별 형태

- 직무별 여성 인력의 고용비율은 영업·마케팅 직무가 49.8%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영업지원(47.5%), 자산관리(46.1%), 보험(33.4%), 경영관리(29.2%) 직무 순으로 여성 고용비율이 높게 나타남.
- 영업·마케팅 직무의 여성인력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고객을 접하는 창구영업 등에서 여성인력을 선호하는 금융업계 관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산운용 및 투자은행 직무의 경우 여성 인력 비중이 각각 24.6%, 14.0%로 타 직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기타 항목인 휴직자, 파견자 등에서는 여성 비율이 57.7%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12>

직무별 여성 고용 비중



<표 II-18>

직무별 남녀 고용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경영 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 지원	자산 운용	자산 관리	보험	투자 은행	기타
남성	54.0	70.8	50.2	52.5	75.4	53.9	66.6	86.0	42.3
여성	46.0	29.2	49.8	47.5	24.6	46.1	33.4	14.0	5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조사대상 금융회사에서 영업·마케팅 직무에 전체 여성인력의 60.5%가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권에서 여성인력이 영업·마케팅 직무에 편중되어 있음.

- 여성인력이 영업·마케팅 직무에 특히 편중된 업권은 상호저축(73.2%), 신탁(72.8%), 보험(66.8%), 은행(60.2%), 여신전문(53.9%), 증권/선물(52.7%)로 조사됨.
- 자산운용/신탁 업권의 경우 영업·마케팅의 여성인력 비중이 15.2%로 낮은 반면, 경영관리 및 자산운용에 여성인력이 각각 32.2% 및 26.8%로 상대적으로 높음.
- 은행의 경우 여성인력이 영업·마케팅 직무에 60.2% 분포되어 있으며, 그 외에 휴직자, 파견자 등을 포함한 기타 항목이 27.2%로 높게 나타남.

<표 II-19>

여성의 직무 분포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경영관리	8.8	4.3	12.7	14.8
영업·마케팅	60.5	60.2	66.8	52.7
영업지원	5.7	3.0	0.7	6.1
자산운용	1.3	0.7	0.7	3.9
자산관리	3.9	4.4	0.5	13.5
보험	2.8	-	12.6	-
투자은행	0.4	0.2	0.1	2.4
기타	16.7	27.2	5.8	6.6
계	100.0	100.0	100.0	100.0
구분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경영관리	32.2	10.8	9.6	22.0
영업·마케팅	15.2	73.2	53.9	72.8
영업지원	10.4	9.4	31.4	1.5
자산운용	26.8	0.1	0.1	1.0
자산관리	7.5	0.3	-	-
보험	-	-	0.1	-
투자은행	5.2	0.1	0.1	-
기타	2.7	6.1	4.8	2.7
계	100.0	100.0	100.0	100.0

(4) 급여수준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 전체 조사대상 금융회사 직원의 60.8%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 금융회사 직원의 급여 수준에 따른 인력비율은 2,500만원 ~ 5,000만원 미만 구간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5,000만원 ~ 7,500만원 미만이 24.4%, 7,500만원 ~ 1억원 미만 19.8%, 1억원 ~ 1.5억원 미만 14.8%, 2,500만원 미만 10.3%, 1.5억원 이상이 1.8%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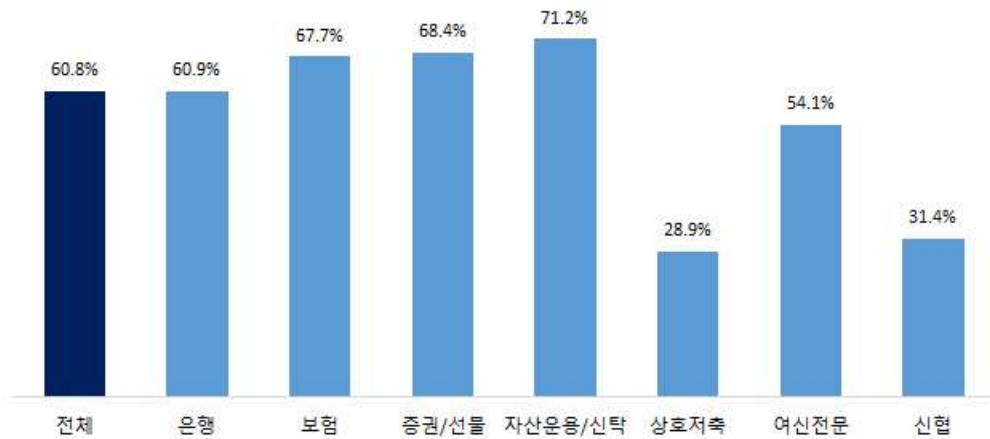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 및 증권/선물의 1.5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중은 각각 8.5% 및 3.8%로 전체 평균인 1.8%를 크게 웃돌고 있음.

○ 1억 이상 연봉자의 비중은 2012년 9.9%, 2013년 16.5%, 2014년 19.2%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16.6%를 기록함.

○ 2012년 이후 1억원 이상 연봉자 비중의 변화 이유는 실제로 고액연봉자가 증가한 데도 일부 기인하지만 고액연봉자 비중이 높은 은행권의 응답비중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은행권의 응답인원은 2012년 74,919명에서 2013년 113,531명으로 약 51.5%(38,612명 증가)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131,891명으로 전년대비 약 16.1% 증가함. 2015년에는 95,482명으로 전년대비 약 27.6% 감소하였음.

<그림 II-13> 업권별 급여 연 5,000만원 이상 인력비중



<표 II-20> 업권별 급여 수준 비중

(단위 : %)

구 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2,500만원 미만	10.3	14.3	5.5	4.0	2.1	15.0	4.6	17.0
2,500~5,000만원 미만	28.8	24.9	26.8	27.6	26.8	56.1	41.2	51.6
5,000~7,500만원 미만	24.4	17.9	35.4	30.8	27.6	20.6	28.0	23.0
7,500만원~1억 미만	19.8	21.9	20.7	21.8	20.0	5.4	12.9	7.0
1억~1.5억 미만	14.8	20.0	9.4	11.9	15.1	1.9	11.3	1.4
1.5억 이상	1.8	1.1	2.3	3.8	8.5	1.1	1.9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성별 형태

□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남성인력은 78.6%, 여성인력은 40.2%인 것으로 조사됨.

<표 II-21>

성별 급여 수준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2,500만원 미만	3.7	18.1
2,500~5,000만원 미만	17.7	41.8
5,000~7,500만원 미만	25.6	23.1
7,500만원~1억 미만	26.6	12.0
1억~1.5억 미만	23.3	4.8
1.5억 이상	3.1	0.3
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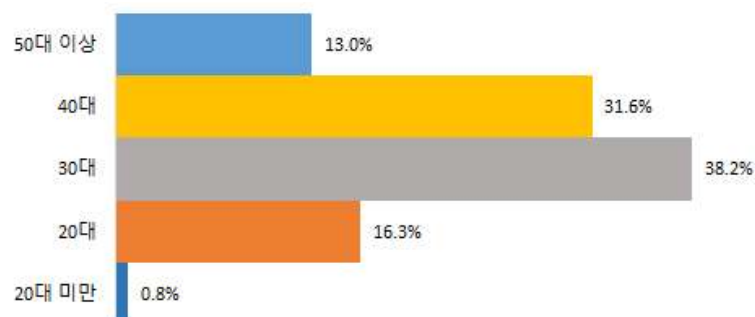
(5) 연령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 연령별로 2015년 금융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30대(38.2%)가 가장 많고, 이어 40대(31.6%), 20대(16.3%), 50대 이상(13.0%), 20대 미만(0.8%)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금융인력 구조는 중간층이 두터운 향아리 형태를 보이고 있음.

<그림 II-14>

전체 업권 연령별 금융인력 비중



□ 업권별로 50대 이상 연령 비중을 보면, 은행과 신탁이 각각 18.2%, 17.1%로 업권 전체 평균인 13.0%보다 높고, 이어 증권/선물(9.6%), 자산운용/신탁(9.3%), 상호저축(8.1%), 보험(7.0%), 여신전문(5.1%) 순으로 나타남.

○ 30대 비율은 7개 업권 중 상호저축이 45.5%로 가장 높고, 여신전문 44.5%, 증권/선물과 자산운용/신탁이 각각 43.6%, 보험 43.4%, 신탁 33.9%, 은행 33.1% 순으로 나타남.

<표 II-22>

업권별 연령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20대 미만	0.8	0.8	1.1	0.3	5.0	0.6	0.1	0.8
20대	16.3	15.8	15.5	12.5	13.7	26.1	20.9	22.4
30대	38.2	33.1	43.4	43.6	43.6	45.5	44.5	33.9
40대	31.6	32.1	33.0	34.0	28.4	19.7	29.4	25.9
50대 이상	13.0	18.2	7.0	9.6	9.3	8.1	5.1	1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성별 형태

□ 남성은 40대 39.0%, 30대 30.7%, 50대 이상이 21.3%인 것으로 조사됨.

○ 반면 20대 및 20대 미만은 각각 8.7%, 0.3%로 낮게 나타남.

□ 여성은 30대가 4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대가 25.1%, 40대 23.0%, 50대 이상 3.3%, 20대 미만 1.4% 순으로 나타남.

○ 금융권 남성인력 중 40대 이상 비율이 60.3%로 과반수인데 반해, 여성인력의 40대 이상 비율은 26.3%에 불과함.

<표 II-23>

성별 연령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20대 미만	0.3	1.4
20대	8.7	25.1
30대	30.7	47.1
40대	39.0	23.0
50대 이상	21.3	3.3
계	100.0	100.0

(6) 근무기간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 금융회사 전체 종사자의 금융업에서의 총 근무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이 43.7%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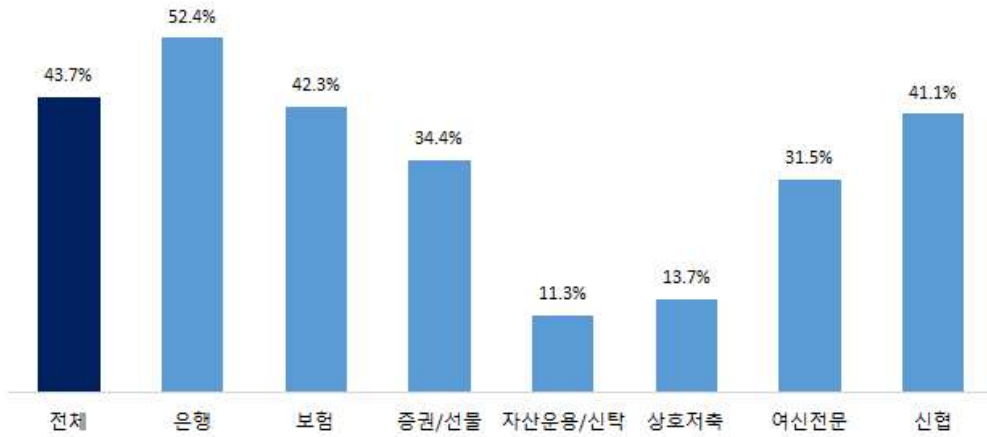
○ 금융인력의 근무기간별 비중은 5년 미만이 37.4%로 가장 높고 그 뒤로 20년 이상이 23.7%, 5~10년 미만이 18.9%, 10~15년 미만과 15~20년 미만이 각각 10.0%로 조사되었음.

○ 인력구조의 중간 부분인 10~20년 미만 경력자의 비율이 낮은 표주박형 인력구조를 보이는 것은, 최근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수익성 부진 등으로 금융회사의 신규 채용이 위축되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업권별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비율을 보면, 은행(52.4%)이 가장 높고 이어 보험(42.3%), 신탁(41.1%), 증권/선물(34.4%), 여신전문(31.5%), 상호저축(13.7%), 자산운용/신탁(11.3%)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15>

업권별 10년 이상 근무자 비중



<표 II-24>

업권별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 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5년 미만	37.4	32.4	37.9	33.9	65.7	71.2	51.5	36.2
5~10년 미만	18.9	15.2	19.8	31.8	23.0	15.1	17.0	22.7
10년 이상	43.7	52.4	42.3	34.4	11.3	13.7	31.5	41.1
10~15년 미만	10.0	8.0	13.1	9.9	6.6	7.3	13.7	15.5
15~20년 미만	10.0	7.8	13.4	14.4	4.2	3.0	11.1	10.3
20년 이상	23.7	36.6	15.8	10.0	0.5	3.4	6.7	1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성별 형태

- ☐ 성별로 장기 근속자의 비율을 보면, 남성인력의 50.8%, 여성인력의 35.4%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것으로 조사됨.
- 남성인력은 5년 미만 근속자(31.6%)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50.8%)이 높고, 인력구조의 중간층인 5~10년 미만 비율이 17.5%로 낮음.
- 여성인력은 5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44.2%로 높게 나타남.

<표 II-25>

성별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5년 미만		31.6	44.2
5~10년 미만		17.5	20.4
10년 이상		50.8	35.4
	10~15년 미만	9.1	11.1
	15~20년 미만	11.2	8.6
	20년 이상	30.5	15.7
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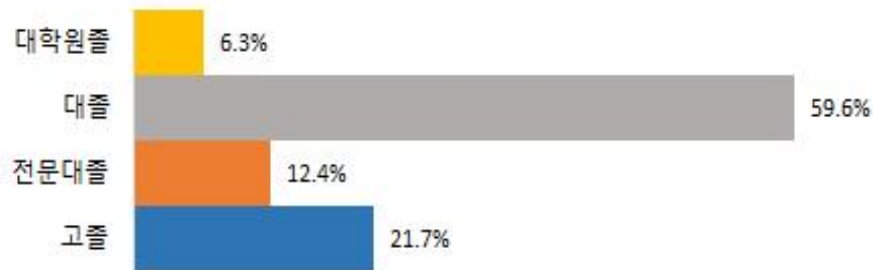
(7) 학력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 ☐ 전체 금융회사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이 59.6%로 과반을 차지하고, 이어 고졸(21.7%), 전문대졸(12.4%), 대학원졸(6.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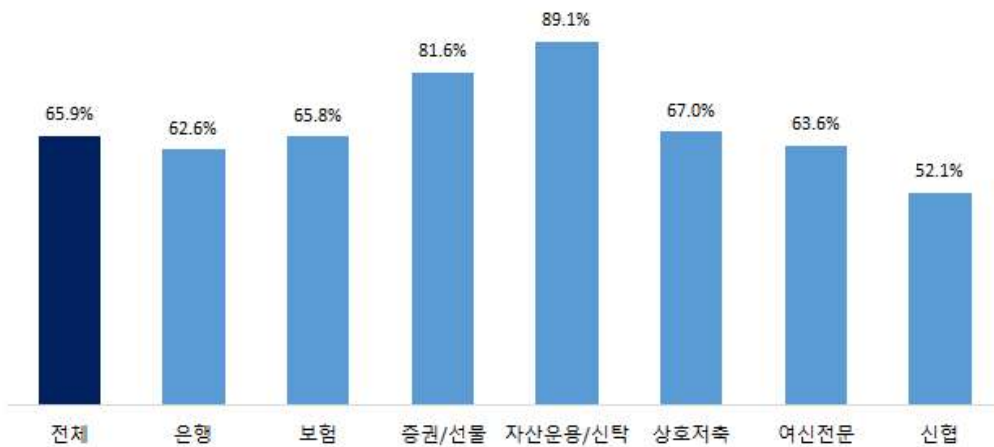
전체 업권 학력별 금융인력 비중



- 업권별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을 보면, 자산운용/신탁이 89.1%로 가장 높고, 이어 증권/선물(81.6%), 상호저축(67.0%), 보험(65.8%), 여신전문(63.6%), 은행(62.6%), 신탁(52.1%) 순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7>

업권별 대졸 이상 비중



<표 II-26>

업권별 학력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고졸	21.7	27.6	18.9	8.2	7.7	14.8	17.2	23.5
전문대졸	12.4	9.9	15.3	10.3	3.2	18.2	19.2	24.3
대졸이상	65.9	62.6	65.8	81.6	89.1	67.0	63.6	52.1
대졸	59.6	58.1	59.4	69.8	65.7	63.1	56.2	49.0
대학원졸	6.3	4.5	6.4	11.8	23.4	3.9	7.4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성별 형태

- ☐ 전체 남성인력 중 대졸자는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인력의 경우 49.1%가 대졸자로 조사됨.
- 고졸비율은 여성인력이 남성인력보다 높고 대학원졸업자 비율은 남성인력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I-27>

성별 학력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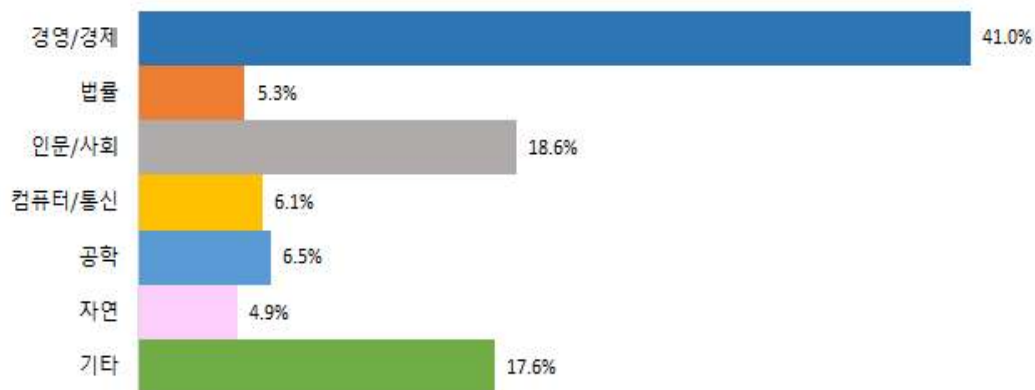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고졸	15.5	28.8
전문대졸	6.6	19.1
대졸	68.6	49.1
대학원졸	9.3	2.9
계	100.0	100.0

(8) 전공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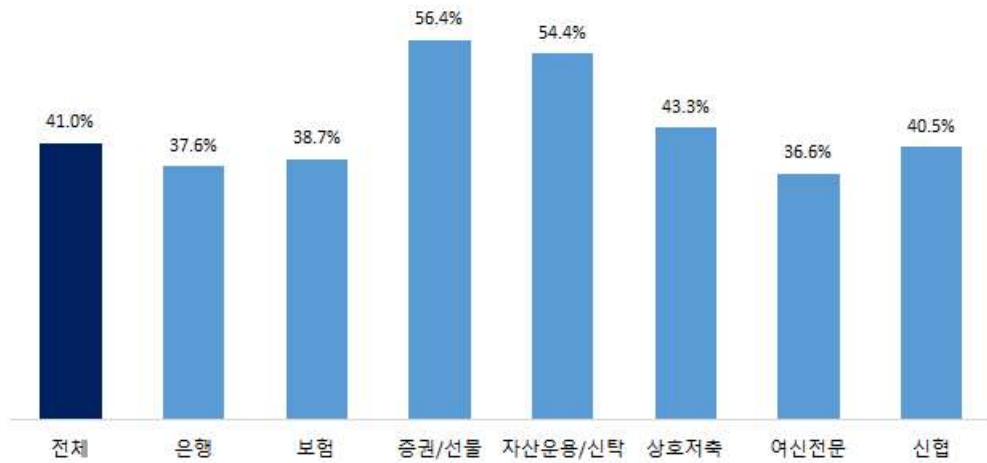
- 전체 금융회사 종사자 중 대출자의 전공은 경영/경제가 41.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인문/사회 18.6%, 공학 6.5%, 컴퓨터/통신 6.1%, 법률 5.3%, 자연 4.9%, 기타 17.6%로 나타남.
- 경영/경제 및 인문/사회 전공자가 59.6%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II-18> 전체 업권 전공별 금융인력 비중



- 모든 업권에서 대출자 전공 비중은 경영/경제가 가장 크고 이어 인문/사회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자산운용/신탁 및 여신전문 업권의 경우 공학 전공자가 각각 11.1%, 10.5%로 타 업권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II-19> 업권별 경영/경제 전공 비중(대졸자)



<표 II-28>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 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경영/경제	41.0	37.6	38.7	56.4	54.4	43.3	36.6	40.5
법률	5.3	4.7	6.0	3.8	7.7	6.9	8.3	4.6
인문/사회	18.6	20.0	20.8	16.7	10.8	17.3	11.5	16.9
컴퓨터/통신	6.1	5.9	6.6	6.3	3.4	6.3	7.3	4.9
공학	6.5	5.8	6.9	5.7	11.1	5.4	10.5	7.0
자연	4.9	4.5	6.4	4.2	3.8	3.8	5.0	4.7
기타	17.6	21.5	14.5	7.0	8.8	17.1	20.8	2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전체 금융회사 종사자 중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은 경영/경제 46.3%, MBA 17.9%, 인문/사회 7.9%, 공학 6.1%, 컴퓨터/통신 5.3% 순으로 나타남.

<표 II-29>

업권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MBA	17.9	22.2	13.6	15.6	17.2	16.5	16.8	17.4
경영/경제	46.3	46.8	41.1	53.3	44.7	52.6	39.8	46.4
인문/사회	7.9	6.7	8.5	9.2	7.5	10.6	7.5	8.5
컴퓨터/통신	5.3	4.5	7.2	4.2	1.9	5.0	10.0	1.7
공학	6.1	4.1	8.5	6.0	10.5	2.2	5.8	7.2
기타	16.6	15.8	21.2	11.6	18.2	13.1	20.1	1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성별 형태

☐ 전체 금융회사 종사자 중 대출자의 전공 비율은 남녀 모두 경영/경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인력의 경우 경영/경제 전공자 비율이 46.5%, 인문/사회가 15.3%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인력의 경우 경영/경제가 32.1%, 인문/사회가 24.0%로 조사됨.

<표 II-30>

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경영/경제	46.5	32.1
법률	6.5	3.2
인문/사회	15.3	24.0
컴퓨터/통신	6.6	5.4
공학	6.8	6.1
자연	4.4	5.7
기타	13.9	23.5
계	100.0	100.0

□ 전체 금융회사 종사자의 대학원 전공 비율은 남녀 모두 경영/경제, MBA, 인문/사회 순으로 나타남.

○ 남녀모두 경영/경제가 각각 47.6%,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MBA 전공자 비율은 남성이 더 높게, 인문/사회 전공자 비율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I-31>

성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MBA	19.0	13.7
경영/경제	47.6	41.6
인문/사회	7.2	10.3
컴퓨터/통신	5.0	6.3
공학	6.6	4.3
기타	14.6	23.8
계	100.0	100.0

다. 기술금융 인력 현황

- 2015년 조사대상 금융회사 중 기술금융 인력은 남성 383명, 여성 114명으로 총 497명인 것으로 조사됨.
- 다만 기술금융 인력 현황은 조사대상 금융회사 중 은행 6개사, 증권/선물 1개사, 자산운용 3개사, 상호저축 1개사, 여신전문 3개사 등 총 14개 회사만 응답하여, 전수화하기에는 응답률이 너무 낮아서 동 수치는 전수화하지 않은 수치를 보고함.

(1) 고용형태별 현황

- 2015년 조사대상 금융회사의 기술금융 인력은 정규직 비중이 86.2%, 비정규직 비중이 13.8%로 나타남.
- 기술금융 직무에 종사 중인 남성의 정규직 비중은 88.5%, 여성의 정규직 비중은 71.4%로 남성인력의 정규직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표 II-32> 기술금융 인력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정규직	86.2	88.5	71.4
비정규직	13.8	11.5	28.6
계	100.0	100.0	100.0

(2) 성별 현황

- 기술금융 인력 중 남성비율은 77.1%로 남성이 기술금융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비율은 22.9%인 것으로 조사됨.
- 기술금융 종사 여성비율은 조사 금융회사 전체의 여성 고용비율 46.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임.

<표 II-33>

기술금융 인력 남녀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77.1
여성	22.9
계	100.0

(3) 급여수준별 현황

- 기술금융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88.5%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 기술금융 인력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급여 구간은 1억 ~ 1.5억원 미만인 41.0%, 5,000만원 ~ 7,500만원 미만인 25.0%, 7,500만원 ~ 1억원 미만인 21.3%, 2,500만원 ~ 5,000만원 미만인 10.7%, 1.5억 이상이 1.1%, 2,500만원 미만인 0.8% 순으로 나타남.
- 금융회사 전체적으로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60.8%인 것과 비교하면 기술금융 직무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기술금융 인력 중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남성은 93.5%에 달하고, 여성은 55.3%인 것으로 조사됨.

<표 II-34>

기술금융 인력 급여 수준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500만원 미만	0.8	0.3	4.3
2,500~5,000만원 미만	10.7	6.1	40.4
5,000~7,500만원 미만	25.0	24.9	25.5
7,500만원~1억 미만	21.3	23.3	8.5
1억~1.5억 미만	41.0	44.0	21.3
1.5억 이상	1.1	1.3	-
계	100.0	100.0	100.0

(4) 연령별 현황

- 기술금융 직무의 인력구조는 40대(50.8%)가 가장 많고, 그 뒤로 30대(28.1%), 50대 이상(14.6%), 20대(6.5%)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0대 미만의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금융 직무에 종사하는 남성인력은 40대가 5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금융 종사 여성의 경우 30대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술금융 종사 남성인력의 40대 이상 비율이 70.2%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 반해, 여성인력의 40대 이상 비율은 34.1%에 불과함.

<표 II-35>

기술금융 인력 연령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대 미만	-	-	-
20대	6.5	3.6	25.5
30대	28.1	26.2	40.4
40대	50.8	54.0	29.8
50대 이상	14.6	16.2	4.3
계	100.0	100.0	100.0

(5) 근무기간별 현황

□ 기술금융 종사자의 총 근무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이 57.5%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20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36.7%에 달함.

○ 금융회사 전체의 10년 이상 근무자 비중이 43.7%인 것을 감안하면, 기술금융 종사자들의 근속연수가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음.

□ 기술금융 종사 남성인력의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은 62.1%로 높게 나타난 반면, 10년 이상 근속한 기술금융 종사 여성인력은 27.1%인 것으로 조사됨.

○ 기술금융 종사 남성인력은 20년 이상 근속자가 39.4%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인력의 경우 5년 미만 근무한 인력이 62.5%로 과반을 차지함.

<표 II-36>

기술금융 인력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5년 미만		31.2	26.5	62.5
5~10년 미만		11.2	11.4	10.4
10년 이상		57.5	62.1	27.1
	10~15년 미만	6.8	7.6	2.1
	15~20년 미만	14.0	15.1	6.3
	20년 이상	36.7	39.4	18.8
계		100.0	100.0	100.0

(6) 학력별 현황

- ☐ 전체 기술금융 인력 중 대졸 비율이 54.0%로 가장 높고, 그 뒤로 대학원졸(27.1%), 고졸(15.2%), 전문대졸(3.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기술금융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인력의 대졸 이상 비율은 각각 81.2%, 80.4%로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남.

<표 II-37>

기술금융 인력 학력별 남녀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고졸	15.2	16.6	9.3
전문대졸	3.7	2.2	10.3
대졸	54.0	51.5	64.5
대학원졸	27.1	29.7	15.9
계	100.0	100.0	100.0

(7) 전공별 현황

□ 기술금융 종사자 중 대졸자의 전공은 경영/경제가 30.2%, 공학 15.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법률 6.2%, 인문/사회 6.2%, 자연 6.2%, 컴퓨터/통신 5.9% 순으로 조사됨.

○ 남성인력과 여성인력 모두 경영/경제 전공자 비중이 각각 33.9%,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 -38> 기술금융 인력 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경영/경제	30.2	33.9	17.4
법률	6.2	6.8	4.3
인문/사회	6.2	6.4	5.8
컴퓨터/통신	5.9	6.4	4.3
공학	15.7	16.9	11.6
자연	6.2	6.8	4.3
기타	29.5	22.9	52.2
계	100.0	100.0	100.0

<참고>

광의의 기술금융 인력

- 본 조사에서 기술금융인력은 497명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우리 금융시장에서 기술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는 금융회사 자체 고용인력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외부 전문 기술평가회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함.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회사임. ('14.6.20. TCB업무 개시)
-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와 신용 상거래 촉진을 위해 국책회사 및 민간 금융회사가 설립한 기업신용조사 및 평가회사로 국내최대의 기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4.6.25. TCB업무 개시)
- 나이스평가정보는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합병으로 설립되었는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시장인지도를 바탕으로 개인신용평가 및 기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4.7.15. TCB업무 개시)
- 이크레더블은 '15.4월 기술평가 전문인력 20명을 포함해 총 75명을 확보하여, 4번째 기술신용평가회사(TCB)로서 업무를 개시함. ('15.4.8. TCB업무 개시)
-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 전담인력은 954명으로 파악되는데, 본 금융인력조사에서 파악된 497명을 합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총 1,451명의 기술금융 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II-39>

기술신용평가회사 기술금융인력 현황

(단위 : 명)

	공공 TCB (기술신용보증기금)	민간 TCB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기술신용평가 전담인력	582	372

※ 자료 : 금융위원회(2015.4월 기준)

라. 금융보안 인력 현황

□ 2015년 조사대상 금융회사의 금융보안 인력은 전체 금융인력의 0.6%를 차지함.

○ 금융보안 인력 현황은 전수화된 결과임.

(1) 고용형태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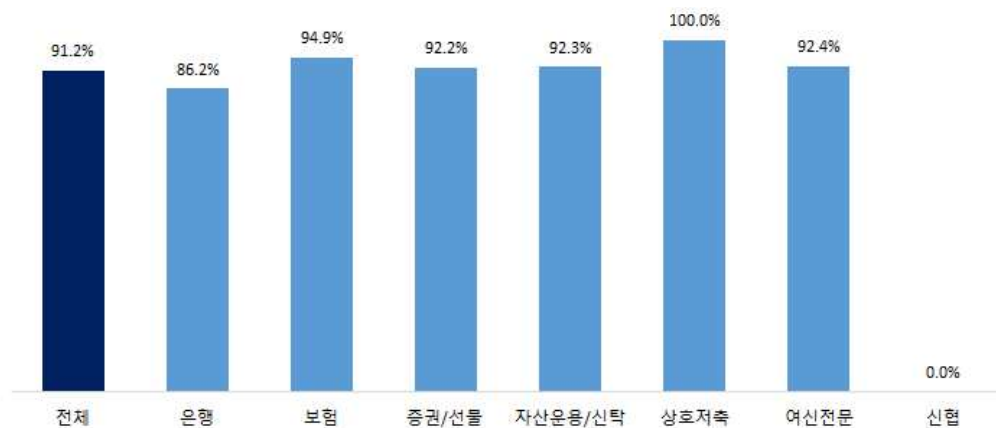
① 업권별 형태

□ 조사대상 금융회사의 금융보안 인력은 정규직 비중이 91.2%, 비정규직 비중이 8.8%로 나타남.

○ 금융보안 인력의 정규직 비중이 높은 업권은 상호저축(100.0%), 보험(94.9%), 여신전문(92.4%), 자산운용/신탁(92.3%), 증권/선물(92.2%), 은행(86.2%) 순으로 나타남.

○ 다만 신탁의 경우 응답 회사 중 금융보안 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회사가 없었음.

<그림 II-20> 금융보안인력 업권별 정규직 비중



<표 II-40>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정규직	1,689 (91.2)	524 (86.2)	405 (94.9)	274 (92.2)
비정규직	162 (8.8)	84 (13.8)	22 (5.1)	23 (7.8)
계	1,851 (100.0)	608 (100.0)	427 (100.0)	297 (100.0)
구분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정규직	54 (92.3)	77 (100.0)	355 (92.4)	0 (-)
비정규직	4 (7.7)	0 (-)	29 (7.6)	0 (-)
계	58 (100.0)	77 (100.0)	384 (100.0)	0 (-)

② 성별 형태

□ 조사대상 금융회사에서 금융보안 직무에 종사 중인 남성의 정규직 비중이 91.4%, 여성 정규직 비중은 90.1%로 남성과 여성 인력의 정규직 비중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보안 직무의 정규직 비중은 전체 금융회사의 정규직 비중인 88.1%를 상회하고 있음.

<표 II-41> 금융보안 인력 성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정규직	91.4	90.1
비정규직	8.6	9.9
계	100.0	100.0

(2)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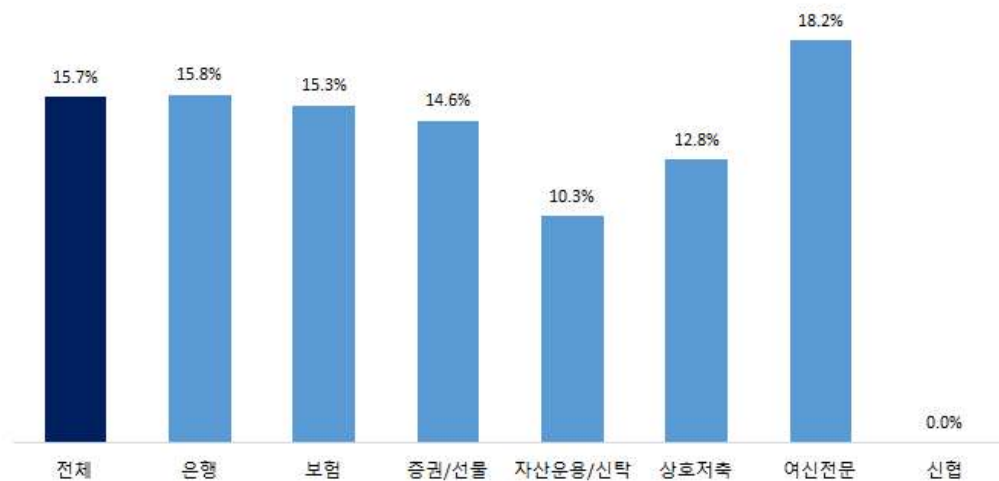
① 업권별 형태

□ 금융보안에 종사하는 여성의 고용비율은 조사대상 7개 금융업권 전체에서 15.7%로 나타남.

○ 이는 조사대상 7개업권 전 직무의 여성고용비율인 46.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임.

□ 금융보안에 종사하는 여성의 고용비율이 높은 업권은 여신전문(18.2%), 은행(15.8%), 보험(15.3%), 증권/선물(14.6%), 상호저축(12.8%), 자산운용/신탁(10.3%) 순으로 조사됨.

<그림 II-21> 금융보안인력 업권별 여성고용비율



<표 II-42>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남녀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남성	84.3	84.2	84.7	85.4
여성	15.7	15.8	15.3	14.6
계	100.0	100.0	100.0	100.0
구분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남성	89.7	87.2	81.8	-
여성	10.3	12.8	18.2	-
계	100.0	100.0	100.0	-

(3) 급여수준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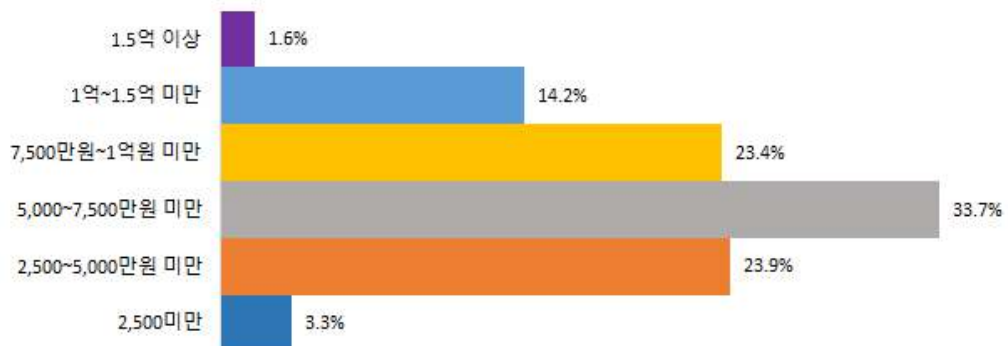
□ 조사대상 금융회사에서 금융보안에 종사하는 직원 중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은 7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금융보안 직무 종사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비율은 5,000~7,500만원 미만 구간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500~5,000만원 미만 23.9%, 7,500만원~1억원 미만 23.4%, 1억~1.5억원 미만 14.2%, 2,500만원 미만 3.3%, 1.5억 이상 1.6%이었음.

○ 2015년 조사대상 금융회사 전체 직원 중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60.8%인 것과 비교하면, 금융보안 인력이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II-22>

금융보안인력 급여수준별 비중



<표 II-43>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급여 수준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2,500만원 미만	3.3	7.1	0.6	0.6	-	6.6	0.6	-
2,500~5,000만원 미만	23.9	25.0	20.3	16.8	25.0	56.6	23.6	-
5,000~7,500만원 미만	33.7	24.2	41.8	40.0	25.0	28.9	38.5	-
7,500만원~1억 미만	23.4	23.2	26.6	29.7	43.8	6.6	14.9	-
1억~1.5억 미만	14.2	19.1	9.0	11.6	6.3	1.3	19.3	-
1.5억 이상	1.6	1.3	1.7	1.3	-	-	3.1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② 성별 형태

- ☐ 금융보안 직무에 종사하는 남성 직원의 77.1%, 여성 직원의 50.7%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44>

금융보안 인력 성별 급여 수준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2,500만원 미만	2.4	8.0
2,500~5,000만원 미만	20.5	41.3
5,000~7,500만원 미만	34.3	30.4
7,500만원~1억 미만	25.5	12.4
1억~1.5억 미만	15.4	7.9
1.5억 이상	1.9	-
계	100.0	100.0

(4) 연령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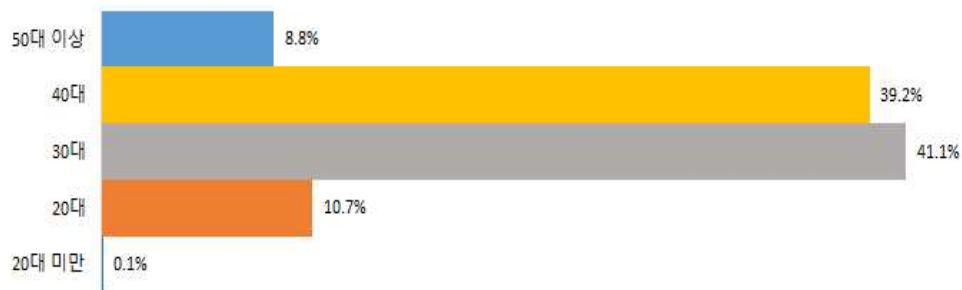
- ☐ 금융보안 직무의 인력구조는 30대(41.1%)가 가장 많고, 이어 40대(39.2%), 20대(10.7%), 50대 이상(8.8%), 20대 미만(0.1%)의 순으로 조사됨.

○ 금융보안 직무에서 20대 미만의 인력은 거의 없음.

- ☐ 보험 및 상호저축 업권은 30대 비중이 각각 51.4%, 42.3%로 가장 크고 은행,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여신전문 업권은 40대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II-23>

금융보안인력 연령별 비중



<표 II-45>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연령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20대 미만	0.1	-	-	-	-	-	0.3	-
20대	10.7	12.6	7.3	5.0	10.3	26.9	12.8	-
30대	41.1	34.0	51.4	44.3	38.5	42.3	38.6	-
40대	39.2	35.5	37.9	45.3	43.6	28.2	43.8	-
50대 이상	8.8	17.9	3.4	5.5	7.7	2.6	4.5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② 성별 형태

□ 금융보안 직무 남성인력은 40대가 42.4%, 30대가 40.1%, 50대 이상 10.2%인 것으로 조사됨.

○ 금융권 종사 남성 중 20대 연령 비중은 7.3%로 낮고 20대 미만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보안 직무 여성인력은 30대가 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대 29.6%, 40대 22.0%, 50대 이상 1.5%, 20대 미만 0.5% 순으로 나타남.

○ 금융보안 남성인력 중 40대 이상 비율이 52.6%로 과반수인데 반해, 여성인력의 40대 이상 비율은 23.5%에 불과함.

<표 II-46>

금융보안 인력 성별 연령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20대 미만	-	0.5
20대	7.3	29.6
30대	40.1	46.4
40대	42.4	22.0
50대 이상	10.2	1.5
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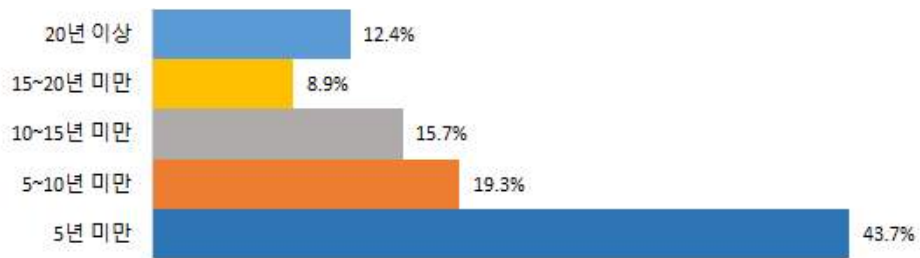
(5) 근무기간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 금융보안 종사자의 총 근무기간을 보면, 5년 미만 근무자의 비중이 43.7%로 높게 나타났으며, 5~10년 미만 19.3%, 10~15년 미만 15.7%, 20년 이상 12.4%, 15~20년 미만 8.9%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II-24>

금융보안인력 근무기간별 비중



□ 업권별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비율을 보면, 은행(48.7%)이 가장 높고 이어 여신전문(40.8%), 증권/선물(36.3%), 보험(23.2%), 자산운용/신탁(22.5%), 상호저축(17.9%) 순으로 나타남.

<표 II-47>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 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5년 미만	43.7	37.5	56.5	32.4	47.5	75.6	40.8	-
5~10년 미만	19.3	13.8	20.3	31.4	30.0	6.4	18.3	-
10년 이상	37.0	48.7	23.2	36.3	22.5	17.9	40.8	-
10~15년 미만	15.7	11.6	16.4	13.2	22.5	7.7	23.9	-
15~20년 미만	8.9	7.7	4.5	16.7	-	6.4	11.4	-
20년 이상	12.4	29.3	2.3	6.4	-	3.8	5.5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② 성별 형태

- 성별로 금융보안 직무의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을 보면, 남성 인력은 38.5%, 여성인력 29.1%로 조사됨.
- 남성인력은 5년 미만 근속자(42.8%)와 5~10년 미만 근속자(18.7%)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여성인력은 5년 미만 근속자(48.5%) 비율이 높고 5~10년 미만(22.5%), 10~15년 미만(12.8%), 15~20년 미만(8.4%), 20년 이상(7.9%)로 나타남.

<표 II-48> 금융보안 인력 성별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5년 미만		42.8	48.5
5~10년 미만		18.7	22.5
10년 이상		38.5	29.1
	10~15년 미만	16.3	12.8
	15~20년 미만	9.0	8.4
	20년 이상	13.3	7.9
계		100.0	100.0

(6) 학력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 금융보안 종사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이 72.2%로 과반을 차지하고, 이어 대학원졸(13.0%), 전문대졸(7.8%), 고졸(6.9%)의 순으로 나타남.

○ 금융보안 인력의 대졸이상 비율은 85.3%로, 전체 금융인력 중 대졸이상 비율이 65.9%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그림 II-25>

금융보안인력 학력별 비중



□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을 업권별로 보면, 여신전문이 92.7%로 가장 높고, 이어 자산운용/신탁(92.3%), 보험(91.3%), 증권/선물(82.2%), 상호저축(82.1%), 은행(77.9%) 순임.

<표 II-49>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학력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 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고졸	6.9	15.3	1.2	2.5	5.1	3.8	3.7	-
전문대졸	7.8	6.8	7.5	15.3	2.6	14.1	3.7	-
대졸이상	85.3	77.9	91.3	82.2	92.3	82.1	92.7	-
대졸	72.2	66.7	78.3	71.3	82.1	76.9	73.4	-
대학원졸	13.0	11.3	13.0	10.9	10.3	5.1	19.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② 성별 형태

□ 성별로 금융보안 종사 남성인력의 85.4%, 여성인력의 84.7%가 대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 남성인력은 대학원 졸업자가 13.5%, 여성인력은 10.7%로 전체 금융인력 중 대학원 졸업자 비중이 6.3%인 것과 비교하면, 금융보안 인력 중 대학원 졸업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50> 금융보안 인력 성별 학력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고졸	7.3	5.1
전문대졸	7.3	10.2
대졸	71.9	74.0
대학원졸	13.5	10.7
계	100.0	100.0

(7) 전공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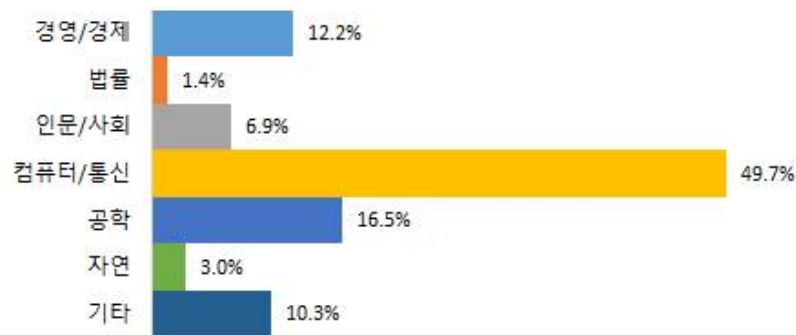
① 업권별 형태

□ 전체 금융보안 인력 중 대졸자의 전공은 컴퓨터/통신 49.7%, 공학 16.5%, 경영/경제 12.2%, 인문/사회 6.9%, 자연 3.0%, 법률 1.4%로 나타남.

○ 2015년 조사대상 전체 금융회사의 전공별 현황에서 경영/경제 전공자 비율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컴퓨터/통신 전공자 비율이 6.1%인 것과는 상이한 결과임.

<그림 II-26>

금융보안인력 전공별 비중



<표 II-51>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 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 협
경영/ 경제	12.2	9.9	6.3	12.5	34.4	8.3	18.6	-
법률	1.4	3.2	-	-	-	1.7	1.4	-
인문/ 사회	6.9	6.7	7.9	2.8	-	6.7	10.4	-
컴퓨터/ 통신	49.7	47.9	56.3	56.3	34.4	66.7	39.8	-
공학	16.5	20.4	19.8	19.4	18.8	11.7	5.9	-
자연	3.0	2.5	1.6	4.2	6.3	1.7	4.1	-
기타	10.3	9.5	7.9	4.9	6.3	3.3	19.9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전체 금융보안 인력 중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은 컴퓨터/통신 31.9%, 경영/경제 17.7%, 공학 16.9%, 인문/사회 12.2%, MBA 7.0% 순으로 나타남.

<표 II-52>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 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 협
MBA	7.0	10.4	-	18.2	-	25.0	3.4	-
경영/ 경제	17.7	14.6	14.3	22.7	50.0	-	19.0	-
인문/ 사회	12.2	6.3	14.3	13.6	-	-	17.2	-
컴퓨터/ 통신	31.9	41.7	33.3	18.2	-	50.0	29.3	-
공학	16.9	14.6	14.3	22.7	25.0	25.0	17.2	-
기타	14.4	12.5	23.8	4.5	25.0	-	13.8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② 성별 형태

□ 금융보안 인력의 대졸자 전공은 남녀 모두 컴퓨터/통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금융보안 종사 남성인력의 경우 컴퓨터/통신이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공학(18.2%), 경영/경제(11.3%), 인문/사회(5.9%) 순으로 나타남.

○ 금융보안 종사 여성인력의 경우 컴퓨터/통신 47.0%, 경영/경제 16.7%, 인문/사회 12.0% 순으로 조사되었고, 공학 전공자는 7.9%로 남성인력 중 공학 전공자 비율(18.2%)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됨.

<표 II-53>

금융보안 인력 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경영/경제	11.3	16.7
법률	1.0	3.2
인문/사회	5.9	12.0
컴퓨터/통신	50.3	47.0
공학	18.2	7.9
자연	3.1	2.4
기타	10.2	10.8
계	100.0	100.0

□ 전체 금융보안 직무 종사자 중 대학원 전공 또한, 남녀 모두 컴퓨터/통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금융보안 종사 남성인력의 경우, 컴퓨터/통신(31.4%), 공학(18.3%), 경영/경제(17.9%), 인문/사회(11.0%), MBA(7.4%) 순으로 조사됨.

○ 금융보안 종사 여성인력의 경우, 컴퓨터/통신(35.3%), 인문/사회(20.2%), 경영/경제(16.1%), 공학(7.5%), MBA(4.5%) 순으로 조사됨.

<표 II-54>

금융보안 인력 성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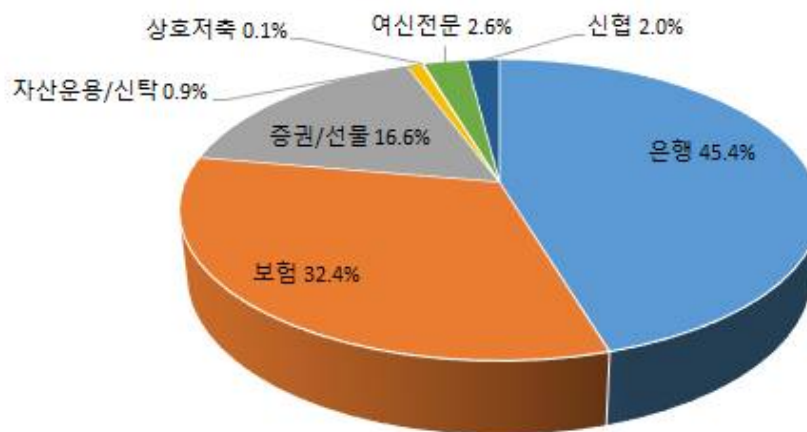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MBA	7.4	4.5
경영/경제	17.9	16.1
인문/사회	11.0	20.2
컴퓨터/통신	31.4	35.3
공학	18.3	7.5
기타	14.1	16.3
계	100.0	100.0

마. 시간제 일자리 현황

□ 시간제 근로자 수는 은행과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총 2,216명인 것으로 조사됨.

○ 시간제 일자리 현황은 전수화된 결과임.

<그림 II-27> 시간제일자리 업권별 비중



<표 II-55> 시간제 일자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일자리수	2,216	1,005	718	368	21	2	58	44
비중(%)	100.0	45.4	32.4	16.6	0.9	0.1	2.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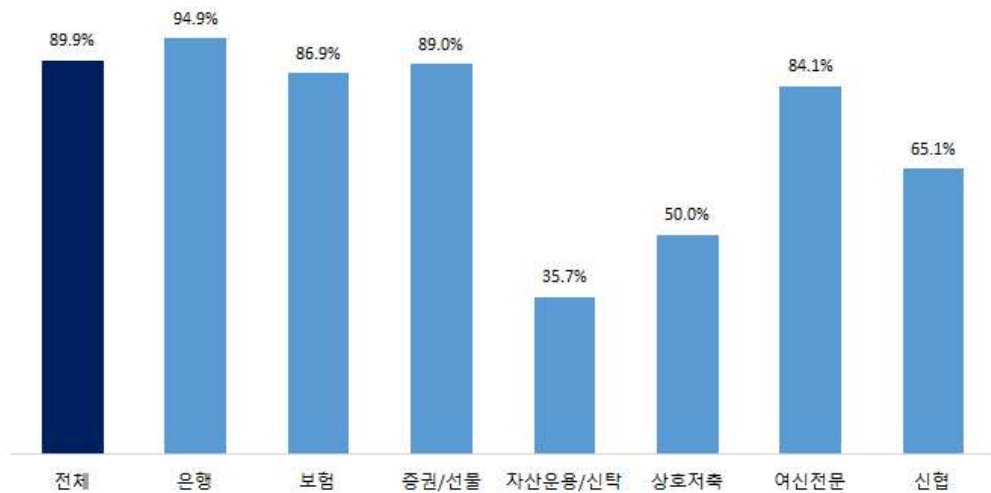
(1) 성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 금융회사의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89.9%로 높게 나타남.

- 자산운용/신탁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여성비율이 과반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II-28> 시간제일자리 업권별 여성비율



<표 II-56>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남녀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남성	10.1	5.1	13.1	11.0	64.3	50.0	15.9	34.9
여성	89.9	94.9	86.9	89.0	35.7	50.0	84.1	6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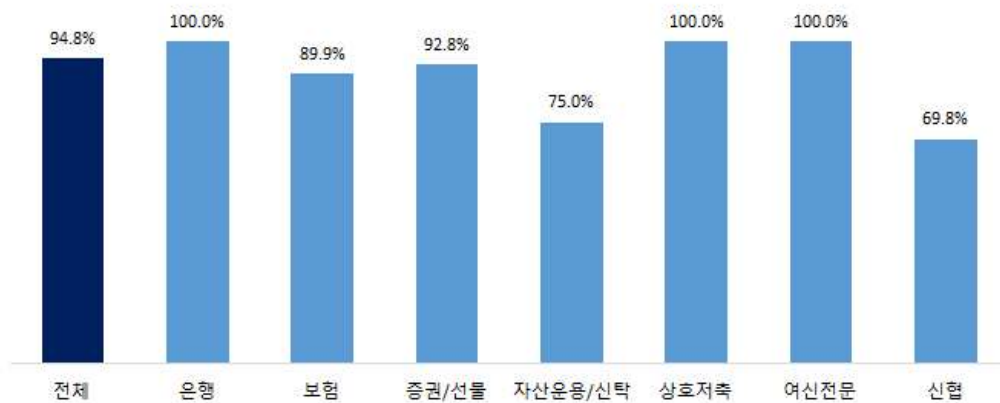
(2) 급여수준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 조사대상 금융회사에서 시간제 근로자 중 연 2,5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9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 상호저축, 여신전문 업권에서는 모든 시간제 근로자가 연 2,5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증권/선물 업권에서는 92.8%, 보험 89.9%, 자산운용/신탁 75.0%, 신탁 69.8%가 2,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II-29> 시간제일자리 업권별 급여 연 2,500만원 미만 비중



<표 II-57>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급여수준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1,000만원 미만	17.4	32.2	0.7	9.1	25.0	-	25.6	9.3
1,000~2,500만원 미만	77.4	67.8	89.2	83.7	50.0	100.0	74.4	60.5
2,500~5,000만원 미만	5.2	-	10.1	7.2	25.0	-	-	30.2
5,000~7,500만원 미만	-	-	-	-	-	-	-	-
7,500만원 ~ 1억 미만	-	-	-	-	-	-	-	-
1억 이상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성별 형태

□ 시간제 근로자중 연 2,5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남성 직원은 71.3%, 여성 직원은 97.5%인 것으로 조사됨.

<표 II-58>

시간제 일자리 성별 급여수준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1,000만원 미만	29.1	16.1
1,000~2,500만원 미만	42.2	81.4
2,500~5,000만원 미만	28.7	2.5
5,000~7,500만원 미만	-	-
7,500만원 ~1억 미만	-	-
1억 이상	-	-
계	100.0	100.0

(3)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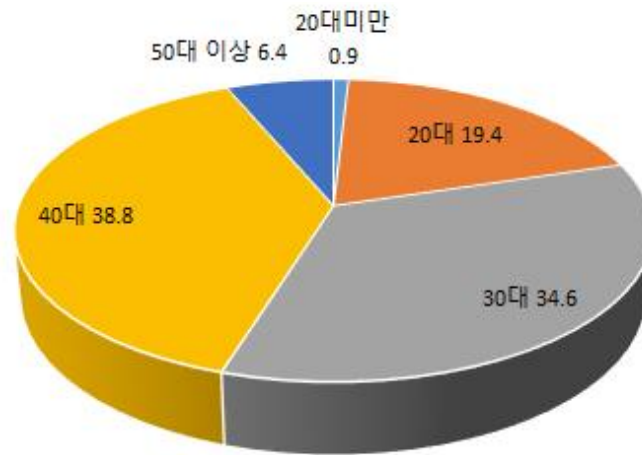
① 업권별 형태

□ 시간제 일자의 인력구조는 40대(38.8%)가 가장 많고, 이어 30대(34.6%), 20대(19.4%), 50대 이상(6.4%), 20대 미만(0.9%)의 순으로 조사됨.

○ 여신전문 업권에서는 모든 시간제 근로자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30> 시간제일자리 전체업권 연령별 비중

(단위 : %)



<표 II-59>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연령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20대 미만	0.9	1.0	1.0	-	-	-	-	4.9
20대	19.4	15.8	14.4	26.8	75.0	50.0	100.0	9.8
30대	34.6	37.9	35.9	29.5	-	-	-	29.3
40대	38.8	45.2	41.0	23.6	25.0	-	-	36.6
50대 이상	6.4	0.1	7.7	20.1	-	50.0	-	1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성별 형태

□ 남성 시간제 근로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57.2%로 과반을 차지하며, 그 뒤로 50대 이상(25.8%), 30대(8.7%), 40대(7.7%), 20대 미만(0.6%)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연령대는 40대가 42.3%로 가장 많고, 30대 37.5%, 20대 15.1%, 50대 이상 4.1%, 20대 미만 0.9%인 것으로 조사됨.

<표 II-60>

시간제 일자리 성별 연령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20대 미만	0.6	0.9
20대	57.2	15.1
30대	8.7	37.5
40대	7.7	42.3
50대 이상	25.8	4.1
계	100.0	100.0

(4) 근무기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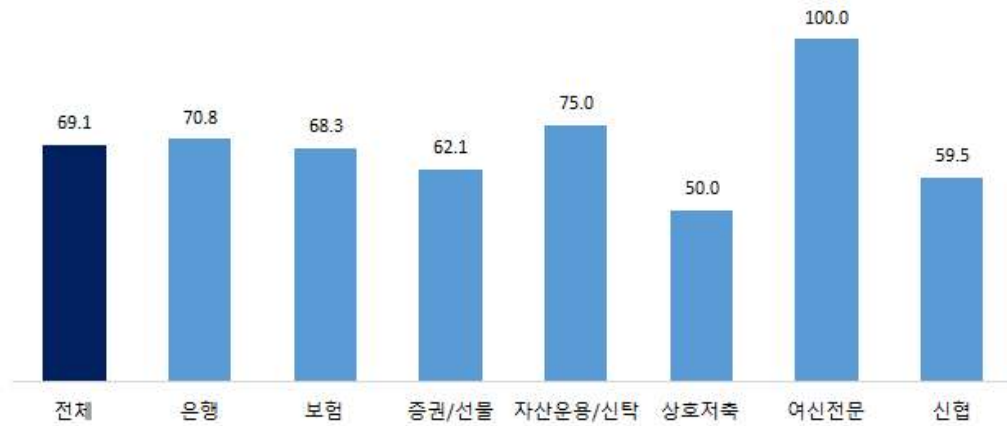
① 업권별 형태

- ☐ 7개 업권 전체의 시간제 근로자 중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전체의 69.1%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여신전문의 경우 6개월 미만 근무한 시간제근로자가 100.0%인 것으로 나타남.
- ☐ 업권 전체적으로 24개월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1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신탁의 경우 60개월 이상 근무자가 33.3%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31> 시간제일자리 업권별 12개월 미만 근무자 비중

(단위 : %)



<표 II-61>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6개월 미만	47.5	49.4	45.2	40.3	75.0	50.0	100.0	26.2
7~12개월 미만	21.6	21.4	23.2	21.7	-	-	-	33.3
13~24개월 미만	20.8	14.6	30.5	26.5	25.0	-	-	4.8
24~60개월 미만	8.1	14.5	1.2	4.3	-	-	-	2.4
60개월 이상	2.0	0.1	-	7.1	-	-	-	3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성별 형태

- ☐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 중인 남성인력과 여성인력 모두 12개월 미만의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남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2개월 미만 근로자가 전체의 82.6%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 67.9%로 조사됨.

<표 II-62> 시간제 일자리 성별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6개월 미만	70.3	45.5
7~12개월 미만	12.3	22.4
13~24개월 미만	5.6	22.2
24~60개월 미만	5.8	8.3
60개월 이상	6.1	1.6
계	100.0	100.0

(5) 학력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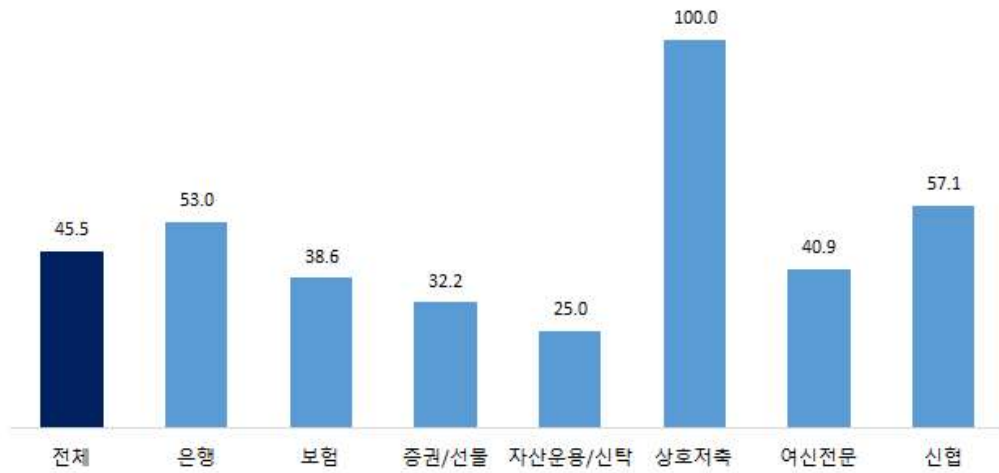
① 업권별 형태

- ☐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45.5%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대졸(30.5%), 전문대졸(22.7%), 대학원졸(1.3%) 순으로 많음.
- 다만, 자산운용/신탁과 증권/선물 업권의 경우 고졸자보다 대졸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II-32>

시간제일자리 업권별 고졸자 비중

(단위 : %)



<표 II-63>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학력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고졸	45.5	53.0	38.6	32.2	25.0	100.0	40.9	57.1
전문대졸	22.7	18.1	27.9	24.2	-	-	34.1	26.2
대졸이상	31.8	28.9	33.6	43.6	75.0	-	25.0	16.7
대졸	30.5	28.5	31.2	41.6	75.0	-	25.0	14.3
대학원졸	1.3	0.4	2.3	2.0	-	-	-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성별 형태

□ 남성 시간제 근로자의 고졸 비율은 57.4%이며, 여성의 경우 고졸 비율이 44.1%로 조사됨.

○ 많은 수의 시간제 근로자가 고졸인 것을 알 수 있음.

<표 II-64>

시간제 일자리 성별 학력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고졸	57.4	44.1
전문대졸	4.3	24.8
대졸	37.2	29.8
대학원졸	1.2	1.3
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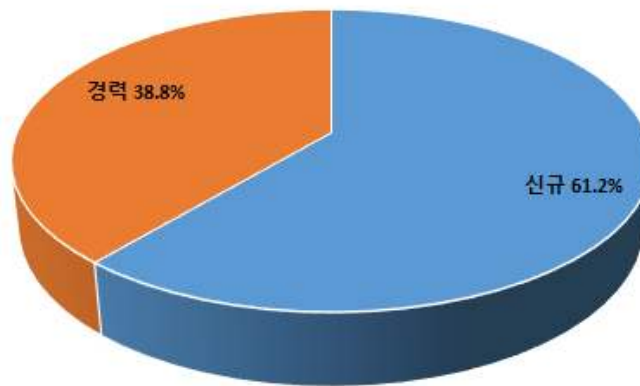
바. 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

□ 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은 전수화된 결과임.

(1) 신규채용 현황

□ '14.9월~'15.8월 말 입직자 수는 신규 14,095명, 경력 8,952명으로 총 23,047명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II-33> '14.9월~'15.8월 말 신규 및 경력 채용 현황



<표 II-65>

채용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신규	14,095	3,881	4,204	1,285	339	1,334	2,327	725
경력	8,952	380	2,397	2,375	1,008	1,346	1,312	134
계	23,047	4,261	6,601	3,660	1,347	2,680	3,639	859

□ 고용형태별 신규채용 현황

- 입직자 수를 살펴보면, 신규직은 정규직으로 38.7%, 경력직은 정규직으로 46.0%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됨.

<표 II-66>

고용형태별 채용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정규직	41.5	38.7	46.0
비정규직	58.5	61.3	54.0
계	100.0	100.0	100.0

□ 성별 신규채용 인력 현황

- 신규직의 경우 여성인력이 65.3%의 높은 비중으로 채용되었으며, 경력직의 경우 남성인력이 65.2%를 차지함.

<표 II-67>

성별 채용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남성	46.6	34.7	65.2
여성	53.4	65.3	34.8
계	100.0	100.0	100.0

□ 업권별 신규채용 현황

- 금융회사 전체적으로 신규채용이 61.2%, 경력직 채용이 38.8% 이루어짐.
- 신규직 채용비율은 은행이 91.1%로 가장 높았으며, 경력직 채용비율은 자산운용/신탁이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68>

업권별 채용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신규	61.2	91.1	63.7	35.1	25.2	49.8	63.9	84.4
경력	38.8	8.9	36.3	64.9	74.8	50.2	36.1	1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급여수준별 신규채용 현황

- 신규직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90.5%에 달하고, 경력직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49.0%인 것으로 조사됨.

<표 II-69>

급여수준별 채용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2,500만원 미만	34.8	43.7	21.8
2,500~5,000만원 미만	39.7	46.9	29.2
5,000~7,500만원 미만	15.9	7.4	28.3
7,500만원~1억 미만	5.4	1.2	11.6
1억~1.5억 미만	2.6	0.4	5.8
1.5억 이상	1.6	0.5	3.2
계	100.0	100.0	100.0

□ 연령별 신규채용 현황

- 신규직 채용자 중 30대 미만인 인력은 67.0%이며, 경력직의 경우 30대 이상이 8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70>

연령별 채용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20대 미만	4.4	7.0	0.6
20대	42.8	60.0	17.8
30대	31.3	20.1	47.5
40대	15.6	10.2	23.5
50대 이상	5.9	2.7	10.6
계	100.0	100.0	100.0

☐ 근무 기간별 신규채용 현황

- 신규직과 경력직 모두 근무기간 5년 미만인 인력이 채용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71>

근무기간별 채용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5년 미만	99.2	99.9	98.2
5~10년 미만	0.2	0.1	0.4
10년 이상	0.6	-	1.4
10~15년 미만	0.1	-	0.1
15~20년 미만	0.1	-	0.2
20년 이상	0.5	-	1.1
계	100.0	100.0	100.0

☐ 학력별 신규채용 현황

- 신규직과 경력직 모두 대졸자 비중이 각각 49.2%, 60.9%로 높게 나타남.

<표 II-72>

학력별 채용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고졸	25.5	31.7	16.1
전문대졸	13.9	16.8	9.5
대졸	53.9	49.2	60.9
대학원졸	6.8	2.3	13.5
계	100.0	100.0	100.0

□ 전공(대졸)별 신규채용 현황

- 신규직과 경력직 모두 경영/경제 전공자 비율이 각각 38.3%, 45.2%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문/사회 전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II-73>

전공별 채용현황(대졸자 대상)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경영/경제	41.4	38.3	45.2
법률	5.5	5.4	5.8
인문/사회	14.9	14.5	15.2
컴퓨터/통신	6.0	5.8	6.2
공학	7.8	7.3	8.3
자연	5.8	5.8	5.9
기타	18.7	23.0	13.4
계	100.0	100.0	100.0

(2) 이·퇴직 현황

① 업권별 이·퇴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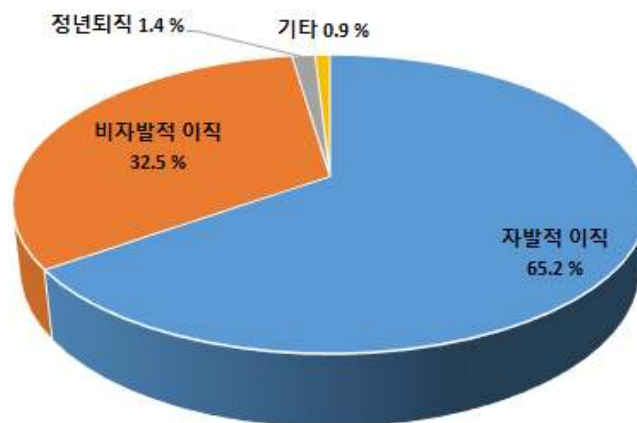
□ 금융회사 이·퇴직 현황 설문에 응답한 회사들의 '14.9월~'15.8월 말 기간의 총 이·퇴직자 수는 23,536명인 것으로 조사됨.

○ 해당기간의 전체 이·퇴직자 중 자발적 이직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순임.

○ 업권별로는 보험, 은행에서 해당기간 동안 이·퇴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 나타난 이·퇴직 현황은 통계적인 기법에 의해 전수화된 추정치로 실제 이·퇴직자 수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음.

<그림 II-34> '14.9월~'15.8월말 이·퇴직자 현황



□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상호저축(89.0%), 자산운용/신탁(84.9%)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보험(45.7%)과 여신전문(44.6%)이, 정년퇴직자 비율은 신탁(4.6%)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II-74>

업권별 이·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15,341 (65.2)	3,692 (73.6)	4,426 (53.1)	2,647 (72.3)	845 (84.9)	1,484 (89.0)	1,689 (54.3)	559 (74.7)
비자발적 이직	7,650 (32.5)	1,129 (22.5)	3,814 (45.7)	942 (25.7)	120 (12.1)	165 (9.9)	1,385 (44.6)	95 (12.7)
정년퇴직	333 (1.4)	138 (2.7)	87 (1.0)	53 (1.5)	6 (0.6)	13 (0.8)	1 (-)	35 (4.6)
기타	212 (0.9)	58 (1.2)	14 (0.2)	17 (0.5)	24 (2.4)	6 (0.4)	33 (1.1)	59 (7.9)
계	23,536 (100.0)	5,017 (100.0)	8,341 (100.0)	3,660 (100.0)	995 (100.0)	1,667 (100.0)	3,108 (100.0)	748 (100.0)

② 업권별 남성 이·퇴직 현황

□ 남성 이·퇴직자는 총 11,994명으로 전체 인원 중 51.0%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 중 67.7%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28.9%), 정년퇴직(2.2%) 순으로 조사됨.

<표 II-75>

업권별 남성 이·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8,121 (67.7)	2,406 (83.6)	1,781 (48.0)	1,755 (69.7)	666 (88.5)	690 (86.1)	612 (60.0)	212 (68.2)
비자발적 이직	3,463 (28.9)	335 (11.6)	1,841 (49.6)	699 (27.8)	61 (8.1)	96 (11.9)	381 (37.3)	50 (16.1)
정년퇴직	260 (2.2)	93 (3.2)	77 (2.1)	50 (2.0)	6 (0.8)	12 (1.5)	1 (0.1)	20 (6.6)
기타	150 (1.2)	45 (1.6)	12 (0.3)	14 (0.6)	19 (2.6)	4 (0.5)	26 (2.6)	29 (9.2)
계	11,994 (100.0)	2,879 (100.0)	3,710 (100.0)	2,519 (100.0)	753 (100.0)	801 (100.0)	1,020 (100.0)	311 (100.0)

③ 업권별 여성 이·퇴직 현황

□ 해당기간의 여성 이·퇴직자는 총 11,542명으로 전체 인원 중 49.0%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남성인력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이직(62.6%), 비자발적 이직(36.3%), 정년퇴직(0.6%) 순임.

○ 다만, 여성 정년퇴직자는 73명으로 남성 정년퇴직자 260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76>

업권별 여성 이·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7,220	1,286	2,645	893	178	794	1,077	346
	(62.6)	(60.1)	(57.1)	(78.3)	(73.6)	(91.7)	(51.6)	(79.4)
비자발적 이직	4,187	794	1,973	242	59	69	1,004	45
	(36.3)	(37.1)	(42.6)	(21.2)	(24.5)	(8.0)	(48.1)	(10.3)
정년퇴직	73	45	10	3	0	1	0	14
	(0.6)	(2.1)	(0.2)	(0.3)	(-)	(0.1)	(-)	(3.3)
기타	62	13	2	3	4	2	7	31
	(0.5)	(0.6)	(0.1)	(0.3)	(1.8)	(0.2)	(0.3)	(7.0)
계	11,542	2,138	4,631	1,141	242	866	2,088	4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 현황

□ 정규직 이·퇴직자는 전체 인원 중 59.1%를 차지.

○ 정규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의 7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업권별로는 상호저축(92.8%), 은행(92.0%), 자산운용/신탁(91.1%)의 자발적 이직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남.

<표 II-77>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자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자발적 이직	73.0	92.0	50.4	88.5	91.1	92.8	76.8	74.8
비자발적 이직	23.4	1.9	47.9	8.7	6.3	5.5	19.2	12.6
정년퇴직	2.4	4.5	1.4	2.2	0.2	1.2	1.3	5.4
기타	1.2	1.6	0.3	0.6	2.4	0.5	2.7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 현황

□ 비정규직 이·퇴직자는 전체인원 중 40.9%를 차지

○ 비정규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의 4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규직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23.4%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 특히 은행(64.9%), 여신전문(55.7%)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발적 이직 비율이 높은 업권은 상호저축(85.6%)으로 조사됨.

<표 II-78>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자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52.7	34.8	58.9	54.1	59.0	85.6	43.8	75.6
비자발적 이직	46.6	64.9	41.0	44.8	35.8	13.8	55.7	13.4
정년퇴직	0.2	0.1	0.1	0.7	2.2	0.3	-	0.8
기타	0.4	0.2	-	0.3	3.0	0.2	0.5	1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⑥ 급여수준별 이·퇴직 현황

- 모든 급여구간에서 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5,000~7,500만원 미만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7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79> 급여수준별 이·퇴직자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2,500만원 미만	2,500~5,000만원 미만	5,000~7,500만원 미만	7,500만원~1억원 미만	1억~1.5억 미만	1.5억 이상
자발적 이직	63.2	61.3	61.7	71.0	60.0	62.7	61.6
비자발적 이직	34.6	37.9	36.6	25.7	35.7	35.5	34.3
정년퇴직	1.4	0.2	0.9	2.5	3.4	1.2	1.9
기타	0.8	0.7	0.8	0.7	1.0	0.6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⑦ 연령별 이·퇴직 현황

- ☐ 모든 연령대에서 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과반인 것으로 조사됨.
-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30대가 67.6%로 가장 높고,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40대가 47.1%로 높게 나타남.
 - 정년퇴직자는 50대 이상이 정년퇴직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80>

연령별 이·퇴직자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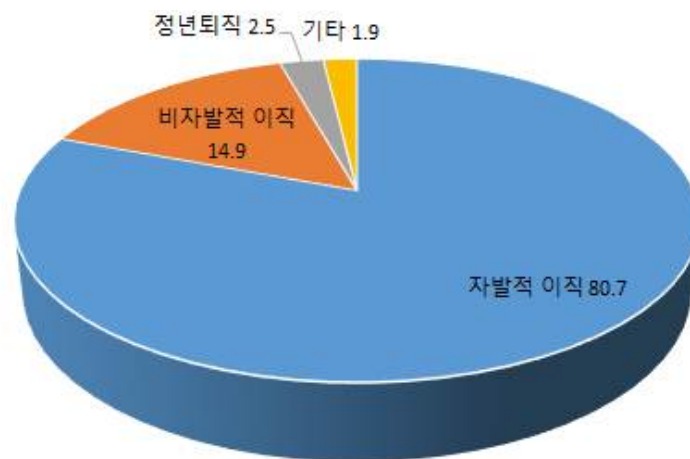
구분	전체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자발적 이직	62.4	63.8	63.2	67.6	51.7	64.0
비자발적 이직	35.5	36.2	36.3	31.5	47.1	28.6
정년퇴직	1.2	-	0.1	0.04	-	6.5
기타	0.8	-	0.4	0.8	1.2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이·퇴직 전망

① 업권별 이·퇴직 전망

- 금융회사 이·퇴직 현황 설문에 응답한 회사들의 '15.9월~'16.8월 말 기간의 총 이·퇴직자 전망은 3,530명인 것으로 조사됨.
- 금융회사 이·퇴직 전망에 응답하지 않은 회사들이 많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해당기간의 전체 이·퇴직자 중 자발적 이직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순으로 많을 것이라 예상됨.
- 업권별로는 보험업권에서 해당기간 동안 이·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35> '15.9월~ '16.8월 말 이·퇴직자 전망



-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상호저축(92.1%), 보험(84.9%)이 높고,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자산운용/신탁(32.0%), 여신전문(31.6%)이, 정년퇴직자 비율은 신협(32.9%)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됨.

<표 II-81>

업권별 이·퇴직자 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2,850 (80.7)	60 (48.2)	1,691 (84.9)	360 (77.9)	48 (64.0)	440 (92.1)	207 (64.3)	44 (56.6)
비자발적 이직	527 (14.9)	12 (9.4)	251 (12.6)	99 (21.5)	24 (32.0)	36 (7.4)	102 (31.6)	4 (5.3)
정년퇴직	87 (2.5)	4 (3.5)	51 (2.5)	3 (0.6)	1 (2.0)	2 (0.4)	0 (-)	26 (32.9)
기타	67 (1.9)	48 (38.8)	0 (-)	0 (-)	1 (2.0)	0 (-)	13 (4.1)	4 (5.3)
계	3,530 (100.0)	123 (100.0)	1,992 (100.0)	463 (100.0)	74 (100.0)	478 (100.0)	322 (100.0)	78 (100.0)

② 업권별 남성 이·퇴직 전망

□ 해당기간의 남성 이·퇴직자 규모는 총 1,573명으로 전체인원의 44.6%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

○ 자발적 이직은 전체 이·퇴직자 중 81.9%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11.7%), 정년퇴직(4.2%) 순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업권별로는 상호저축과 보험업권의 남성 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각각 89.5%, 86.9%로 높게 나타남.

<표 II-82>

업권별 남성 이·퇴직자 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1,288	36	657	244	37	168	133	12
	(81.9)	(51.0)	(86.9)	(79.7)	(69.4)	(89.5)	(78.3)	(42.9)
비자발적 이직	184	6	55	59	13	19	30	1
	(11.7)	(8.2)	(7.3)	(19.3)	(25.0)	(10.0)	(17.8)	(3.6)
정년퇴직	65	1	43	3	1	1	0	15
	(4.2)	(2.0)	(5.7)	(0.9)	(2.8)	(0.5)	(-)	(53.6)
기타	36	28	0	0	1	0	7	0
	(2.3)	(38.8)	(-)	(-)	(2.8)	(-)	(3.9)	(-)
계	1,573	71	756	306	54	187	170	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업권별 여성 이·퇴직 전망

□ 해당기간의 여성 이·퇴직자는 총 1,957명으로 전체 인원 중 55.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적으로 남성인력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이직(79.8%), 비자발적 이직(17.5%), 정년퇴직(1.1%) 순일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여성의 예상 정년퇴직자 비율은 1.1%로 남성의 예상 정년퇴직자 비율이 4.2%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업권별로는 상호저축의 자발적 이직 비율이 93.9%로 높게 전망되었고 자산운용/신탁의 비자발적 이직 비율(50.0%)이 높을 것으로 조사됨.

<표 II-83>

업권별 여성 이·퇴직자 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1,562 (79.8)	23 (44.4)	1,034 (83.6)	117 (74.3)	10 (50.0)	272 (93.9)	74 (48.7)	32 (64.6)
비자발적 이직	343 (17.5)	6 (11.1)	195 (15.8)	40 (25.7)	10 (50.0)	17 (5.8)	71 (47.0)	3 (6.3)
정년퇴직	21 (1.1)	3 (5.6)	7 (0.6)	0 (-)	0 (-)	1 (0.3)	0 (-)	10 (20.8)
기타	31 (1.6)	20 (38.9)	0 (-)	0 (-)	0 (-)	0 (-)	7 (4.3)	4 (8.3)
계	1,957 (100.0)	52 (100.0)	1,236 (100.0)	157 (100.0)	21 (100.0)	290 (100.0)	152 (100.0)	49 (100.0)

④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 전망

- 해당기간의 정규직 이·퇴직자 전망은 총 1,467명인 것으로 조사됨.
- 정규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의 84.1%에 달하고, 정년퇴직이 6.5%, 비자발적 이직이 5.6%일 것으로 예상됨.
 -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자 전망을 살펴보면, 상호저축 업권의 자발적 이직 비율이 97.9%로 가장 높고, 비자발적 이직 비율의 경우 자산운용/신탁(28.0%)이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을 것으로 조사됨.

<표 II-84>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자 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1,234 (84.1)	46 (37.2)	626 (91.2)	275 (87.6)	25 (68.0)	136 (97.9)	85 (86.5)	40 (59.1)
비자발적 이직	82 (5.6)	1 (1.2)	24 (3.5)	36 (11.5)	10 (28.0)	1 (0.7)	7 (6.8)	2 (3.0)
정년퇴직	95 (6.5)	29 (23.3)	36 (5.3)	3 (0.9)	1 (4.0)	2 (1.4)	0 (-)	23 (34.8)
기타	57 (3.9)	48 (38.4)	0 (-)	0 (-)	0 (-)	0 (-)	7 (6.8)	2 (3.0)
계	1,468 (100.0)	125 (100.0)	686 (100.0)	314 (100.0)	37 (100.0)	139 (100.0)	98 (100.0)	67 (100.0)

주: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자 전망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규모와 차이가 있음.

⑤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 전망

□ 해당기간의 비정규직 이·퇴직자는 총 1,032명으로 전망됨.

○ 비정규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의 4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규직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특히 보험(71.1%), 자산운용/신탁(52.6%)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자발적 이직 비율이 높은 업권은 상호저축(89.8%)일 것으로 나타남.

<표 II-85>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자 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588	9	91	82	12	304	87	3
	(57.0)	(50.0)	(28.9)	(56.4)	(42.1)	(89.8)	(48.9)	(33.3)
비자발적 이직	432	9	224	63	15	35	85	2
	(41.9)	(50.0)	(71.1)	(43.6)	(52.6)	(10.2)	(47.4)	(22.2)
정년퇴직	2	0	0	0	0	0	0	2
	(0.2)	(-)	(-)	(-)	(-)	(-)	(-)	(22.2)
기타	10	0	0	0	1	0	7	2
	(1.0)	(-)	(-)	(-)	(5.3)	(-)	(3.7)	(22.2)
계	1,032	17	315	146	28	338	178	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자 전망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규모와 차이가 있음.

⑥ 급여수준별 이·퇴직 전망

- ☐ 급여수준별로 살펴보면, 해당기간에 5,000만원 미만 급여 구간의 이·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 ☐ 자발적 이직자와 비자발적 이직자 모두 2,500~5,000만원 미만 급여 구간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고, 정년퇴직의 경우 5,000~7,5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 모든 급여 구간에서 자발적 이직 비율이 높을 것으로 나타남.

<표 II-86>

급여수준별 이·퇴직자 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체	2500 미만	2500~ 5000만 원 미만	5000~ 7500만 원 미만	7500만 원~1억 미만	1억~1.5 억 미만	1.5억 이상
자발적 이직	1,301	316	497	269	134	57	29
	(69.8)	(81.9)	(59.7)	(77.0)	(76.1)	(69.7)	(72.6)
비자발적 이직	481	63	317	44	31	17	9
	(25.8)	(16.4)	(38.0)	(12.6)	(17.4)	(20.6)	(23.8)
정년퇴직	64	2	11	32	10	8	1
	(3.4)	(0.5)	(1.3)	(9.2)	(5.7)	(9.8)	(3.6)
기타	19	5	9	4	1	0	0
	(1.0)	(1.2)	(1.0)	(1.1)	(0.8)	(-)	(-)
계	1,865	385	833	350	176	81	4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급여수준별 이·퇴직자 전망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규모와 차이가 있음.

⑦ 연령별 이·퇴직 전망

□ 연령별 이·퇴직자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모든 연령층에서 자발적 이직자 예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50대 이상의 경우 정년퇴직자 비율 또한 높을 것으로 보임.

<표 II-87>

연령별 이·퇴직자 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체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자발적 이직	1,287	1	618	406	209	53
	(69.3)	(53.2)	(79.0)	(68.1)	(66.2)	(33.3)
비자발적 이직	488	0	159	179	107	43
	(26.3)	(-)	(20.3)	(30.0)	(33.8)	(26.9)
정년퇴직	63	0	0	0	0	63
	(3.4)	(-)	(-)	(-)	(-)	(39.2)
기타	19	1	5	11	0	1
	(1.0)	(46.8)	(0.7)	(1.9)	(-)	(0.6)
계	1,857	2	783	596	315	1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연령별 이·퇴직자 전망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규모와 차이가 있음.

3.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

가. 조사방법

- ☐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 1,339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향후 1년 이내(2015년 9월 기준) 추가채용 예상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금융회사 중 324개의 회사에서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88>

추가채용 규모 조사대상현황

(단위: 개, %)

구분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용 / 신탁	저축 은행	여신 전문	신탁	전체
조사회사	57	57	63	98	79	72	913	1,339
응답회사	11	15	14	43	43	29	169	324
응답률(%)	19.3	26.3	22.2	43.9	54.4	40.3	18.5	24.2

주: 응답회사의 수는 향후 1년 이내 채용계획이 있는 회사만을 표시한 것으로, 무응답 회사와 1년 이내 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회사는 모두 무응답으로 처리함. 따라서 응답회사는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회사에 가까움.

- ☐ 「향후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는 전수조사라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률이 저조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응답률에 따라 통계의 정확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나. 조사결과2)

□ 응답 금융회사들의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는 총 4,264 명으로 조사됨.

○ 상호저축과 증권/선물 업권에서 많은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사됨.

○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는 전수화되지 않은 결과임.

<표 II-89> 업권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예정인원	4,264	615	545	876	190	1,137	533	368
비중	(100.0)	(14.4)	(12.8)	(20.5)	(4.5)	(26.7)	(12.5)	(8.6)

□ 가장 많은 채용이 계획된 직무는 영업·마케팅으로 전체의 69.3%에 달하는 인원을 채용될 예정이며, 경영관리가 11.9%로 뒤를 이름.

<표 II-90> 직무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경영 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 지원	자산 운용	자산 관리	보험	투자 은행	기타
예정인원	4,264	506	2,953	191	214	53	104	174	69
비중	(100.0)	(11.9)	(69.3)	(4.5)	(5.0)	(1.2)	(2.4)	(4.1)	(1.6)

주: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2) 전수화하지 않은 통계임.

다. 2015년 채용 계획 및 실적간의 차이 분석

- 2015년 실제 채용규모가 채용 계획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23.1%의 인원을 계획보다 많이 채용한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채용계획과 실제 채용규모 항목에 모두 응답한 회사만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음. (은행 9개사, 보험 13개사, 증권/선물 12개사, 자산운용/신탁 35개사, 상호저축 32개사, 여신전문 19개사, 신탁 119개사 등 총 239개사)
 - 2015년 중에는 계획했던 채용인원보다 실제 채용인원이 853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증가율로는 23.1%를 기록함.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에서 채용 계획대비 가장 많은 증가율(55.8%)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증권/선물, 은행 업권의 증가율이 높았음.
 - 직무별로는 자산관리(81.4%), 영업지원(57.3%) 직무에서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실제 채용 규모와 채용 계획과의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음.
 - 예를 들면 경제상황이 연초에 비해 호전되면서 노동수요가 늘어나 채용인원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퇴직을 하면서 신규채용을 늘렸을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2015년에 실제 채용규모가 채용 계획규모보다 많았다고 해서 2016년에도 실제 채용규모가 채용 계획규모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보다는 2016년 중 경제상황, 금융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II-91>

2015년 실제 채용 규모와 채용 계획과의 차이¹⁾

(단위 : 명)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전 문	신탁
경영 관리	240 (56.7)	68 (234.5)	51 (30.0)	70 (116.7)	8 (20.0)	29 (111.5)	14 (17.3)	0 (0.0)
영업· 마케팅	202 (8.1)	-55 (△7.8)	25 (3.4)	45 (34.4)	13 (50.0)	86 (23.0)	77 (22.6)	11 (6.3)
영업 지원	75 (57.3)	48 (369.2)	1 (11.1)	7 (46.7)	-3 (△30.0)	3 (11.5)	19 (33.3)	0 (0.0)
자산 운용	70 (34.0)	3 (60.0)	4 (36.4)	4 (6.6)	57 (47.5)	0 (-)	2 (28.6)	0 (0.0)
자산 관리	35 (81.4)	6 (300.0)	3 (100.0)	-12 (△75.0)	38 (200.0)	0 (-)	0 (0.0)	0 (0.0)
보험	0 (0.0)	0 (-)	0 (0.0)	0 (-)	0 (-)	0 (-)	0 (-)	0 (-)
투자 은행	30 (29.4)	3 (4.2)	-2 (△100.0)	17 (63.0)	5 (-)	2 (200.0)	5 (500.0)	0 (-)
기타	201 (132.2)	189 (-)	0 (0.0)	11 (1100.0)	2 (-)	0 (0.0)	0 (-)	-1 (△20.0)
계	853 (23.1)	262 (31.8)	82 (6.7)	142 (45.7)	120 (55.8)	120 (28.0)	117 (24.0)	10 (4.9)

주 : 1) 차이 = '실제 채용 규모' - '채용 계획 규모'

2) () 는 채용계획 대비 실제채용규모 증감률(%)임.

3) - 는 2015년 채용 계획이 0이어서 채용계획 대비 실제채용규모의 증감률 구할 수 없는 경우임.

Ⅲ.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전망

1. 금융기관 서베이를 통한 수요전망

가. 서베이 개요

- ☐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 1,339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향후 1년 이내(2015년 9월 기준) 추가채용 예상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금융회사 중 324개의 회사에서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Ⅲ-1> 업권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예정인원	4,264	615	545	876	190	1,137	533	368
비중	(100.0)	(14.4)	(12.8)	(20.5)	(4.5)	(26.7)	(12.5)	(8.6)

나. 세부항목별 수요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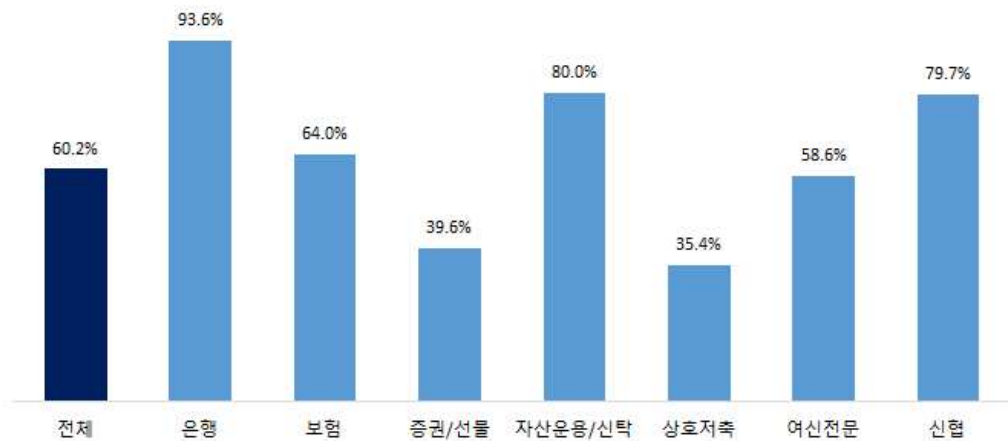
(1) 고용형태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 ☐ 고용형태별 예상채용 인력을 보면, 증권/선물, 상호저축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과반수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으로 보임.

- 업권별 정규직 예상채용 비율은 은행(93.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산운용/신탁(80.0%), 신탁(79.7%), 보험(64.0%), 여신평문(58.6%), 증권/선물(39.6%), 상호저축(35.4%)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1> 업권별 정규직 채용 예상 비율



<표 Ⅲ-2> 고용형태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평 전문	신탁
정규직	2,096	570	341	67	124	397	311	286
	(60.2)	(93.6)	(64.0)	(39.6)	(80.0)	(35.4)	(58.6)	(79.7)
비정규직	1,383	39	192	102	31	726	220	73
	(39.8)	(6.4)	(36.0)	(60.4)	(20.0)	(64.6)	(41.4)	(20.3)
계	3,479	609	533	169	155	1,123	531	3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고용형태에 따른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② 성별 형태

- ☐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정규직으로 남성인력의 72.2%, 여성인력의 47.4%를 채용 예정인 것으로 조사됨.

<표 Ⅲ-3>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정규직	1,300	796
	(72.2)	(47.4)
비정규직	501	882
	(27.8)	(52.6)
계	1,801	1,678
	(100.0)	(100.0)

주: 고용형태별,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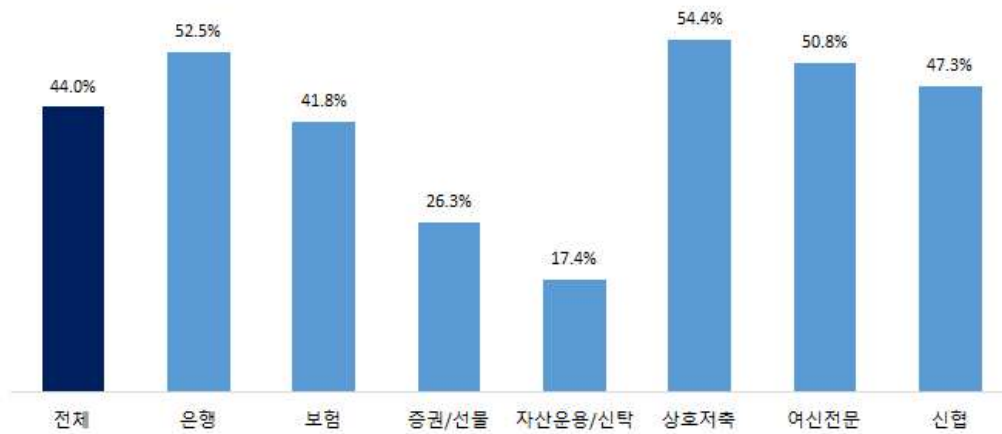
(2) 성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 ☐ 조사대상 금융업권 전체적으로 여성의 채용 예상 비율은 44.0%로 나타남.
- ☐ 업권별 여성의 채용 예상 비율은 상호저축(54.4%), 은행(52.5%), 여신전문(50.8%)이 과반수이고, 이어 신탁(47.3%), 보험(41.8%), 증권/선물(26.3%), 자산운용/신탁(17.4%) 순으로 조사됨.

<그림 Ⅲ-2>

업권별 여성 채용 예상 비율



<표 Ⅲ-4>

업권별 남녀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남성	2,386	292	317	646	157	518	262	194
	(56.0)	(47.5)	(58.2)	(73.7)	(82.6)	(45.6)	(49.2)	(52.7)
여성	1,878	323	228	230	33	619	271	174
	(44.0)	(52.5)	(41.8)	(26.3)	(17.4)	(54.4)	(50.8)	(47.3)
계	4,264	615	545	876	190	1,137	533	36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3) 직무별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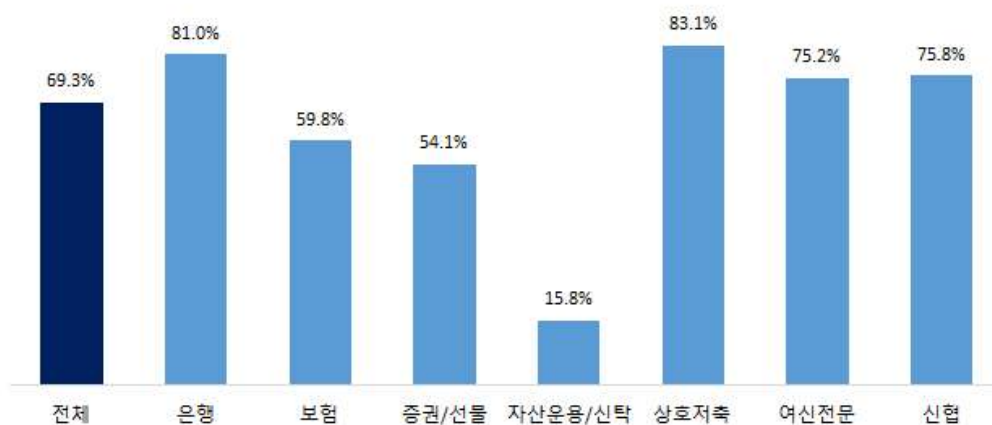
① 업권별 형태

□ 직무분류에 따른 업권별 예상채용 인력을 보면, 자산운용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영업·마케팅 직무로 과반수의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

○ 업권별 영업·마케팅 직무의 예상채용 비율을 보면 상호저축 83.1%, 은행 81.0%, 신협 75.8%, 여신전문 75.2%, 보험 59.8%, 증권/선물 5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운용/신탁 업권은 15.8%로 조사됨.

○ 자산운용/신탁은 자산운용 직무를 가장 많이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3> 업권별 영업·마케팅 직무 채용 예상 비율



<표 Ⅲ-5>

직무 분류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경영관리	506	15	81	185	31	59	65	70
	(11.87)	(2.44)	(14.86)	(21.12)	(16.32)	(5.19)	(12.20)	(19.02)
영업· 마케팅	2,953	498	326	474	30	945	401	279
	(69.25)	(80.98)	(59.82)	(54.11)	(15.79)	(83.11)	(75.23)	(75.82)
영업지원	191	15	3	29	9	90	37	8
	(4.48)	(2.44)	(0.55)	(3.31)	(4.74)	(7.92)	(6.94)	(2.17)
자산운용	214	6	9	71	112	0	13	3
	(5.02)	(0.98)	(1.65)	(8.11)	(58.95)	(-)	(2.44)	(0.82)
자산관리	53	2	3	42	6	0	0	0
	(1.24)	(0.33)	(0.55)	(4.79)	(3.16)	(-)	(-)	(-)
보험	104	0	104	0	0	0	0	0
	(2.44)	(-)	(19.08)	(-)	(-)	(-)	(-)	(-)
투자은행	174	70	14	72	0	1	17	0
	(4.08)	(11.38)	(2.57)	(8.22)	(-)	(0.09)	(3.19)	(-)
기타	69	9	5	3	2	42	0	8
	(1.62)	(1.46)	(0.92)	(0.34)	(1.05)	(3.69)	(-)	(2.17)
계	4,264	615	545	876	190	1137	533	36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② 성별 형태

- ☐ 성별 예상채용 규모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인력 모두 영업·마케팅 직무 위주로 채용될 예정임.
- 특히 여성인력의 경우 추가채용 예상 규모 중 영업·마케팅 직무 비중이 80.2%로 높게 조사됨.

<표 Ⅲ-6> 직무 분류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경영관리	384	122
	(16.1)	(6.5)
영업·마케팅	1,448	1,506
	(60.7)	(80.2)
영업지원	121	71
	(5.1)	(3.8)
자산운용	184	30
	(7.7)	(1.6)
자산관리	40	13
	(1.7)	(0.7)
보험	68	36
	(2.8)	(1.9)
투자은행	117	57
	(4.9)	(3.0)
기타	25	44
	(1.0)	(2.3)
계	2,386	1,878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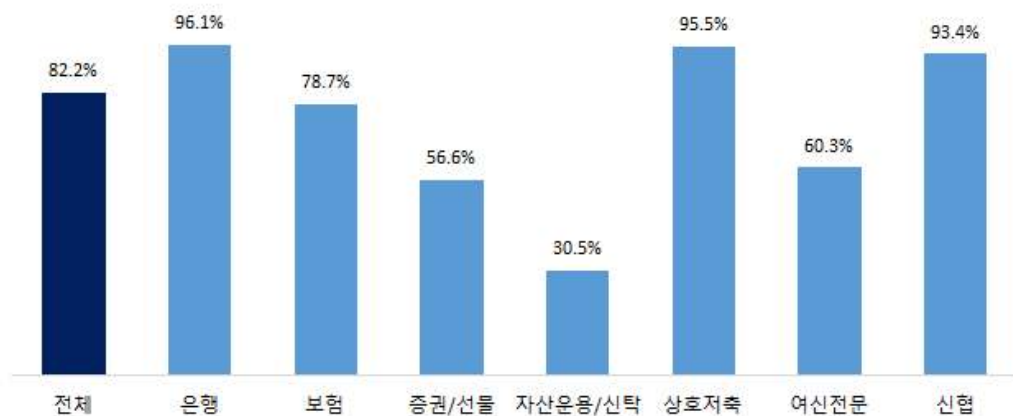
주: 직무별,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4) 급여수준별 인력현황

① 업권별 형태

- 급여수준에 따른 채용예상 인원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상호저축의 업권에서 2,500만원~5,000만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 자산운용/신탁과 여신전문의 경우 5,000~7,500만원 미만의 구간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신탁의 경우 2,500만원 미만 구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Ⅲ-4> 업권별 급여 연 5,000만원 미만 채용 예상 비율



<표 Ⅲ-7>

급여수준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2,500만원 미만	872 (24.7)	75 (12.3)	43 (8.1)	40 (23.1)	0 (-)	384 (33.8)	154 (29.0)	176 (48.8)
2,500 ~5,000만원 미만	2,033 (57.5)	513 (83.8)	377 (70.6)	58 (33.5)	57 (30.5)	701 (61.7)	166 (31.3)	161 (44.6)
5,000 ~7,500만원 미만	465 (13.2)	17 (2.8)	70 (13.1)	49 (28.3)	76 (40.6)	37 (3.3)	194 (36.5)	22 (6.1)
7,500만원 ~1억 미만	134 (3.8)	7 (1.1)	39 (7.3)	22 (12.7)	37 (19.8)	11 (1.0)	16 (3.0)	2 (0.6)
1억 ~1.5억 미만	23 (0.7)	0 (-)	3 (0.6)	4 (2.3)	12 (6.4)	3 (0.3)	1 (0.2)	0 (-)
1.5억 이상	7 (0.2)	0 (-)	2 (0.4)	0 (-)	5 (2.7)	0 (-)	0 (-)	0 (-)
계	3,534 (100.0)	612 (100.0)	534 (100.0)	173 (100.0)	187 (100.0)	1,136 (100.0)	531 (100.0)	361 (100.0)

주: 급여수준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② 성별 형태

□ 급여수준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 인원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2,500만원 ~ 5,000만원 구간의 인력을 많이 채용할 것으로 보임.

○ 남성인력의 경우 2,500~5,000만원 미만 구간에 이어 5,000~7,500만원 미만 구간대의 인력을 많이 채용할 예정이고, 여성인력의 경우 2,500원 미만 구간대의 인력을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8>

급여수준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2,500만원 미만	193	679
	(10.4)	(40.4)
2,500~5,000만원 미만	1,159	874
	(62.5)	(52.1)
5,000~7,500만원 미만	358	107
	(19.3)	(6.4)
7,500만원~1억 미만	118	16
	(6.4)	(1.0)
1억~1.5억 미만	21	2
	(1.1)	(0.1)
1.5억 이상	6	1
	(0.3)	(0.1)
계	1,855	1,679
	(100.0)	(100.0)

주: 급여수준별,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5) 연령별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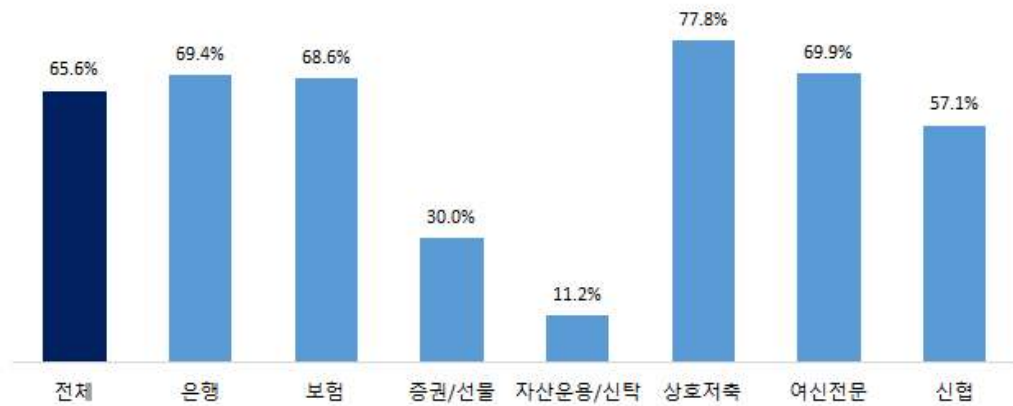
① 업권별 형태

□ 연령대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증권/선물과 자산운용/신탁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20대의 인원을 가장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증권/선물과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30대의 예상 채용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Ⅲ-5>

업권별 20대 채용 예상 비율



<표 Ⅲ-9>

연령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20대 미만	70 (2.1)	29 (4.8)	7 (1.9)	0 (-)	0 (-)	10 (0.9)	6 (1.2)	18 (5.0)
20대	2,168 (65.6)	415 (69.4)	256 (68.6)	54 (30.0)	20 (11.2)	878 (77.8)	341 (69.9)	204 (57.1)
30대	745 (22.6)	73 (12.2)	66 (17.7)	101 (56.1)	120 (67.0)	203 (18.0)	119 (24.4)	63 (17.6)
40대	263 (8.0)	64 (10.7)	37 (9.9)	23 (12.8)	35 (19.6)	32 (2.8)	22 (4.5)	50 (14.0)
50대 이상	57 (1.7)	17 (2.8)	7 (1.9)	2 (1.1)	4 (2.2)	5 (0.4)	0 (-)	22 (6.2)
합계	3,303 (100.0)	598 (100.0)	373 (100.0)	180 (100.0)	179 (100.0)	1,128 (100.0)	488 (100.0)	357 (100.0)

주: 연령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② 성별 형태

□ 연령대별 남녀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 인력을 가장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고, 30대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남성인력의 경우 50대 이상 연령의 채용이 여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인력의 경우 20대 미만의 연령 채용이 남성보다 더 많은 예정임.

<표 Ⅲ-10> 연령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20대 미만	14 (0.8)	56 (3.6)
20대	981 (56.8)	1,187 (75.3)
30대	506 (29.3)	239 (15.2)
40대	184 (10.7)	79 (5.0)
50대 이상	41 (2.4)	16 (1.0)
합계	1,726 (100.0)	1,577 (100.0)

주: 연령별,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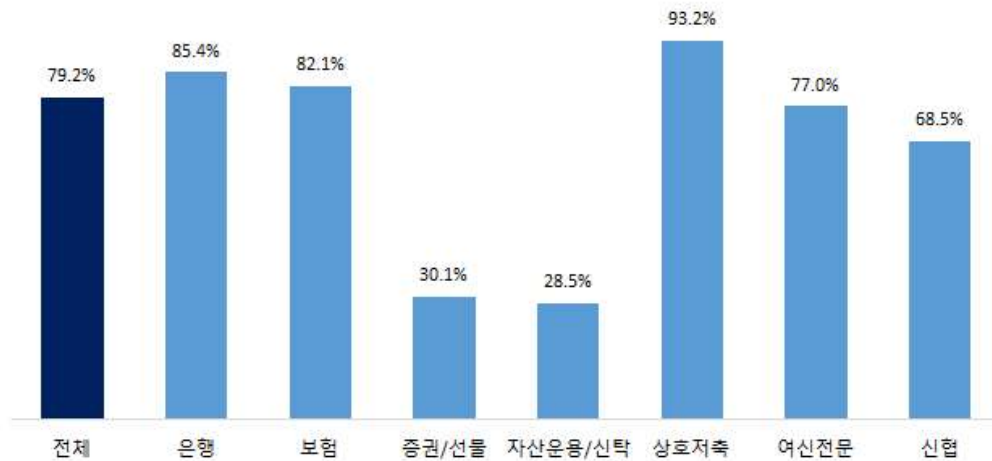
(6) 근무경력별 인력현황

① 업권별 형태

□ 근무경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상호저축, 은행, 보

험, 여신전문, 신탁 업권의 경우 5년 미만의 근무경력 인력 비중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고,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5~10년 미만 경력자 비중이 높을 것으로 조사됨.

<그림 Ⅲ-6> 업권별 근무경력 5년 미만 채용 예상 비율



<표 Ⅲ-11> 근무경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5년 미만	2,250 (79.2)	410 (85.4)	247 (82.1)	31 (30.1)	49 (28.5)	966 (93.2)	321 (77.0)	226 (68.5)
5~10년 미만	383 (13.5)	41 (8.5)	25 (8.3)	55 (53.4)	90 (52.3)	51 (4.9)	72 (17.3)	49 (14.8)
10~15년 미만	149 (5.2)	21 (4.4)	29 (9.6)	17 (16.5)	24 (14.0)	9 (0.9)	22 (5.3)	27 (8.2)
15~20년 미만	35 (1.2)	8 (1.7)	0 (-)	0 (-)	7 (4.1)	6 (0.6)	2 (0.5)	12 (3.6)
20년 이상	23 (0.8)	0 (-)	0 (-)	0 (-)	2 (1.2)	5 (-)	0 (-)	16 (4.8)
합계	2,840 (100.0)	480 (100.0)	301 (100.0)	103 (100.0)	172 (100.0)	1,037 (100.0)	417 (100.0)	330 (100.0)

주: 근무경력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② 성별 형태

- ☐ 근무경력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남녀 모두 경력 5년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을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12> 근무경력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5년 미만	1,055	1,196
	(72.1)	(86.8)
5~10년 미만	263	120
	(18.0)	(8.7)
10~15년 미만	102	47
	(7.0)	(3.4)
15~20년 미만	22	13
	(1.5)	(0.9)
20년 이상	21	2
	(1.4)	(0.1)
합계	1,463	1,378
	(100.0)	(100.0)

주 : 근무경력별,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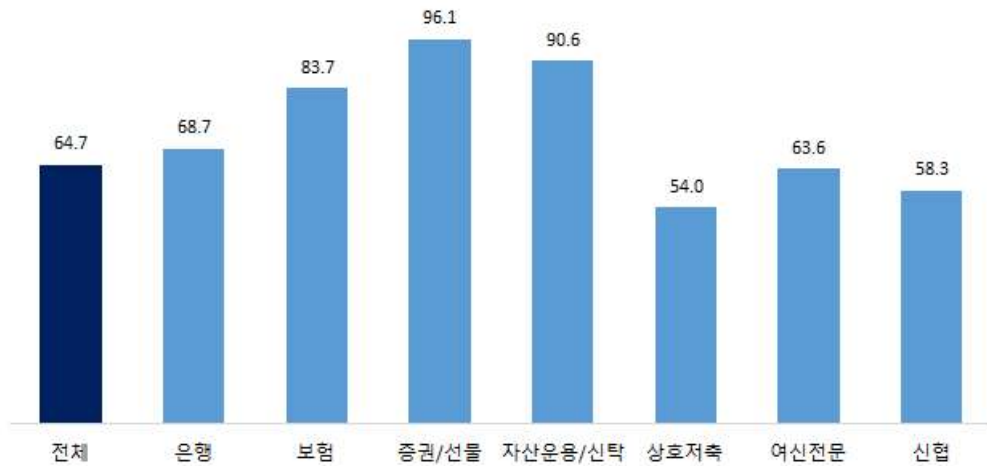
(7) 학력별 인력현황

① 업권별 형태

- ☐ 학력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모든 업권에서 대졸자의 채용예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은행, 상호저축 업권에서는 대졸자 다음으로 고졸자의 채용 예정비율이 높고, 보험, 여신전문, 신탁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가,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의 채용 예정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Ⅲ-7> 업권별 대졸자 채용 예상 비율



<표 Ⅲ-13> 학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고졸	615	113	13	0	0	394	35	60
	(21.2)	(20.6)	(5.6)	(-)	(-)	(35.4)	(9.0)	(17.8)
전문대졸	283	28	21	1	2	72	81	78
	(9.7)	(5.0)	(9.0)	(1.0)	(1.1)	(6.5)	(20.8)	(23.1)
대졸	1,879	377	195	98	163	601	248	197
	(64.7)	(68.7)	(83.7)	(96.1)	(90.6)	(54.0)	(63.6)	(58.3)
대학원졸	128	31	4	3	15	46	26	3
	(4.4)	(5.7)	(1.7)	(2.9)	(8.3)	(4.1)	(6.7)	(0.9)
합계	2,904	548	233	102	180	1,113	390	33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학력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② 성별 형태

□ 학력별 남녀 채용예상 인력을 보면, 남녀 모두 대졸자의 채용예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의 채용 예정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성인력의 경우 남성인력에 비해 고졸 채용 예상규모가 크게 나타나 여성 전체 규모의 34.3%에 달함.

<표 Ⅲ-14> 학력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고졸	121	493
	(8.3)	(34.3)
전문대졸	82	200
	(5.6)	(13.9)
대졸	1,176	702
	(80.3)	(48.8)
대학원졸	85	43
	(5.8)	(3.0)
합계	1,465	1,43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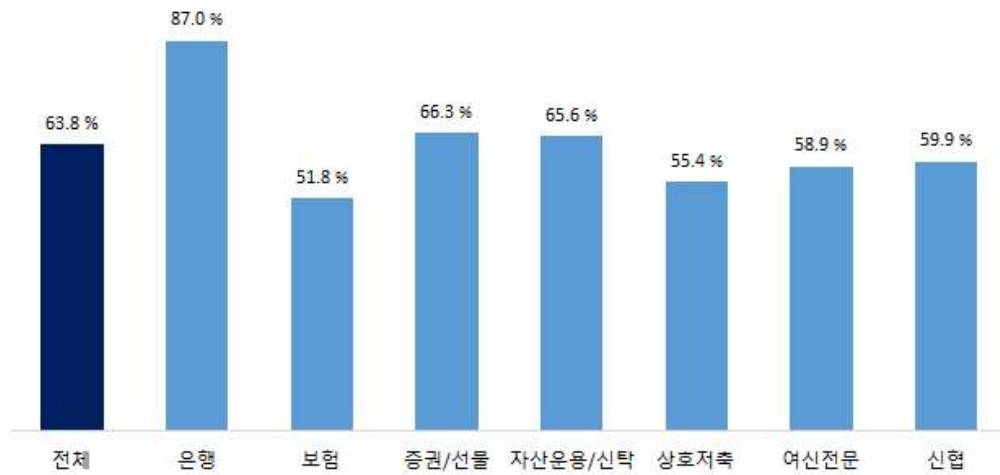
주: 학력별,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8) 전공별 인력현황

① 업권별 형태

□ 대졸자의 전공별 채용예상 인력규모를 보면, 모든 업권에서 경영/경제 전공자의 채용예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Ⅲ-8> 업권별 경영/경제 전공자 채용 예상 비율(대졸자)



<표 Ⅲ-15> 대학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 용/ 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경영/ 경제	1,198 (63.8)	328 (87.0)	101 (51.8)	65 (66.3)	107 (65.6)	333 (55.4)	146 (58.9)	118 (59.9)
법률	114 (6.1)	15 (3.9)	12 (6.2)	3 (3.1)	13 (8.0)	47 (7.8)	15 (6.0)	9 (4.6)
인문/ 사회	172 (9.1)	14 (3.6)	13 (6.7)	5 (5.1)	7 (4.3)	92 (15.3)	33 (13.3)	8 (4.1)
컴퓨터/ 통신	80 (4.2)	6 (1.5)	17 (8.7)	3 (3.1)	3 (1.8)	21 (3.5)	15 (6.0)	15 (7.6)
공학	87 (4.6)	6 (1.5)	14 (7.2)	1 (1.0)	6 (3.7)	37 (6.2)	15 (6.0)	8 (4.1)
자연	61 (3.2)	5 (1.2)	8 (4.1)	1 (1.0)	3 (1.8)	30 (5.0)	11 (4.4)	3 (1.5)
기타	169 (9.0)	5 (1.2)	30 (15.4)	20 (20.4)	24 (14.7)	41 (6.8)	13 (5.2)	36 (18.3)
합계	1,879 (100.0)	377 (100.0)	195 (100.0)	98 (100.0)	163 (100.0)	601 (100.0)	248 (100.0)	197 (100.0)

주: 대학 전공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② 성별 형태

□ 대졸자 전공별 남녀 채용예상 인력규모를 보면, 남녀 모두 경영/경제 전공자의 채용예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16> 대학 전공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경영/경제	766	432
	(65.1)	(61.5)
법률	77	36
	(6.6)	(5.2)
인문/사회	88	84
	(7.5)	(11.9)
컴퓨터/통신	56	24
	(4.7)	(3.4)
공학	56	31
	(4.7)	(4.4)
자연	35	26
	(3.0)	(3.7)
기타	99	70
	(8.4)	(9.9)
합계	1,176	702
	(100.0)	(100.0)

주: 전공별,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 대학원 졸업자의 채용예상 인력규모는 매우 작을 것으로 나타나 전공별 분류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표 Ⅲ-17> 대학원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MBA	18	5	0	0	4	9	0	0
	(13.8)	(15.1)	(-)	(-)	(26.7)	(19.6)	(-)	(-)
경영/경제	25	8	1	3	2	3	8	0
	(19.3)	(24.7)	(25.0)	(100.0)	(13.3)	(6.5)	(30.8)	(-)
인문/사회	11	5	1	0	3	1	0	1
	(8.3)	(15.1)	(25.0)	(-)	(20.0)	(2.2)	(-)	(33.3)
컴퓨터/통신	51	5	0	0	0	30	16	0
	(39.6)	(15.1)	(-)	(-)	(-)	(65.2)	(61.5)	(-)
공학	10	5	1	0	3	1	0	0
	(7.6)	(15.1)	(25.0)	(-)	(20.0)	(2.2)	(-)	(-)
기타	15	5	1	0	3	2	2	2
	(11.5)	(15.1)	(25.0)	(-)	(20.0)	(4.3)	(7.7)	(66.7)
합계	128	31	4	3	15	46	26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대학원 전공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2. 거시경제분석모델을 통한 수요전망

가.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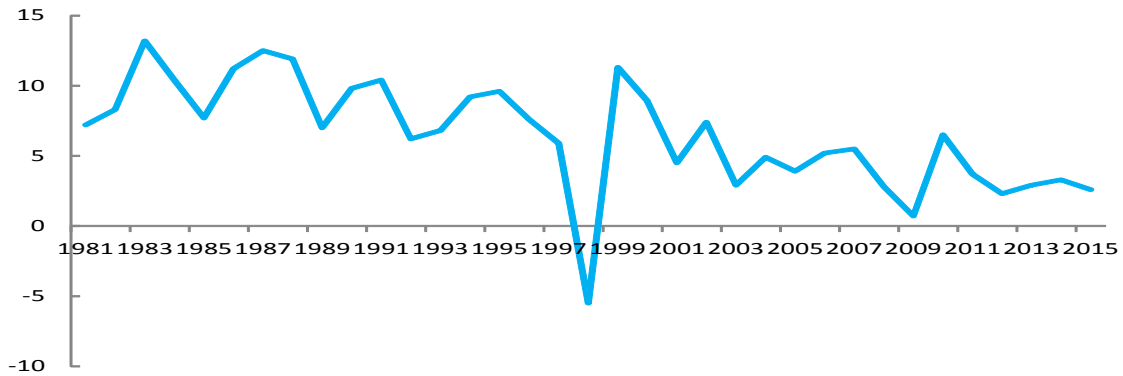
(1) 실물경제 성장 전망

-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1980년대에는 연평균 8.9%씩 성장하였으나 1990년들어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까지 연평균 8.2%씩 성장함.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Delta 5.5\%$ 로 큰 폭 하락하였으나, 1999년에는 전년의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11.3%까지 반등함.
 - 1999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은 점차 하락세를 보여 2003년에는 2.9%까지 하락하였으며 2004~2007년중에는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큰 폭으로 하락
 - 2010년에는 전년대비 6.5% 성장하였으나, 2011년 유로지역 재정 위기로 인해 다시 하락하여 2012년에는 2.3%를 기록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반등하여 각각 2.9% 및 3.3%를 기록
 - 2015년에는 수출 둔화 지속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2.6%를 기록할 전망

<그림 Ⅲ-9>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주 : 2015년은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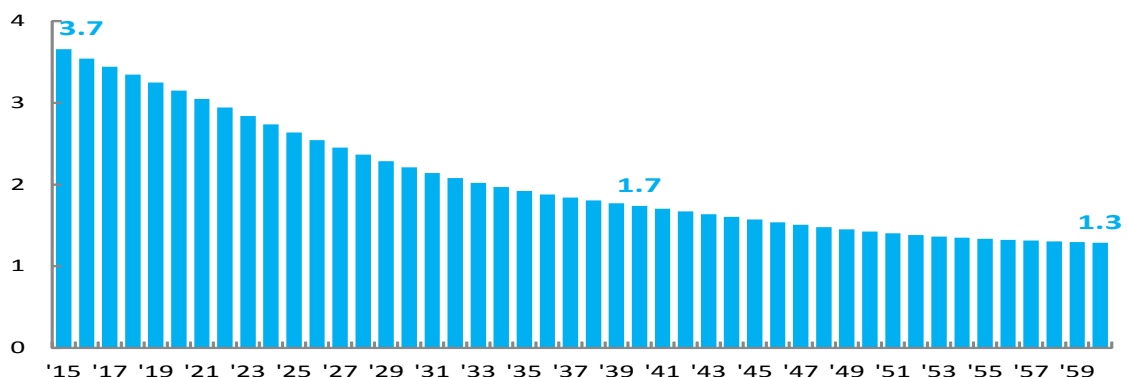
□ 이러한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5년에는 3.7%이지만 2040년에는 1.7%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물론 성장잠재력 수준은 여러 유·무형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측이 어렵지만 여러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더라도, 향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단됨.

<그림 Ⅲ-10>

잠재성장률 전망치

(단위 : %)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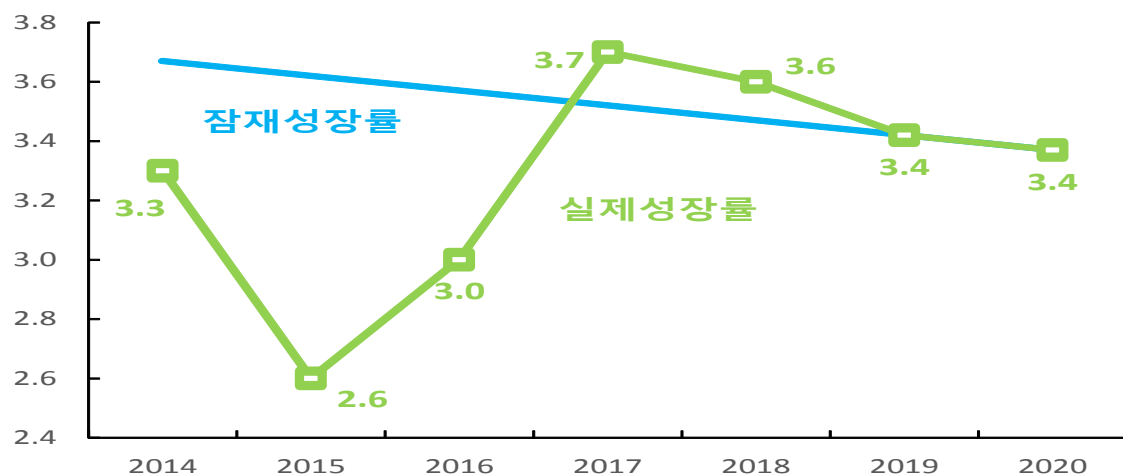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추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거나 상회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의 경제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5년간인 2016~2020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함.

□ 추정결과 우리경제는 2016년에는 경기 개선이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짐에 따라 3.0%,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7%, 3.6%, 2019년에는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I-11> 2015~2020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자료 : 금융연구원 자체 추정

(2) 금융산업 성장 전망

- 2015년 1분기부터 3분기중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1,077.8조원이며 이중 금융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66.6조원으로 전체 부가가치중 6.18%를 차지함.

<표 Ⅲ-18> 금융업 및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단위 : 조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¹⁾
금융업(A)	67.0	70.2	71.7	72.7	75.5	78.6	83.1	66.6
전산업(B)	1,179.8	1,188.1	1,265.3	1,311.9	1,342.0	1,380.8	1,426.5	1077.8
비중(A/B)	5.68	5.91	5.66	5.54	5.63	5.69	5.82	6.18

주 : 2015년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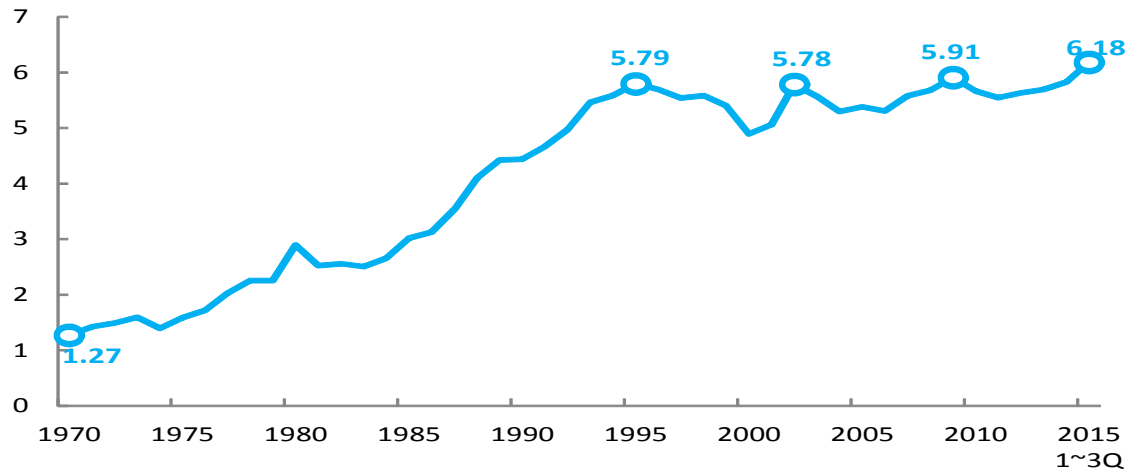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1970년 이후 전산업 실질부가가치중 금융업 실질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70년 이후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1995년 이후 5.5%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1970년에는 1.3%이었으나 1995년에 5.8%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위기로 일시 하락후 다시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5%대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그림 Ⅲ-12>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¹⁾

(단위 : %)



주 :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치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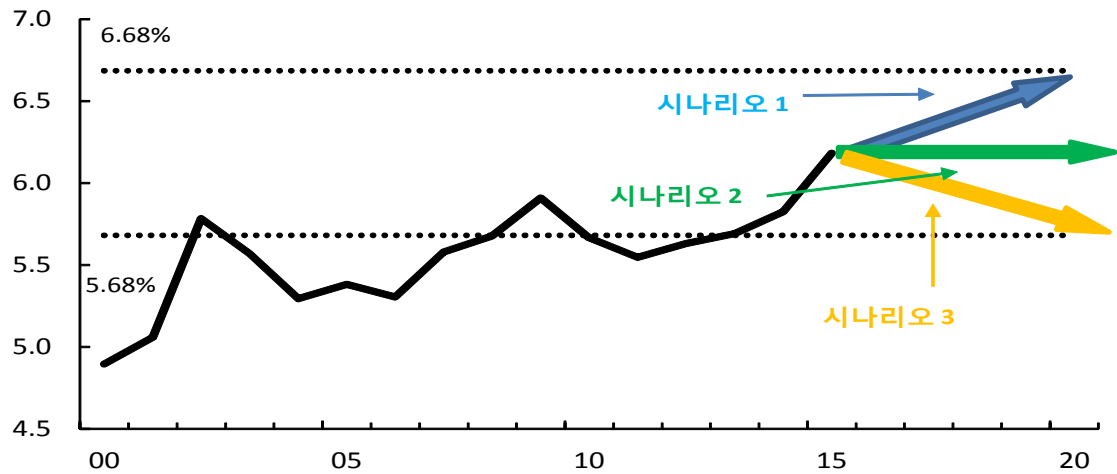
○ 시나리오 1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실질부가가치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하는 시나리오이고, 시나리오 2는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와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는 시나리오며, 마지막 시나리오 3은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에 비해 더 느리게 성장하는 시나리오임.

○ 다만 각 시나리오별 상·하한은 2000~2015년중 변동폭의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상한은 '2015년 비중 + 2×표준편차', 하한은 '2015년 비중 - 2×표준편차'로 정하였음.

<그림 Ⅲ-13>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단위 : %)



주 : 1) 상·하한은 '2015년 부가가치 비중(6.18%) \pm 2×변동폭의 표준편차(0.25%)'로 설정함.

<표 Ⅲ-19>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시나리오 1	6.18	6.28	6.38	6.48	6.58	6.68
시나리오 2	6.18	6.18	6.18	6.18	6.18	6.18
시나리오 3	6.18	6.08	5.98	5.88	5.78	5.68

□ 2015~2020년중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치를 이용하여 2015~2020년중 금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2015년중 90.5조원이었던 부가가치가 2020년에는 115.7조원으로, 시나리오 2에서는 107.0조원으로, 시나리오 3에서는 98.3조원으로 증가함.

<표 Ⅲ-20>

금융업 및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산업 ¹⁾	1,463.63	1,507.54	1,563.32	1,619.60	1,674.99	1,731.43
금융업						
시나리오 1	90.5	94.7	99.8	105.0	110.3	115.7
시나리오 2	90.5	93.2	96.6	100.1	103.5	107.0
시나리오 3	90.5	91.7	93.5	95.2	96.8	98.3

주 : 1)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치는 앞서 언급한 「<표> 2015~2020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근거함.

나. 금융업 인력 수요 전망

- 향후 5년간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을 토대로 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실시함.
- 다만 앞서 전망한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반영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실물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사용하였는데,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평가한 합계임.
 - 또한 금융산업 성장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전체를 평가한 합계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망하는 금융인력 수요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임.
-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의 성장 전망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의 성장 전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는 현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음.
-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데 가장 적절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임.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3년에 최초 작성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매월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금융인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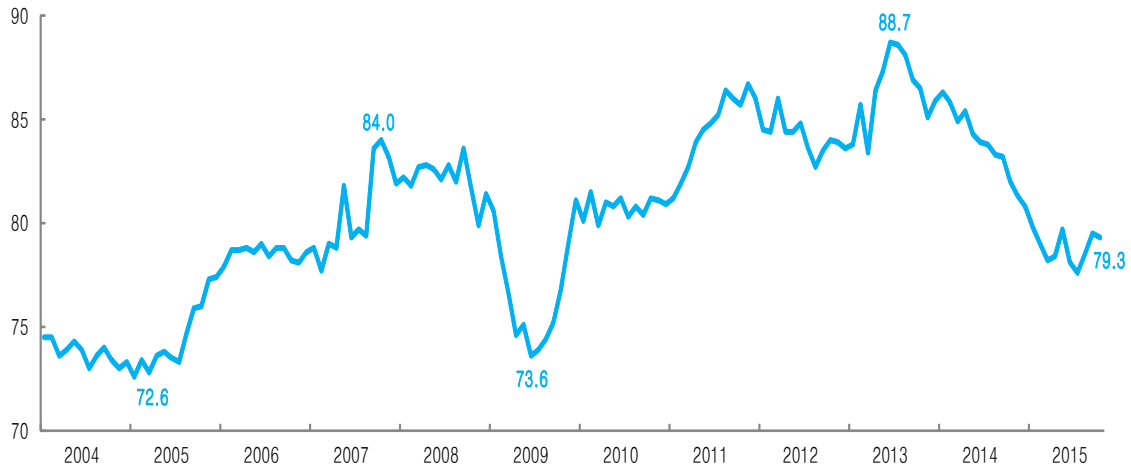
(1) 추정방법

- 2015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 취업자수는 79.3만명으로 추정됨.
- 2004년 73.7만명이었던 금융업 취업자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0.5만명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취업자수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금융인력 구조조정으로 2008년 대비 약 5.5만명이 감소하였음.

<그림 Ⅲ-14>

금융업¹⁾ 취업자수

(단위 : 만명)



주 : 1) 금융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중 'K 금융 및 보험업(64~66)'에 해당됨.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서는 좀더 세분화된 산업분류가 가능하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대분류까지의 취업자수만 공개하고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편 2015년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는 90.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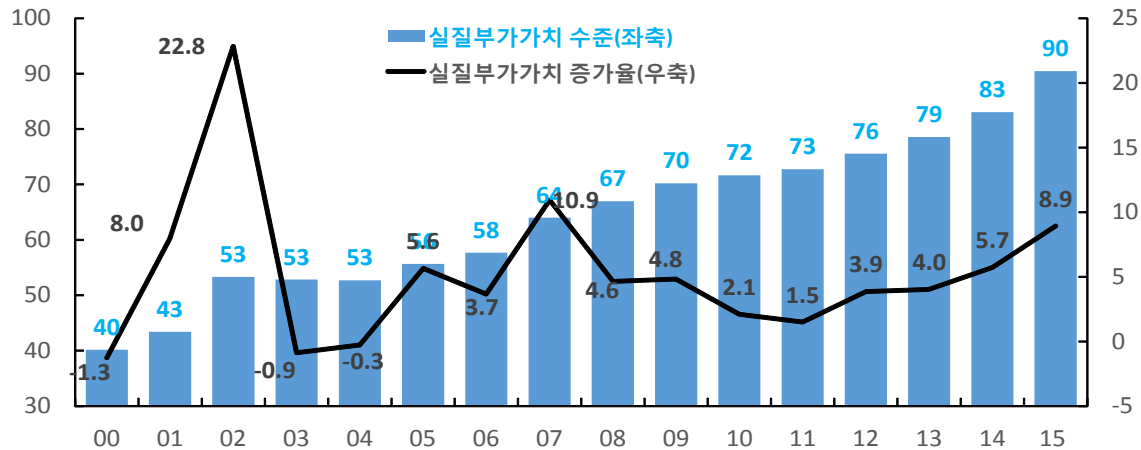
- 2001년 금융업 부가가치 규모는 43조원으로 2001년 이후 연평균 5.4%씩 성장하여 2014년에는 83조원까지 성장함.
-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과 카드위기 직후인 2004년에는 금융업 실질부가가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2009년까지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음.

<그림 Ⅲ-15>

금융업 부가가치

(단위 : 조원)

(단위 : %)



주 : 2015년 금융업 부가가치는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금융업 부가가치와 금융업 취업자수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실시함.

- 공적분 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검정방법에는 Kremer, Ericsson, Dolado (1992)의 Error-Correction Model, Engle and Yoo(1987)의 Augmented Dickey Fuller test, Engle and Granger(1987)의 2OLS, 그리고 Johansen(1991, 1995)의 Johansen test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Johansen test를 적용함.
- Johansen test는 모든 변수를 내생(endogenous)변수로 간주하는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공적분관계를 검정하는 검정법임.
- 검정결과 두 변수간의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어서 두 변수간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1>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Sample (adjusted): 2001Q4 2015Q3
 Included observations: 56 after adjustments
 Trend assumption: Linear deterministic trend
 Series: EMP GDP
 Lags interval (in first differences): 1 to 2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Trac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Trace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	0.234425	24.51156	15.49471	0.0017
At most 1 *	0.156823	9.552420	3.841466	0.0020

Trace test indicates 2 cointegrating eqn(s) at the 0.05 level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Mackinnon-Haug-Michelis (1999) p-values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Maximum Eigenvalu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Max-Eigen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	0.234425	14.95914	14.26460	0.0388
At most 1 *	0.156823	9.552420	3.841466	0.0020

Max-eigenvalue test indicates 2 cointegrating eqn(s) at the 0.05 level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Mackinnon-Haug-Michelis (1999) p-values

- 한편 부가가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탄력성, 취업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음.
- 이 중에서도 고용탄력성은 경제성장률 1% 변동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지표임.
 - 우리나라 고용탄력성은 금융위기이전에는 0.17, 위기이후에는 0.11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 이후 연평균 0.15로 나타남.
 - 즉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 GDP가 1% 증가할 때 취업자수는 0.15% 증가하는 것으로, 2015년 1~10월중 평균 취업자수가 2,591만명임을 고려할 때 실질 GDP가 1% 증가할 때 취업자수는 약 3.89만명 증가

<표 Ⅲ-22>

고용탄력성¹⁾

(단위 : %)

구분	금융위기이전 ²⁾	금융위기이후 ³⁾	2001년이후
경제성장률	6.80	3.67	5.46
취업자수증가율	1.16	0.42	0.84
고용탄력성 ⁴⁾	0.17	0.11	0.15

주 : 1) 기간중 연평균

2) 2001~2008년

3) 2009~2014년

4) 취업자수증가율/실질GDP증가율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가가치 증가율이 취업자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하기로 함.

○ 이는 고용탄력성이 부가가치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파악하기에 가장 유용한 지표이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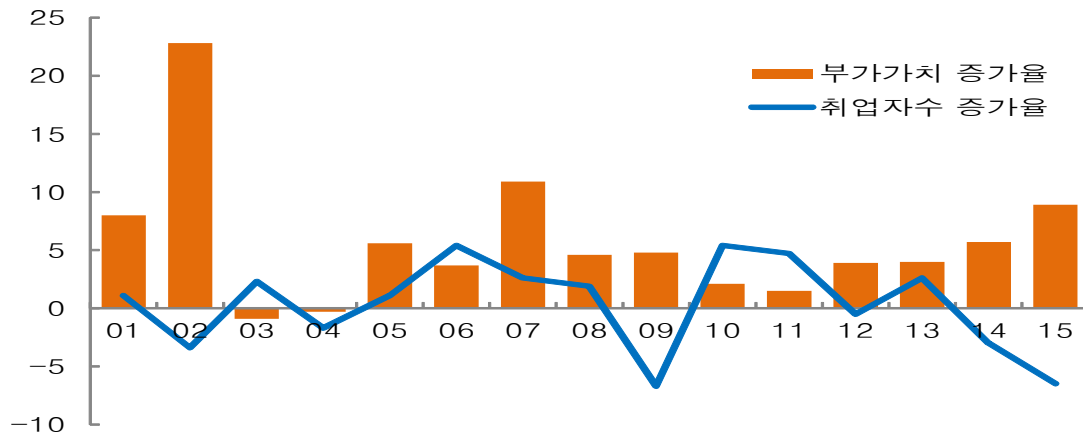
□ 2001년 이후 금융업 취업자수 및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취업자수는 연평균 0.84%씩, 부가가치는 연평균 5.46%씩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업 고용탄력성은 0.84/5.46로 약 0.15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융업에서 부가가치가 1% 늘어나면 취업자수는 0.15% 늘어남을 의미함.

○ 2015년 1~10월 평균 금융업 취업자수가 78.8만명임을 감안할 때 금융업 부가가치가 1% 늘어나면 금융업 취업자수는 78.8만명 × 0.15%에 해당하는 1,182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Ⅲ-16> 금융업 취업자수 및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단위 : %)



주 : 1) 2015년 금융업 부가가치는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임.

2) 2015년 취업자수 증가율은 2015년 1월~10월중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참고>

미국의 고용전망 사례

-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직업정보를 재향 군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 전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
 - 첫 번째 공식적인 수치전망은 1960년에 공표되었으며, 이후 BLS는 미국 경제의 취업자수에 대한 장기 예측모형을 개발
 - 동 전망에는 취업자수 장단기 전망, 노동인력의 인적구성, 산업별 생산 추정, 산업별 및 직무별 고용전망 등을 포함
 - 전망자료는 다양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데, 주로 정책입안자, 지역사회 기획자, 교육기관들이 이용하고 있음.
- 그리고 1970년 초반 이후에는 전망은 2년 주기로 향후 5년과 10년 기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1997년 이후에는 2년주기로 10년기간에 대해 전망하기 시작함.

가. 전망절차

- BLS고용전망은 수년 동안 새로운 자료의 이용가능, 경제 환경의 변화, 통계방법 개선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1970년 이후 기초적인 방법론은 대부분 완성됨.
 - 전망절차는 투입산출전망,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모형, 산업 및 직무별 고용 분포를 보여주는 국가고용행렬(National Employment Matrix)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음.
 - BLS는 ① 노동력 인구학적인 구성 및 규모, ② 경제성장, ③ 상품 최종수요, ④ 투입-산출, ⑤ 산업산출 및 고용, ⑥ 직업 고용 및 빈자리의 6가지 단계를 거쳐 전망을 실시함.
 -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망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 ①~⑥ 단계를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결과는 재검토하고 수정을 함.

(1) 노동력

□ 노동공급 전망은 인구조사국의 인구전망에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을 고려하여 실시됨.

○ 인구조사국은 미국에 거주하는 인구의 장기전망을 수행하는데, 거주자 전망은 거주자의 현재 규모 및 인구구성을 감안하여 향후 출생, 사망 및 국제이동에 대한 가정에 기초로 실시함.

○ 지난 10년간 거주자에 대한 개념은 BLS 경제활동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의 정의에 기반함.

- 총 거주 인구중에서 16세 이하, 군인, 수형자 등을 제외함.

□ BLS는 경제활동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성별, 인종별 경제활동참가율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 BLS분석가는 각 범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 및 과거 움직임에 대해 조사

○ BLS는 각 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과거치를 평활화(smooth)한 후, 평활화된 자료를 로짓(logits) 또는 오즈비(odds ratio)의 자연로그로 전환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의 로짓(logits)은 시간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선형적으로 추정되고, 추정된 자료를 목표연도(target year)까지 확장

○ BLS는 추정된 자료를 다시 경제활동참가율로 전환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검토하였으며, 목표연도(target year)의 시간경로, 횡단면 자료 및 경제활동인구의 집단(cohort)패턴을 재검토하였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였음.

- 전망된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망된 비제도적(noninstitutional)인구에 적용되었고, 연령별, 성별, 인종별, 민족별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전망
- 총 경제활동인구는 그룹을 합하여 계산하며, 총 경제활동인구는 BLS 전망과정의 2단계인 거시경제전망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

(2) 경제성장률 전망

- BLS전망과정의 2번째 단계는 GDP, 총수요, 국민소득 등 주요 변수를 포함한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경제를 전망하는 단계임.
 - 각 수요항목의 전망치는 3번째 단계인 가계, 기업, 정부, 대외 등 부문별 최종수요 전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
 - 거시경제전망은 미 거시경제 정책협회(Macroeconomic Advisers LLC, MA)에서 개발한 MA/US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2012~22년 전망에서 MA/US모형을 처음 사용하였음.
 - MA/US모형에서 가계부문은 생애주기모형, 기업부문은 신고전학파의 WUMM(Washington University Macro Model)과 동일함.
 - MA/US모형의 대외부문 추정은 Oxford Economics의 전망에 의존하며, 목표연도에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됨.
 - MA/US모형안에는 분야별로 완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비농업 산업분야의 잠재산출량을 추정하는 하부모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오차수정모형 형태로 포함되어 있음.
 - MA/US모형안의 외생변수는 에너지가격, 재정 및 통화정책 관련 변수들이며, 내생변수로는 경제실질성장률, 실질GDP의 각 수요항목, 노동생산성 증가율,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이 있음.

(3) 상품 최종 수요

- ☐ 거시경제모형은 개인소비지출(PCE), 설비투자 및 소프트웨어의 민간투자(PIES), 거주자 및 비거주자 인적구조, 가계재고변화(CIPI),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정부지출 등의 최종수요항목별 전망치를 제공
 - BLS 전망과정의 3번째 단계는 거시경제모형에서 도출된 총부가가치를 각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별로 상품구매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단계임.
 - 이 때 수요항목별 분할은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발표하는 국민소득계정(NIPA), 투입산출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류기준에 따라 이루어짐.
- ☐ 또한 각 항목내에서의 분류는 Houthakker-Taylor 모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동 모형에서는 76개 상품의 개인소비지출(PCE)을 추정하고 있음.
 - 각 상품별 지출은 해당 상품의 가격, 재고수준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됨.
 -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민간투자(PIES)은 GDP, 자본스톡 수준, 차입비용 등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포함된 신고전학과 거시경제모형에 기초하여 추정됨.
 - 개인소비지출(PCE)과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민간투자(PIES) 추정은 연쇄가중방식을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모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정작업을 거치게 됨.

(4) 투입·산출 단계

- ☐ 투입-산출모형은 산업별 산출량의 추정치 및 전단계에서 추정된

GDP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수준을 추정하는 수단을 제공함.

- GDP에서는 최종판매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간재 투입은 GDP 추정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 따라서 BLS는 투입산출표와 BEA, 인구조사국, 농무부, 에너지정보청 등 정부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중간투입량을 추정함.

(5) 산업별 산출량 및 고용 추정

□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도출된 산업별 산출량 수준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별 고용 추정치를 도출함.

- 산업별 고용을 추정하는 고용계획(EP) 프로그램은 BLS의 고용통계 현황(CES)과 인구조사 현황(CPS)을 결합한 형태임.

— 고용통계 현황(CES)은 비농업 임금, 급여 고용, 업무시간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인구조사 현황(CPS)은 농업 고용,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의 작업과 시간, 개인 가정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여기에 BLS는 산업별 산출량, 임금수준, 가격변수 등을 이용하여 산업별 고용을 추정함.

□ EP 프로그램은 개별 근로자 수가 아닌 노동량 단위로 총고용을 측정하기 때문에 동 개념은 기존의 BLS 방식과는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취업자수는 산업연관표에서는 노동력 단위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개별 근로자수로 측정되고 있음.
- 그리고 산업별 고용은 일자리, 업무시간, 임금,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에 대한 전망도 동시에 수행함.

- 한편 고용 방정식은 기술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노동수요 및 임금관련 변수외에도 추세를 반영하는 시간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LS는 시간 추세변수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변화가 없었다는 BLS 주장에 대해 BLS는 아무런 근거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6) 직업별 고용 및 일자리 추정

- BLS는 전망된 산업 고용을 직업에 할당하기 위해, 산업-직업 행렬을 사용함,
- 동 행렬은 기본연도 고용행렬과 전망연도 고용행렬을 포함하며, 국가고용행렬(National Employment Matrix)로서 광범위한 고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 국가고용행렬(National Employment Matrix)은 각 산업별, 근로자별로 고용의 상세한 분석을 제공

나. 가정

- BLS의 고용 전망에서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수많은 가정을 하고 있으며, 전망은 통계 및 계량경제모형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됨.
- BLS 고용 전망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초함.
 - 사회적, 인구학적 추세 지속
 - 새로운 주요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음.
 - 더 큰 자연 재해가 없음.
 - 미국경제는 완전고용에 근접할 것.

- 경제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법률과 정책은 예측 기간 동안 유지될 것
- 모든 전망에는 암묵적으로 과거의 경제적인 관계가 전망시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음.
- 이러한 통계 및 계량경제모형은 계량적인 기법에 기초함.
- 주관적인 분석은 유사한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현재 및 과거 행동으로 미래를 전망

다. 최종 검토

- 최종검토는 전망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 시스템 구조의 내부 일관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전망과정 단계별로 상세한 재검점을 하는 단계임.
- BLS 내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까지도 참여하며, 정기적인 리뷰외에도 부정기적인 리뷰를 하기도 함.
- 특정 이벤트 발생 후라든지 제도적인 변화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정기적인 리뷰를 실시하여 전망의 순도를 높이고 있음.

(2) 금융업권별 인력 수요 전망

- 위와 같은 가정을 근거로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해 보면
 시나리오 1에서는 매년 6,058명, 시나리오 2에서는 매년 4,083명,
 그리고 시나리오 3에서는 매년 1,996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증가율로 보면 시나리오 1은 0.7~0.8%, 시나리오 2는 0.4~0.6%,
 그리고 시나리오 3은 0.2~0.3% 정도의 금융인력 수요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3>

금융인력 수요 전망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시나리오 1	793,726 (5,526)	800,106 (6,380)	806,384 (6,278)	812,460 (6,076)	818,489 (6,030)	(6,058)
시나리오 2	791,747 (3,547)	796,141 (4,394)	800,440 (4,299)	804,547 (4,106)	808,613 (4,067)	(4,083)
시나리오 3	789,767 (1,567)	792,121 (2,353)	794,330 (2,209)	796,299 (1,969)	798,178 (1,879)	(1,996)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

<표 III-24>

금융인력 수요 증가율 전망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시나리오 1	0.70	0.80	0.78	0.75	0.74
시나리오 2	0.45	0.56	0.54	0.51	0.51
시나리오 3	0.20	0.30	0.28	0.25	0.24

주 : 전년대비 증가율

□ 다만 위의 금융인력 수요 증감은 해당년도의 입직자와 이직자를 가감한 순증감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시나리오 1의 경우 2016년 취업자수가 793,726명이고 2015년 1~10월중 평균 취업자수가 788,200명이어서 2015년 취업자수는 5,526명 증가함.

○ 이 때 5,526명 모두가 신규채용된 인원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입직자(신규채용된 자)에서 이직자(퇴직한 자)를 차감한 인원수를 나타냄.

○ 따라서 퇴직자 등 이직자를 감안하면 입직자는 5,526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1) 금융업권별 인력비중이 불변인 경우

□ 향후 5년간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2015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함.

○ 예를 들면 향후 5년간 은행권 취업자수 비중은 전체에서 48.6%를 차지하는 등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표 Ⅲ-25>

업권별 인력비중

(단위 : %)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 신탁	저축은행	여신전문	신협	합계
48.6	21.2	12.6	2.1	2.9	9.2	3.4	100.0

주 : 1) 2015년 금융인력조사 기준

□ 이 경우 각 시나리오별 금융인력 수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 Ⅲ-26>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은행	386,015	389,118	392,171	395,126	398,058
보험	167,963	169,313	170,642	171,928	173,203
증권/선물	100,125	100,929	101,721	102,488	103,248
자산운용/신탁	17,017	17,154	17,289	17,419	17,548
저축은행	22,698	22,881	23,060	23,234	23,406
여신	73,057	73,644	74,222	74,781	75,336
신협	26,850	27,066	27,278	27,484	27,688
계	793,726	800,106	806,384	812,460	818,489

<표 Ⅲ-27>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은행	385,053	387,190	389,280	391,277	393,255
보험	167,544	168,474	169,384	170,253	171,114
증권/선물	99,875	100,429	100,972	101,490	102,003
자산운용/신탁	16,975	17,069	17,161	17,249	17,337
저축은행	22,642	22,767	22,890	23,008	23,124
여신	72,875	73,279	73,675	74,053	74,427
신협	26,783	26,932	27,077	27,216	27,354
계	791,747	796,141	800,440	804,547	808,613

<표 Ⅲ-28>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은행	384,090	385,234	386,309	387,267	388,180
보험	167,126	167,624	168,091	168,508	168,905
증권/선물	99,625	99,922	100,201	100,449	100,686
자산운용/신탁	16,933	16,983	17,030	17,073	17,113
저축은행	22,585	22,652	22,716	22,772	22,826
여신	72,693	72,909	73,113	73,294	73,467
신협	26,716	26,796	26,871	26,937	27,001
계	789,767	792,121	794,330	796,299	798,178

2) 금융업권별 인력비중이 변하는 경우

□ 앞서 언급한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2015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다소 무리가 있는 가정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한 금융업권별 인력전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이후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은행, 저축은행의 자산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보험, 증권, 자산운용/신탁, 여신 등의 비중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은행 자산의 경우 2008년말에는 전체 금융권 자산의 70.4%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6월말에는 59.0%로 11.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29>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은행	68.9	70.4	66.9	64.3	62.8	60.6	60.0	59.5	59.0
보험	15.9	14.8	16.5	17.7	18.1	20.9	21.9	22.4	22.2
증권/선물	5.7	5.4	6.2	7.0	7.5	7.8	7.8	8.2	9.1
자산운용/신탁	0.2	0.2	0.3	0.2	0.2	0.2	0.1	0.2	0.2
저축은행	2.5	2.6	3.1	3.0	2.2	1.5	1.1	1.0	1.0
여신	5.7	5.4	5.5	6.1	7.7	7.4	7.4	7.2	6.9
신탁	1.2	1.2	1.5	1.7	1.6	1.7	1.6	1.6	1.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기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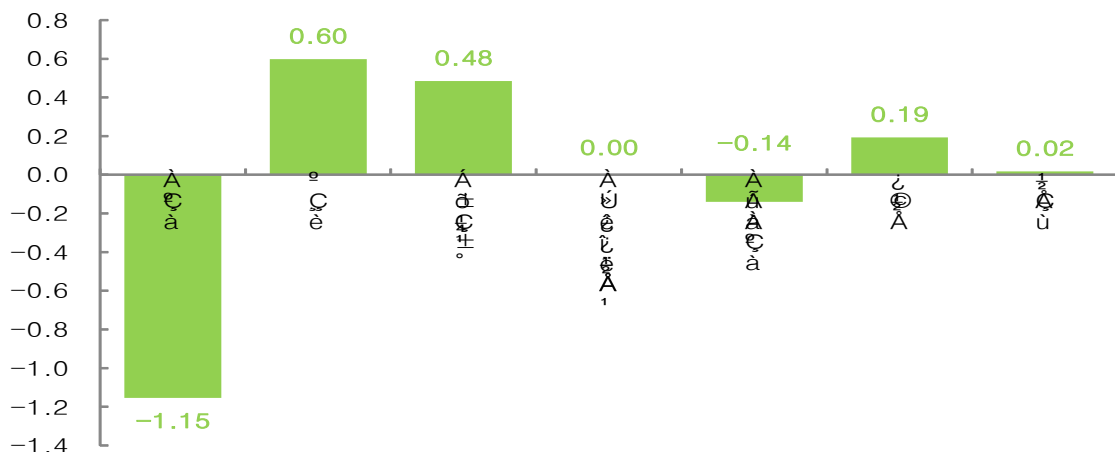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 즉 은행자산은 매년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1.15%p 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보험은 매년 0.60%p 씩, 증권/선물은 매년 0.48%p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7>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의 전년대비 차이¹⁾

(단위 : %p)



주 : 1) 2005~2015년 6월 기간중 평균값

□ 이와 같은 추세가 향후 5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20년이 되면 은행 비중은 53.3%로, 보험 비중은 25.2%로 증권/선물 비중은 11.5%로 달라지게 됨.

○ 예를 들면 은행 비중은 2015년에 59.0%이었으나 매년 1.15%p 하락하여 2016년에는 57.9%, 2017년에는 56.7% 등으로 낮아지게 됨.

<표 III-30>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 전망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은행	59.0	57.9	56.7	55.6	54.4	53.3
보험	22.2	22.8	23.4	24.0	24.6	25.2
증권/선물	9.1	9.6	10.1	10.6	11.0	11.5
자산운용/신탁	0.2	0.2	0.2	0.2	0.1	0.1
저축은행	1.0	0.8	0.7	0.6	0.4	0.3
여신	6.9	7.1	7.3	7.5	7.7	7.9
신탁	1.6	1.6	1.6	1.6	1.6	1.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향후 5년간 금융업권별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계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별 자산규모와 취업자수의 장기시계열이 필요

○ 그러나 금융업권별 취업자수 data를 확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간 금융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일관된 업권별 분류도 가능하지 않음.

* 통계청에서는 금융업 취업자수 전체만을 공표하고 있을 뿐, 금융업권별로 취업자수를 별도로 공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자산의 변화가 금융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업권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업권별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서민밀착형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날수록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의 경우에는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많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업권별로 자산비중이 달라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업권별 자산비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은 상당한 전망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업권별 자산비중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향후 추세정도라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의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전망의 오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업권별로 자산비중의 증가율이 금융인력 수요 비중의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자 함.

○ 즉 은행의 경우 2016년에 자산비중이 1.0%p 하락했는데 이 때 금융인력 수요 비중도 동일하게 1.0%p 하락한 것으로 가정함.

○ 이러한 가정하에서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을 산출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Ⅲ-31>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 추이 전망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은행	48.6	47.6	46.6	45.5	44.5	43.5
보험	21.2	21.7	22.2	22.7	23.3	23.8
증권/선물	12.6	13.3	13.9	14.6	15.2	15.8
자산운용/신탁	2.1	2.1	2.1	2.1	2.1	2.1
저축은행	2.9	2.5	2.0	1.6	1.2	0.8
여신	9.2	9.4	9.7	9.9	10.2	10.4
신협	3.4	3.4	3.4	3.5	3.5	3.5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 그리고 이와 같은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 전망을 근거로 시나리오별 금융인력 수요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Ⅲ-32>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은행	377,796	372,577	367,210	361,653	355,981
보험	172,171	177,781	183,421	189,064	194,744
증권/선물	105,269	111,283	117,345	123,440	129,586
자산운용/신탁	16,962	17,042	17,120	17,192	17,263
저축은행	19,459	16,362	13,223	10,043	6,824
여신	74,958	77,470	79,995	82,523	85,068
신협	27,111	27,591	28,070	28,545	29,022
계	793,726	800,106	806,384	812,460	818,489

<표 Ⅲ-33>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은행	376,854	370,731	364,503	358,131	351,686
보험	171,742	176,900	182,069	187,222	192,395
증권/선물	105,007	110,731	116,480	122,237	128,022
자산운용/신탁	16,919	16,958	16,994	17,025	17,055
저축은행	19,411	16,281	13,126	9,945	6,742
여신	74,771	77,086	79,406	81,720	84,042
신협	27,043	27,454	27,863	28,267	28,672
계	791,747	796,141	800,440	804,547	808,613

<표 Ⅲ-34>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은행	375,912	368,859	361,721	354,459	347,148
보험	171,312	176,007	180,679	185,303	189,912
증권/선물	104,744	110,172	115,591	120,984	126,370
자산운용/신탁	16,877	16,872	16,864	16,850	16,835
저축은행	19,362	16,199	13,026	9,843	6,655
여신	74,584	76,697	78,800	80,882	82,957
신협	26,976	27,315	27,650	27,977	28,302
계	789,767	792,121	794,330	796,299	798,178

3. 금융관련 전공별, 학위별, 자격증보유자 인력 공급 전망

- 인력수요 전망에 비해 인력공급 전망은 구직자가 금융업 이외 다른 산업에도 취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공급 전망은 어려움.
- 당해연도 졸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중인 타업종 경력자도 금융업으로의 이직이 가능하고 재교육을 통해 금융업으로의 기업집단 내 이동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급전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인력공급 전망을 해석할 때 이러한 한계를 감안할 필요

가. 금융전문인력 자격요건

- 금융인력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이 59.6%로 과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고졸도 21.7%, 전문대졸도 12.4%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학력별로 금융인력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업권별로 학력별 비중을 보면 은행이나 신협에서는 고졸 학력인력에 대한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35>

업권별 학력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고졸	21.7	27.6	18.9	8.2	7.7	14.8	17.2	23.5
전문대졸	12.4	9.9	15.3	10.3	3.2	18.2	19.2	24.3
대졸이상	65.9	62.6	65.8	81.6	89.1	67.0	63.6	52.1
대졸	59.6	58.1	59.4	69.8	65.7	63.1	56.2	49.0
대학원졸	6.3	4.5	6.4	11.8	23.4	3.9	7.4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한편 대졸자의 전공은 경영/경제가 41.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문/사회도 18.6%, 공학도 6.5% 등 다양한 전공 인력이 취업되고 있음.
- 경영/경제 및 인문/사회 전공자가 59.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전공별로 금융인력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는 없으나. 업권별로 전공 비중을 보면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에서는 경영/경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36>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 용/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경영/경제	41.0	37.6	38.7	56.4	54.4	43.3	36.6	40.5
법률	5.3	4.7	6.0	3.8	7.7	6.9	8.3	4.6
인문/사회	18.6	20.0	20.8	16.7	10.8	17.3	11.5	16.9
컴퓨터/통신	6.1	5.9	6.6	6.3	3.4	6.3	7.3	4.9
공학	6.5	5.8	6.9	5.7	11.1	5.4	10.5	7.0
자연	4.9	4.5	6.4	4.2	3.8	3.8	5.0	4.7
기타	17.6	21.5	14.5	7.0	8.8	17.1	20.8	2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따라서 금융인력조사 자료만으로는 금융인력 자격을 살펴보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미국의 노동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융인력 자격요건을 제시하고자 함.
- 비록 미국의 금융회사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회사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금융전문인력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우리 금융회사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요건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하에서는 미국 고용통계청이 조사하여 발간하고 있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중에서 Business and Financial Occupation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 미국 고용통계청의 Business and Financial Occupation에는 20개의 Occupation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Occupation의 특징, 자격요건,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음.

○ 미 정부가 발간하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은 자신의 직업(Occupation)을 선택하려고 하는 구직자들에게 해당 직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http://www.bls.gov/ooh/business-and-financial/home.htm>

○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Handbook을 작성·발간하여 금융분야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자 하는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감정평가사(Appraisers and Assessors of Real Estate)

○ 부동산감정평가사는 매매, 저당, 과세, 보험, 개발되기 전의 동산 및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

○ 부동산감정평가사의 자격요건은 각 지역(state), 재산의 유형 또는 가치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인감정사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49,540

□ 예산분석가(Budget Analysts)

- 예산분석가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예산계획 및 집행에 대해 분석함. 예산분석가는 예산보고서를 검토하고 기관의 지출을 모니터링함.
- 예산분석가는 대체로 석사 학위소지자를 선호하며, 적어도 학사 학위가 필요함. 예산분석가는 예산계획 및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 통계 또는 회계 관련된 전공자가 유리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69,280

□ 손해사정사(Claims Adjusters, Appraisers, Examiners, and Investigators)

- 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한 보험청구권을 평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판단함.
- 손해사정사의 학력은 고졸이상이며,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추정, 보험금의 산정 등의 보험 관련 업무 경험을 우대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59,850

□ 복리후생 및 직무분석전문가(Compensation, Benefits, and Job Analysis Specialists)

- 복리후생 및 직무분석전문가는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를 설계하며, 직무 및 직책별 급여, 보험 등을 평가하고 결정함.
- 복리후생 및 직무분석전문가는 인적자원관리, 경영, 금융 등의 학사학위가 필요하며, 관련 업무 경험을 요구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59,090

□ 비용산정전문가(Cost Estimators)

- 비용산정전문가는 제품생산, 건물건설, 서비스제공 등의 요구되는 노동력, 부품재료, 시간, 비용 등을 추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

집하고 분석함. 비용산정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산업 및 상품유형에 따라 특화됨.

- 비용산정전문가는 일반적으로 학사학위가 필요하며, 수리적 지식이 필수적임. 일반적으로 공학, 수학, 통계 또는 회계, 금융, 경영 관련 학사 학위소지자를 우대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58,860

☐ 금융분석가(Financial Analysts)

- 금융분석가는 개인 및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금융분석가는 주식, 채권 등의 투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함.
- 금융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직무에 따라 석사 학위도 필요함. 회계, 경제, 금융, 통계, 수학, 공학, 금융관련 MBA 등의 전공을 선호하며, 파생상품 가격 평가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지식도 중요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76,950

☐ 금융심사관(Financial Examiners)

- 금융심사관은 금융기관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준법여부를 감독함. 금융심사관은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여신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은행의 경영상태를 평가함.
- 금융심사관은 일반적으로 회계, 재무, 경제와 관련된 학사 학위가 필요하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경우 최소 6학기의 회계 관련 수업을 이수해야 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75,800

☐ 기금모금자(Fundraisers)

- 기금모금자는 조직의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와 캠페인을 개최함. 기금모금자는 행사관련 홍보물을 설계하고, 조직의 업무, 목표

및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함.

- 기금모금자는 일반적으로 홍보, 언론, 경영관련 전공의 학사 학위가 필요하며, 강력한 커뮤니케이션과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함. 자선단체 및 자원봉사의 기금조성 행사 등의 경험자를 우대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50,680

□ 인적자원관리사 및 노무사(Human Resources Specialists and Labor Relations Specialists)

- 인적자원관리사는 리크루팅, 인터뷰 등 구인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 관계, 급여 및 혜택, 직무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 노무사는 임금 및 급여, 복리후생, 의료, 연금, 노동조합 등의 문제에 대한 근로 계약을 해석하고 관리함.
- 인적자원관리사 및 노무사는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 경영, 회계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가 필요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55,640

□ 보험인수심사원(Insurance Underwriters)

- 보험인수심사원은 보험가입자를 평가하며, 보험료와 보험범위 등을 결정함.
- 보험인수심사원은 학사 학위가 필요하며, 보험 관련 업무 경험과 강력한 컴퓨터 기술을 요구함. 경영, 금융, 경제, 수학 전공자들을 우대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62,870

□ 여신담당자(Loan Officers)

- 여신담당자는 개인 및 기업의 대출신청서의 승인여부를 평가
- 여신담당자는 대체로 경영, 금융, 경제 등의 학사 학위를 필요하며, 관련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주택담보대출 담당자의 경우 자격증이 필요하며, 상업대출 담당자의 경우 기업회계 관련 지식이 필요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59,820

□ 물류전문가(Logisticians)

- 물류전문가는 제품이 공급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공급체인(supply chain)을 조직화하고 분석함. 물류전문가는 제품인수, 제품분류, 제품할당, 제품운송 등의 과정을 관리함.
- 물류전문가는 대체로 산업공학, 공급체인관리 등의 학사 학위를 요구하며, 관련 분야의 업무 경험자를 우대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72,780

□ 경영분석가(Management Analysts)

- 경영분석가는 종종 경영컨설턴트라고 불리며, 비용절감 및 매출증가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경영진에게 조언함.
- 대부분의 경영분석가는 적어도 경영, 경제, 정치과학, 회계, 재무, 마케팅, 심리학, 컴퓨터 및 IT 등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음. 경영분석가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분야의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컨퍼런스 등에 참여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78,600

□ 시장조사분석가(Market Research Analysts)

- 시장조사분석가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잠재적 매출액을 검토하기 위해 시장여건을 분석함. 시장조사분석가는 소비자취향, 잠재적 구매자, 적정가격 등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함.
- 시장조사분석가는 대부분 적어도 시장조사, 통계, 수학, 컴퓨터 과학 관련 학사 학위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석사 학위를 요구함. 시장조사분석가는 수리적 지식 및 분석 능력이 필수적임.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60,300

□ 회의기획자(Meeting, Convention, and Event Planners)

- 회의기획자는 회의 및 행사의 모든 측면을 관리함. 회의기획자는 회의장소, 교통편, 기타 세부사항을 조정함.
- 회의기획자는 일반적으로 경영, 홍보, 마케팅, 호텔경영 등 전공의 학사 학위가 필요하며, 이벤트 기획 관련 업무경험이 적어도 1~2년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음.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45,810

□ 개인재무상담사(Personal Financial Advisors)

- 개인재무상담사는 개인의 재무계획, 금융투자, 세금, 보험 등에 관련하여 조언함.
- 개인재무상담사는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가 필요하며, 금융, 경제, 회계, 경영, 수학 학위 소지자를 선호함. 금융투자, 세금, 부동산 계획, 위험관리 등의 지식도 필요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67,520

□ 구매전문가(Purchasing Managers, Buyers, and Purchasing Agents)

- 구매전문가는 조직이 사용하거나 재판매할 제품을 구입하며, 공급업체 평가, 계약 협상, 제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구매전문가의 자격요건은 조직의 규모와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학사 학위 및 업무 경험을 요구함. 특히 경영, 경제, 응용과학, 공학의 전공자를 선호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60,550

□ 세금조사원, 징수관 및 세무대리인(Tax Examiners and Collectors, and Revenue Agents)

- 세금조사원, 징수관 및 세무대리인은 기업과 시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며, 세금환급, 감사, 미납세금징수 등의 업무도 수행
- 대부분의 세금조사원, 징수관 및 세무대리인은 경영, 회계, 또는 감사와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가 필요하며, 관련 직무 경험자를 우대함.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50,440

□ 교육 및 개발전문가(Training and Development Specialists)

- 교육 및 개발 전문가가 직원교육 및 기술과 지식 향상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교육 및 개발 전문가는 교육 및 개발, 인적자원 등의 학사 학위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관련 업무 경험이 필요함. 향후 IT발전 지속 등으로 컴퓨터 및 IT관련 지식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 연 급여(2012년 중간값) : \$55,930

나. 세부항목별 인력공급 현황 및 전망

(1) 전공별

-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는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임.
 - 동 방법은 금융인력의 전공이 대체로 상경계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상경계열 졸업생을 금융인력 신규공급 규모로 보는 방법임.
 - 다만 동 방법은 법학, 공학계열 등 상경계열이 아닌 타전공자도 금융권에 취업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졸업생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 제외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타전공자의 경우에는 금융권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금융업으로 전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록 정확한 공급규모를 파악할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공급규모라도 파악해 보기 위함임.
-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경상계열 취업대상자는 56,120명인 것으로 추정됨.
 - 교육통계연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부전공별 졸업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대계열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경상계열 졸업 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계열 대비 각 항목별 평균비중을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취업대상자 수를 추정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2014년 경제·경영의 취업대상자는 48,296명, 금융·회계·세무는 7,815명으로 추정됨.

<표 Ⅲ-37>

전공별 취업대상자¹⁾

(단위: 명)

구분	사회계열	경상계열	경제·경영	금융·회계·세무
2006	125,368	56,757	48,785	7,972
2007	130,660	55,965	48,350	7,578
2008	134,018	55,281	47,605	7,676
2009	137,631	55,131	47,280	7,851
2010	135,323	57,313	49,323	7,981
2011	137,184	58,101	50,001	8,091
2012	140,612	59,553	51,250	8,293
2013	133,904	56,712	48,805	7,897
2014	132,506	56,120	48,296	7,815

주 : 1) 취업대상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자료: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 한편 입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경상계열의 입학생은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감소하면서 2015년 현재 78,184명을 기록
 - 전공별로 보면, 경제·경영은 2006~2011년중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금융·회계·세무는 2006년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
 - 증가율로 보면 경상계열은 평균적으로 매년 입학생이 0.23%씩, 금융·회계·세무는 2.69%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경제·경영은 0.08% 감소

<표 Ⅲ-38>

전공별 입학생 추이

(단위: 명)

구분	경상계열	경제·경영	금융·회계·세무
2006	76,695	68,661	8,034
2007	78,087	69,412	8,675
2008	77,818	68,658	9,160
2009	79,517	69,775	9,742
2010	82,344	72,090	10,254
2011	83,648	73,462	10,186
2012	83,323	73,026	10,297
2013	81,432	70,789	10,643
2014	79,901	69,822	10,079
2015	78,184	68,050	10,134

자료: 2013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표 Ⅲ-39>

전공별 입학생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구분	경상계열	경제·경영	금융·회계·세무
2007	1.81	1.09	7.98
2008	-0.34	-1.09	5.59
2009	2.18	1.63	6.35
2010	3.56	3.32	5.26
2011	1.58	1.90	-0.66
2012	-0.39	-0.59	1.09
2013	-2.27	-3.06	3.36
2014	-1.88	-1.37	-5.30
2015	-2.15	-2.54	0.55
평균	0.23	-0.08	2.69

자료: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 2011~2016년 입학생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졸업생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매년 54,867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2016년에는 56,787명, 2017년에는 55,498명, 2018년에는 54,455명, 2019년에는 53,285명, 그리고 2020년에는 52,166명으로 추정됨.

○ 전공별로 보면, 경제·경영은 매년 47,217명, 금융·회계·세무는 7,640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입학생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치로 추정

<표 Ⅲ-40>

금융인력 공급규모 : 전공 기준

(단위: 명)

구분	경상계열	경제·경영	금융·회계·세무
2016	56,787	48,870	7,908
2017	55,498	47,761	7,728
2018	54,455	46,863	7,583
2019	53,285	45,856	7,420
2020	52,166	44,893	7,264

(2) 학위별

□ 학위별 졸업상황을 보면, 2014년 대학의 취업대상자는 31,441명, 전문대학은 22,837명, 대학원은 1,842명으로 추정됨.

<표 Ⅲ-41>

학위별 취업대상자

(단위: 명)

구분	경상계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2006	56,757	24,198	30,717	1,842
2007	55,965	23,264	30,910	1,791
2008	55,281	21,826	31,614	1,841
2009	55,131	21,397	31,881	1,853
2010	57,313	23,323	32,109	1,881
2011	58,101	23,643	32,551	1,907
2012	59,553	24,234	33,364	1,955
2013	56,712	23,078	31,773	1,861
2014	56,120	22,837	31,441	1,842

주 : 1) 취업대상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자료: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 입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학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에도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학위별로 보면, 대학은 2015년 40,076명을 기록하였으며 전문대학은 22,320명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대학원은 15,78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증가율로 보면 대학은 매년 입학생이 1.12%씩, 대학원은 2.75%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은 2.42%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표 Ⅲ-42>

학위별 입학생 추이

(단위: 명)

구분	경상계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2006	76,695	27,963	36,324	12,408
2007	78,087	28,464	36,926	12,697
2008	77,818	28,012	36,984	12,822
2009	79,517	26,923	38,759	13,835
2010	82,344	28,002	39,619	14,723
2011	83,648	27,805	40,541	15,302
2012	83,323	26,500	41,365	15,458
2013	81,432	25,123	41,009	15,300
2014	79,901	23,509	40,774	15,618
2015	78,184	22,320	40,076	15,788

자료: 2013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표 Ⅲ-43>

학위별 입학생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구분	경상계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2007	1.81	1.79	1.66	2.33
2008	-0.34	-1.59	0.16	0.98
2009	2.18	-3.89	4.80	7.90
2010	3.56	4.01	2.22	6.42
2011	1.58	-0.70	2.33	3.93
2012	-0.39	-4.69	2.03	1.02
2013	-2.27	-5.20	-0.86	-1.02
2014	-1.88	-6.42	-0.57	2.08
2015	-2.15	-5.06	-1.71	1.09
평균	0.23	-2.42	1.12	2.75

자료: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 향후 5년간 학위별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보면, 대학은 매년 30,739명, 전문대학은 22,327명, 대학원은 1,801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됨.

○ 대학의 공급규모는 2016년 31,815명에서 2020년 29,226명으로 감소하면, 전문대학도 2016년 23,109명에서 21,228명으로 감소할 전망

<표 Ⅲ-44> 금융인력 공급규모 : 학위별 기준

(단위: 명)

구분	경상계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2016	56,787	23,109	31,815	1,864
2017	55,498	22,584	31,093	1,821
2018	54,455	22,160	30,508	1,787
2019	53,285	21,683	29,853	1,749
2020	52,166	21,228	29,226	1,712

(3) 자격증보유자별

□ 금융투자부문 자격시험의 응시인원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다가 2014년 소폭 증가한 반면, 보험부문 자격증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 금융투자부문 자격증별로 보면, 2014년 현재 펀드투자상담사는 52,958명, 증권투자상담사는 22,959명, 파생상품투자상담사는 28,185명, 금융투자분석사는 946명이 시험에 응시하였음.

○ 보험부문의 경우, 2014년 현재 손해사정사가 2,5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중개사가 368명, 보험계리사가 294명 순으로 나타남.

<표 Ⅲ-45>

금융관련 자격증 응시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융투자부문	180,003	153,018	132,520	111,085	111,161
펀드투자상담사	66,218	73,808	61,240	55,314	52,958
증권투자상담사	40,044	31,043	32,567	26,260	22,959
파생상품투자상담사	60,204	35,583	28,069	21,707	28,185
금융투자분석사	969	1,985	1,325	1,296	946
투자자산운용사	11,350	9,755	8,543	5,774	5,487
재무위험관리사	1,218	844	776	734	626
보험부문	4,007	4,229	4,583	4,079	3,170
보험계리사	902	937	877	929	294
손해사정사	2,040	2,269	2,880	2,788	2,508
보험중개사	1,065	1,023	826	362	368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부문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평균 51,316명이 매년 합격하였으며, 보험부문의 경우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평균 797명이 매년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투자부문의 경우, 2014년 전반적으로 합격자수가 줄어들었으나,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합격자수는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보험부문 자격증별로 보면, 보험계리사는 2014년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인해 합격자가 배출되지 않은 반면, 손해사정사는 합격자가 늘어나는 반면, 보험중개사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Ⅲ-46>

금융관련 자격증 합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융투자부문		72,228	52,748	45,556	43,299	42,750
	펀드투자상담사	26,090	29,791	24,421	23,798	23,000
	증권투자상담사	15,086	9,571	9,550	9,790	7,065
	파생상품투자상담사	26,295	9,810	8,459	7,763	10,952
	금융투자분석사	371	663	394	357	204
	투자자산운용사	3,918	2,590	2,479	1,338	1,366
	재무위험관리사	468	323	253	253	163
보험부문		827	795	827	697	838
	보험계리사	120	120	140	141	0
	손해사정사	424	428	457	461	743
	보험중개사	283	247	230	95	95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 최근 5년간 금융관련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금융투자부문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보험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투자부문의 경우,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및 위험관리전문인력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나머지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4년중 금융투자부문 전문인력수는 292,463명을 기록
- 보험계리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951명을 기록하였으며, 손해사정사는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1,993명으로 집계

<표 Ⅲ-47>

금융관련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융투자부문	317,629	314,045	290,901	294,974	292,463
펀드투자상담사	130,810	132,667	130,894	132,186	129,596
증권투자상담사	91,625	96,517	97,910	99,583	96,725
파생상품투자상담사	81,773	71,474	48,691	49,803	52,955
투자자산운용사	11,636	11,697	11,707	11,840	11,594
금융투자분석사	1,575	1,452	1,470	1,335	1,192
위험관리전문인력	210	238	229	227	240
보험부문	2,392	2,531	2,826	2,779	2,944
보험계리사	527	581	715	867	951
손해사정사	1,865	1,950	2,111	2,014	1,993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부문 금융인력 공급규모는 2016년 243,151명에서 2020년 177,48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보험부문은 2016년 3,348명에서 2020년 5,467명으로 증가할 전망
- 최근 4년간 자격시험 합격자 평균증가율을 이용하여 향후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였음.
 - 금융투자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평균증가율이 감소하면서 향후 금융인력 공급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보험부문의 경우 보험계리사가 향후 감소할 전망이나 손해사정사는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향후 금융인력 공급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Ⅲ-48>

금융인력 공급규모 : 자격증별 기준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융투자부문		243,151	223,268	205,940	190,785	177,484
	펀드투자상담사	123,512	120,503	117,568	114,704	111,909
	증권투자상담사	69,024	58,308	49,256	41,610	35,150
	파생상품투자상담사	42,037	37,454	33,370	29,732	26,490
	투자자산운용사	7,322	5,819	4,625	3,675	2,921
	금융투자분석사	1,109	1,070	1,032	996	961
	위험관리전문인력	146	114	89	69	54
보험부문		3,348	3,703	4,168	4,752	5,467
	보험계리사	599	475	377	299	237
	손해사정사	2,749	3,228	3,791	4,453	5,229

IV. 주요 이슈 집중분석

1.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

- 2015년 1/4~3/4분기중 취업자수는 2,586.7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05%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수는 78.8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5.85% 감소함.

<표 IV-1> 전산업 및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 및 증가율

(단위 : 천명, %)

구분	전산업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수	증가율	취업자수	증가율
2004	22,557		737	
2005	22,856	1.33	745	1.09
2006	23,151	1.29	786	5.50
2007	23,433	1.22	806	2.54
2008	23,577	0.61	821	1.86
2009	23,506	-0.30	766	-6.70
2010	23,829	1.37	808	5.48
2011	24,244	1.74	846	4.70
2012	24,681	1.80	842	-0.47
2013	25,066	1.56	864	2.61
2014	25,599	2.13	837	-3.13
2015 ¹⁾	25,867	1.05	788	-5.85

주 : 1) 2015년 취업자수는 2015년 1/4~3/4분기중 취업자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취업자수 통계를 이용하여 금융/보험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2015년의 경우 전산업은 1.05% 증가하였는데 이중 금융/보험업의 기여도는 -0.19%p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

금융/보험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¹⁾

(단위 : %, %p)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²⁾
금융/보험	0.04	0.18	0.09	0.06	-0.23	0.18	0.16	-0.02	0.09	-0.11	-0.19
전산업	1.33	1.29	1.22	0.61	-0.30	1.37	1.74	1.80	1.56	2.13	1.05

주 : 1) 기여도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은행 발간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석」 (2014년 개정판)을 참고하길 바람.

2) 2015년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2015년 1/4~3/4분기중 취업자수를 이용함.

<표 IV-3>

산업 대분류별 일자리 창출 기여도

(단위 : %, %p)

구분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전산업
2005	-0.04	-0.21	0.00	-0.02	1.60	1.33
2006	-0.14	-0.32	0.02	0.09	1.66	1.29
2007	-0.25	-0.19	0.04	0.07	1.53	1.22
2008	-0.13	-0.22	0.02	-0.16	1.10	0.61
2009	-0.16	-0.54	0.03	-0.39	0.76	-0.30
2010	-0.36	0.82	-0.08	0.14	0.86	1.37
2011	-0.12	0.26	-0.01	-0.01	1.62	1.74
2012	-0.07	0.06	0.00	0.09	1.71	1.80
2013	-0.03	0.32	0.06	-0.08	1.30	1.56
2014	-0.28	0.58	-0.03	0.17	1.69	2.13
2015 ¹⁾	-0.35	0.53	0.03	0.09	0.74	1.05

주 : 1) 2015년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2015년 1/4~3/4분기중 취업자수를 이용함.

<표 IV-4>

서비스업 세분류 업종별 일자리 창출 기여도

(단위 : %, %p)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¹⁾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0.027	0.026	0.000	0.017	0.025	-0.03	0.025	0.008	0.000	0.056	0.008
도매 및 소매업	-0.248	-0.153	-0.164	-0.179	-0.131	-0.085	0.243	0.210	-0.117	0.527	0.013
운수업	0.129	0.123	0.233	0.004	-0.004	0.140	0.218	0.198	0.134	-0.024	0.008
숙박 및 음식점업	0.004	-0.039	0.000	-0.021	-0.458	-0.200	-0.147	0.214	0.263	0.507	0.27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142	0.057	-0.073	-0.03	0.106	0.068	0.147	-0.012	-0.032	0.088	0.211
금융 및 보험업	0.035	0.179	0.086	0.064	-0.233	0.179	0.159	-0.016	0.089	-0.108	-0.191
부동산업 및 임대업	0.191	0.018	0.022	-0.068	0.047	0.072	-0.130	0.000	-0.004	0.092	0.0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84	0.245	0.091	0.230	0.373	0.166	0.327	0.276	-0.024	0.012	0.05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248	0.337	0.583	0.085	-0.127	0.336	0.264	0.124	0.231	0.028	0.23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102	0.044	-0.017	0.184	0.814	-0.306	-0.038	0.000	0.061	-0.036	-0.120
교육 서비스업	0.262	0.429	0.164	0.188	0.199	-0.136	-0.474	0.239	0.016	0.235	0.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217	0.184	0.255	0.435	0.662	0.659	0.663	0.363	0.628	0.555	0.24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64	-0.018	-0.035	0.205	-0.123	-0.043	0.155	-0.033	-0.069	0.008	0.1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217	0.210	0.311	0.026	-0.365	0.021	0.189	0.103	0.105	-0.052	-0.100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 생산활동	0.022	0.035	0.099	-0.047	-0.013	0.013	0.013	0.054	0.024	-0.223	-0.120
국제 및 외국기관	0.000	-0.018	-0.022	0.004	-0.013	0.000	0.000	-0.016	-0.008	0.028	0.017
서비스업 전체	1.596	1.658	1.533	1.097	0.759	0.855	1.616	1.712	1.297	1.692	0.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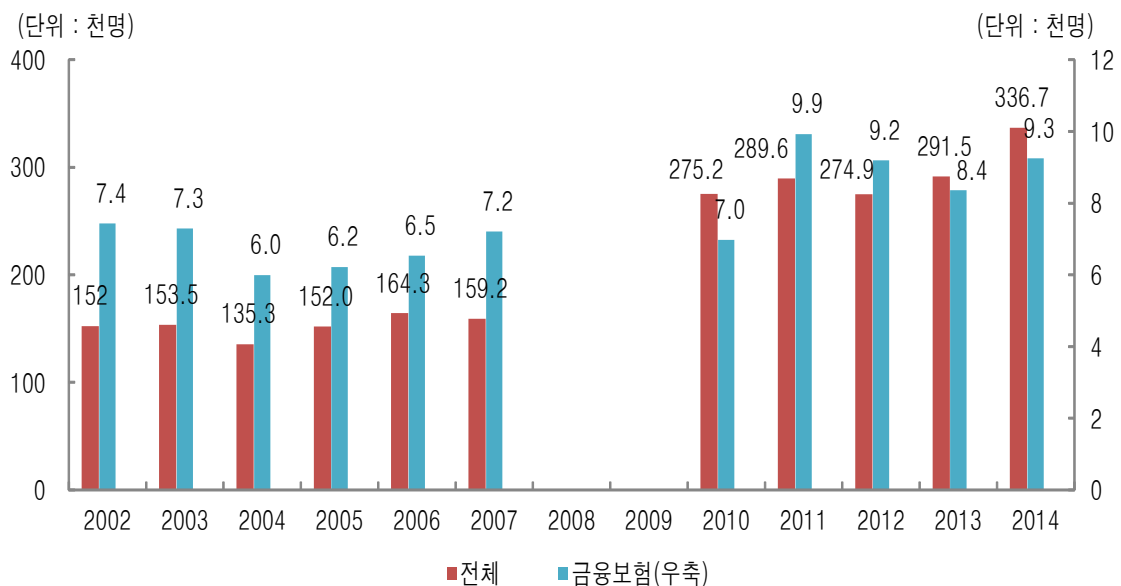
주 : 1) 2015년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2015년 1/4~3/4분기중 취업자수를 이용함.

2. 최근 10년간 금융권 고용 추세 분석

가. 신규고용

- 금융·보험분야의 입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중 연평균 6,781명에서 2010~14년중 연평균 8,743명으로 28.9% 증가
 - 전산업의 입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중 평균 152,766명에서 2010~14년 평균 293,570명으로 92.2% 증가
 - 금융·보험분야의 입직자는 2004년 6.0천명을 기록한 이후 2011년 9.9천명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세로 전환하였음.

<그림 IV-1> 입직자 추이



주 :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입직자는 2010~14년 평균 8,742.8명을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입직자는 2010~14년 평균 5,580.4명을 기록

- 전산업의 경우, 상용직 입직자는 2010~14년 평균 293,569.6명을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입직자는 2010~14년 평균 405,797.0명을 기록
- 한편 금융·보험분야의 임시일용직 입직자의 2010~14년 변동계수*는 0.28로 전산업의 임시일용직 입직자의 변동계수 0.11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변동계수 : 표준편차/평균

<표 IV-5>

종사상지위별 입직자 추이

(단위 : 명)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275,160	349,206	6,979	4,910
2011	289,560	434,719	9,926	7,128
2012	274,899	471,193	9,191	7,147
2013	291,515	401,472	8,365	2,939
2014	336,714	372,395	9,253	5,778

자료 : 고용노동통계

- 금융·보험분야의 입직률(당월입직자수/전월말근로자수×100)은 상용직의 경우 2010~14년 평균 2.0%로 전산업의 입직률 2.5%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임시·일용직의 경우 금융·보험분야의 입직률은 2010~14년 평균 33.5%로 전산업의 입직률 20.9%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6>

종사상지위별 입직률 추이

(단위 : %)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2.5	17.2	1.7	22.6
2011	2.5	22.1	2.3	43.7
2012	2.3	24.7	2.1	41.3
2013	2.4	20.7	1.9	18.1
2014	2.6	19.6	2.1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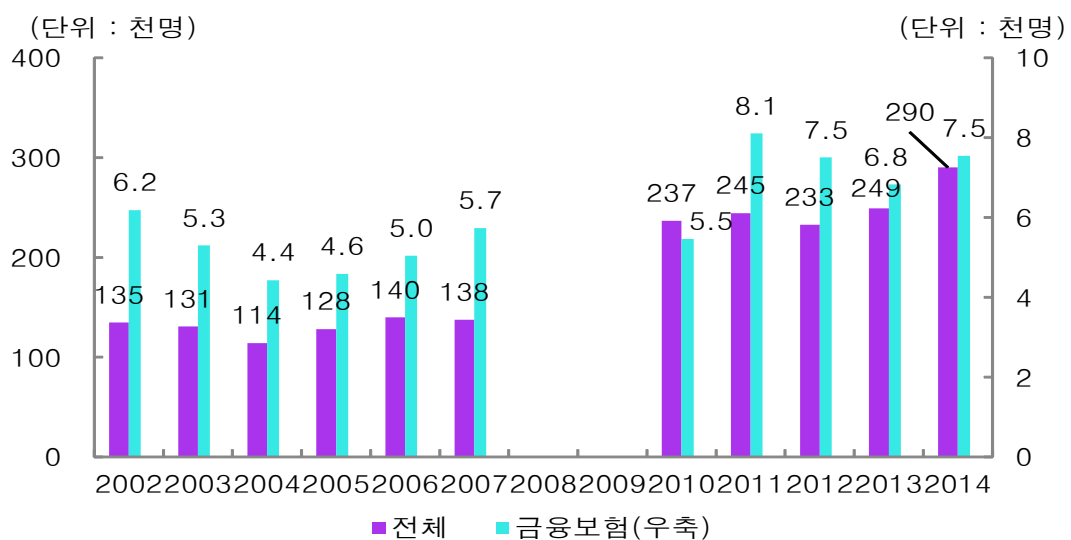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입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5,215.0명에서 2010~14년 평균 7,092.0명으로 36.0% 증가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전산업의 입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130,942.5명에서 2010~14년 평균 250,694.6명으로 91.5% 증가

<그림 IV-2>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입직자 추이



주 :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입
직자는 상용직의 경우 2010~14년 평균 7,092.0명이었으며, 임시일용
직의 경우 4,389.6명을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입직자는
2010년 5,465명을 기록한 이후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4년
7,544명을 기록
- 임시일용직의 경우 2011년 5,166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2013년 2,678명까지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 다시
5,64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

<표 IV-7>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종사상지위별 입직자 추이

(단위 : 명)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236,785	293,635	5,465	3,515
2011	244,506	379,107	8,107	5,166
2012	232,738	416,253	7,511	4,949
2013	249,274	361,301	6,833	2,678
2014	290,170	343,309	7,544	5,640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입직률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0~14년 평균 2.1%를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입직
률은 2010~14년 평균 29.1%를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전산업의 상용직 입직률은 2010년
2.7%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다가 2014년 2.8%로 소폭 상승하였으
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2012년까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모습

<표 IV-8>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종사상지위별 입직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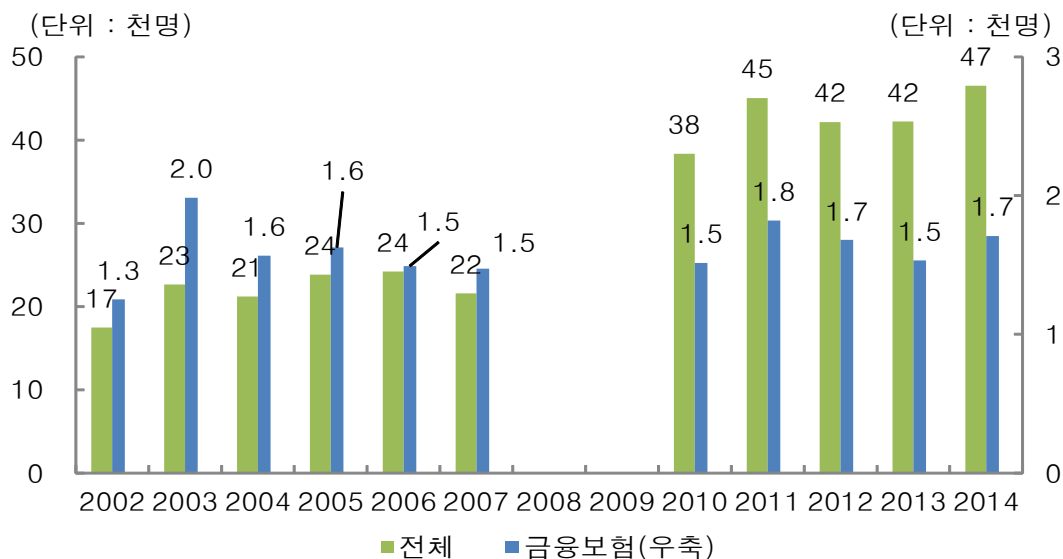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2.7	15.9	1.7	17.3
2011	2.6	20.7	2.3	34.9
2012	2.4	23.5	2.1	30.9
2013	2.5	20.2	2.0	18.0
2014	2.8	19.6	2.2	44.2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입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1,565.5명에서 2010~14년 평균 1,650.8명으로 5.4% 증가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전산업의 입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21,823.5명에서 2010~14년 평균 42,874.6명으로 96.5% 증가

<그림 IV-3>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입직자 추이



주 :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입
직자는 상용직의 경우 2010~14년 평균 1,650.8명이었으며, 임시일용
직의 경우 1,190.8명을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입직자는
2011년 1,819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1,709명으로 증가
- 임시일용직의 경우 2010년 1,395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2년 2,198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3~14년중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2014년 138명 기록

<표 IV-9>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종사상지위별 입직자 추이

(단위 : 명)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38,375	55,571	1,514	1,395
2011	45,054	55,612	1,819	1,962
2012	42,161	54,940	1,680	2,198
2013	42,240	40,171	1,532	261
2014	46,543	29,086	1,709	138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입직률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0~14년 평균 2.0%를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입직
률은 2010~14년 평균 86.6%로 높은 수치를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전산업의 상용직 입직률은 2010~14년
평균 2.0%를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2010~14년 평균
31.2%를 기록

<표 IV-10>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종사상지위별 입직률 추이

(단위 : %)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1.8	30.5	1.9	100.1
2011	2.1	40.8	2.2	129.6
2012	1.9	38.6	2.1	169.9
2013	1.9	27.0	1.9	19.6
2014	2.1	19.2	2.1	13.7

자료 : 고용노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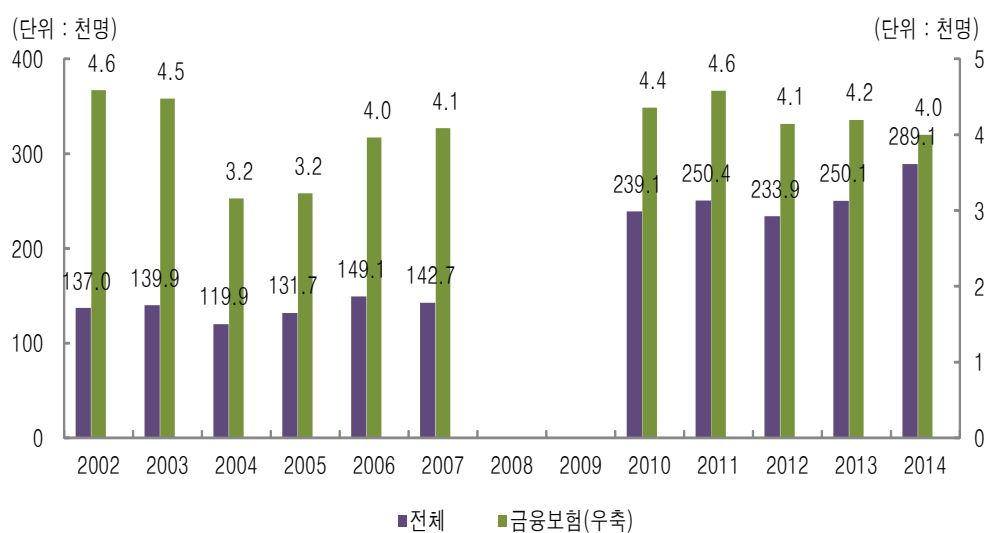
□ 금융·보험분야의 채용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3,916.2명에서 2010~14년 평균 4,254.6명으로 8.6% 증가

○ 전산업의 채용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136,724.2명에서 2010~14년 평균 252,516.8명으로 84.7% 증가

○ 금융·보험분야의 채용자는 2004년 3.2천명을 기록한 이후 2011년 4.6천명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세로 전환하였음.

<그림 IV-4>

채용자 추이



주 :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채용자는 2010~14년 평균 4,254.6명을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채용자는 2010~14년 평균 5,514.4명을 기록
- 전산업의 경우, 상용직 채용자는 2010~14년 평균 252,516.8명을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채용자는 2010~14년 평균 402,450.8명을 기록
- 금융·보험분야의 임시일용직 채용자의 2010~14년 변동계수*는 0.29로 전산업의 임시일용직 입직자의 변동계수 0.11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 * 변동계수 : 표준편차/평균
- 금융·보험분야의 종사상지위별 채용자의 추이를 보면, 2013년을 제외하곤 임시일용직 채용자가 상용직 채용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표 IV-11>

종사상지위별 채용자 추이

(단위 : 명)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239,114	343,965	4,359	4,833
2011	250,400	431,643	4,580	7,078
2012	233,850	468,344	4,143	7,099
2013	250,104	399,045	4,194	2,862
2014	289,116	369,257	3,997	5,700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채용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3,109.7명에서 2010~14년 평균 3,333.8명으로 7.2% 증가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전산업의 채용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118,947.0명에서 2010~14년 평균 218,044.2명으로 83.3% 증가

<그림 IV-5>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채용자 추이



주 :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채용자는 상용직의 경우 2010~14년 평균 3,333.8명이었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4,331.4명을 기록
 - 전산업의 경우, 상용직 채용자는 2010~14년 평균 218,044.2명이었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355,641.6명을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임시일용직 채용자는 대체로 상용직 채용자에 비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등락의 폭도 크게 나타남.

<표 IV-12>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종사상지위별 채용자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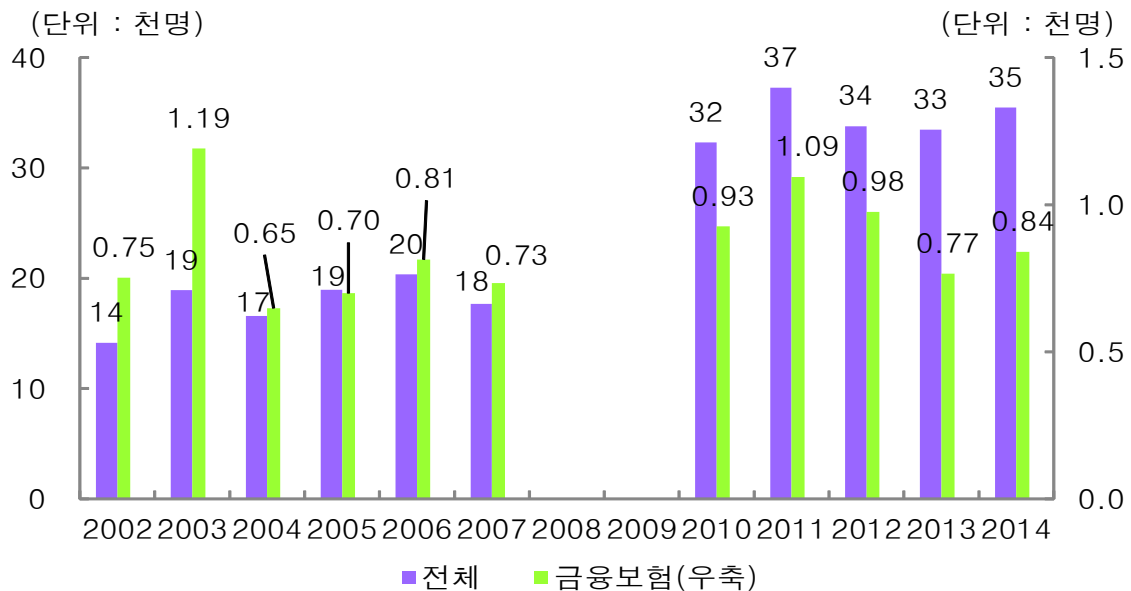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206,794	288,601	3,431	3,441
2011	213,110	376,305	3,487	5,131
2012	200,062	413,617	3,167	4,905
2013	216,633	359,184	3,427	2,615
2014	253,622	340,501	3,157	5,565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채용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806.5명에서 2010~14년 평균 920.6명으로 14.1% 증가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전산업의 채용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17,777.3명에서 2010~14년 평균 34,473.0명으로 93.9% 증가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채용자는 2003년 1,19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4년 840명 기록

<그림 IV-6>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채용자 추이



주 :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채용자는 상용직의 경우 2010~14년 평균 920.6명이었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1,183.0명을 기록

○ 전산업의 경우, 상용직 채용자는 2010~14년 평균 34,473.0명이었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46,809.2명을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임시일용직 채용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용직 채용자에 비해 많았으나, 2013년 이후 상용직이 임시일용직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3>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종사상지위별 채용자 추이

(단위 : 명)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32,320	55,364	927	1,392
2011	37,290	55,338	1,094	1,947
2012	33,789	54,727	976	2,194
2013	33,472	39,861	766	247
2014	35,494	28,756	840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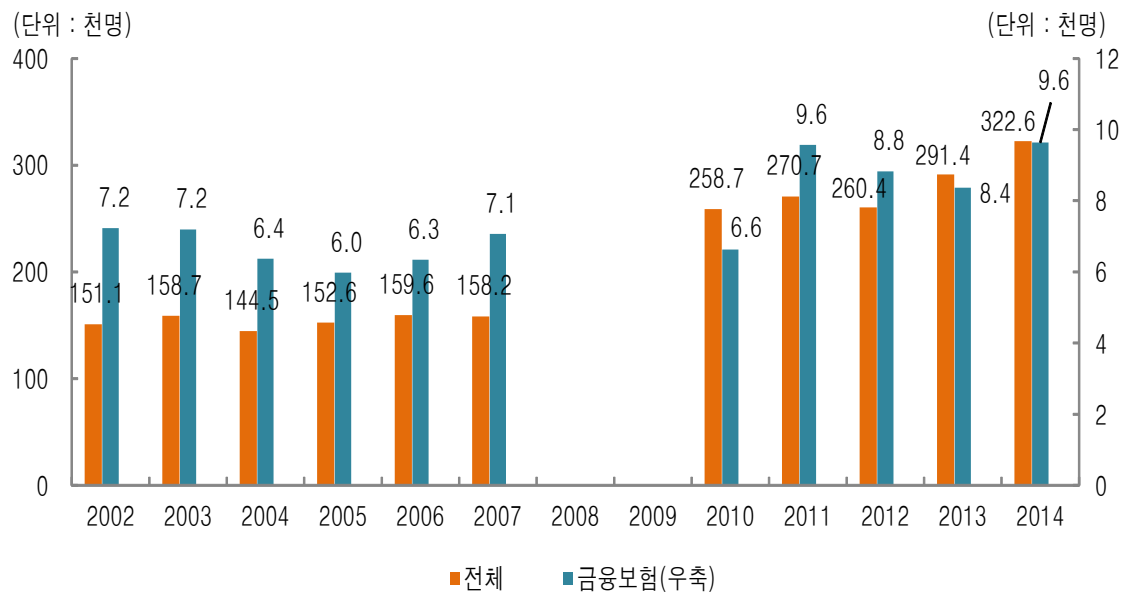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통계

나. 이·퇴직

- 금융·보험분야의 이직자는 상용근로자 기준 2002~07년 평균 6,697.3명에서 2010~14년 평균 8,606.8명으로 28.5% 증가
 - 전산업의 이직자는 상용근로자 기준 2002~07년 평균 154,121.2명에서 2010~14년 평균 280,751.4명으로 82.2% 증가
 - 금융·보험분야의 이직자는 2002년 7,233명에서 2005년 5,977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9,641명을 기록

<그림 IV-7>

이직자수 추이



주 :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입직자는 2010~14년 평균 8,606.8명을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입직자는 2010~14년 평균 5,371.6명을 기록

○ 전산업의 경우, 상용직 입직자는 2010~14년 평균 280,751.4명을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입직자는 2010~14년 평균 379,104.2명을 기록

○ 금융·보험분야의 임시일용직 입직자의 2010~14년 변동계수*는 0.35로 전산업의 임시일용직 입직자의 변동계수 0.13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변동계수 : 표준편차/평균

<표 IV-14>

종사상지위별 이직자 추이

(단위 : 명)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258,749	316,395	6,631	3,923
2011	270,684	405,459	9,570	6,059
2012	260,356	457,100	8,823	8,374
2013	291,384	352,700	8,369	2,834
2014	322,584	363,867	9,641	5,668

자료 : 고용노동통계

- 금융·보험분야의 이직률(당월이직자수/전월말근로자수×100)은 상용직의 경우 2010~14년 평균 2.0%로 전산업의 이직률 2.4%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임시·일용직의 경우 금융·보험분야의 이직률은 2010~14년 평균 32.4%로 전산업의 이직률 19.5%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5>

종사상지위별 이직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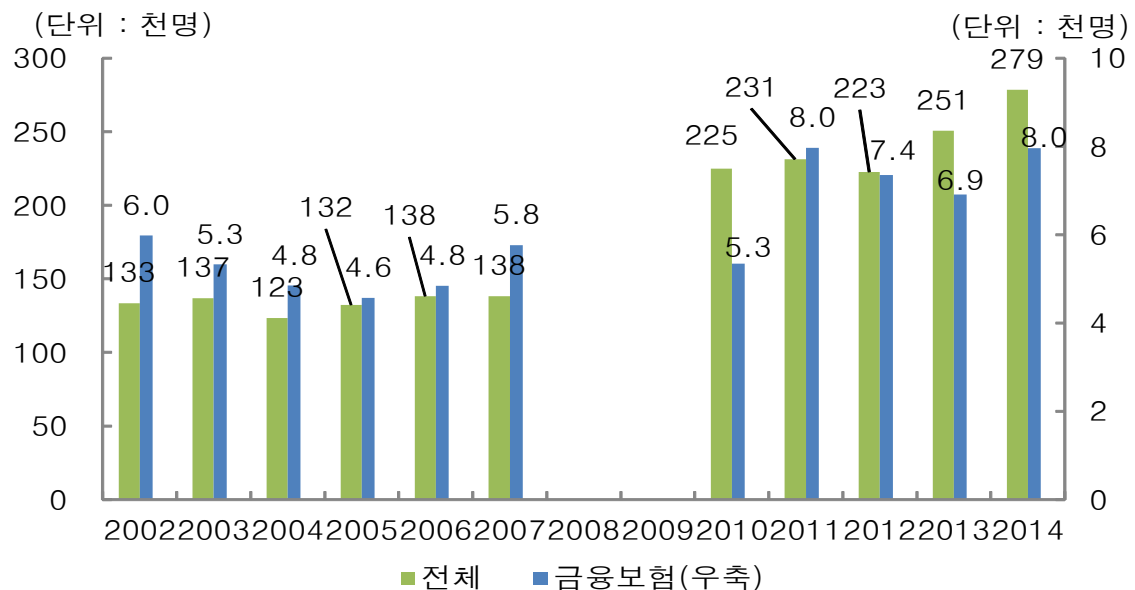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2.4	15.6	1.6	18.1
2011	2.4	20.6	2.2	37.1
2012	2.2	23.9	2.0	48.4
2013	2.4	18.2	1.9	17.4
2014	2.5	19.1	2.2	41.1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이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5,223.3명에서 2010~14년 평균 7,106.6명으로 36.1% 증가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전산업의 이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133,763.3명에서 2010~14년 평균 241,604.4명으로 80.6% 증가

<그림 IV-8>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이직자 추이



주 :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이직자는 상용직의 경우 2010~14년 평균 7,106.6명이었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4,184.6명을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이직자는 2010년 5,345명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4년 7,958명을 기록
- 임시일용직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하면서 5,959명

을 기록한 이후 2013년 2,395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4년 5,523명으로 증가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이직자가 전반적으로 임시일용직 이직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6>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종사상지위별 이직자 추이

(단위 : 명)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224,836	262,606	5,345	2,940
2011	231,204	345,747	7,970	4,106
2012	222,707	397,648	7,351	5,959
2013	250,677	320,890	6,909	2,395
2014	278,598	334,085	7,958	5,523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이직률은 2010~14년 평균 2.0%를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이직률은 2010~14년 평균 27.8%를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이직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4년 2.3%를 기록
- 임시일용직의 경우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3년 하락한 이후 2014년 43.3%를 기록

<표 IV-17>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종사상지위별 이직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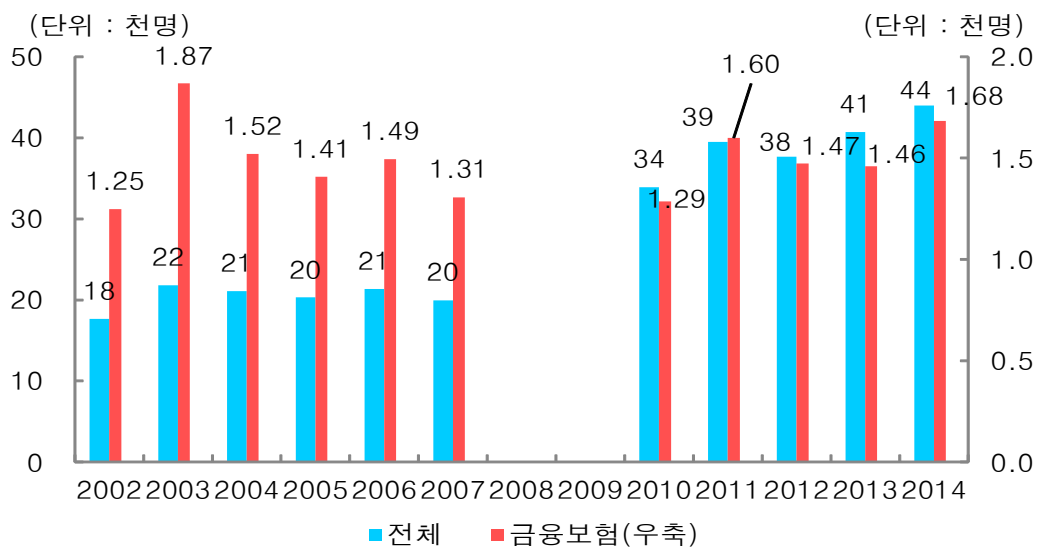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2.6	14.3	1.6	14.5
2011	2.5	18.9	2.2	27.7
2012	2.3	22.5	2.0	37.3
2013	2.5	17.9	2.0	16.1
2014	2.6	19.1	2.3	43.3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이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1,473.8명에서 2010~14년 평균 1,500.4명으로 1.8% 증가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전산업의 이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20,358.0명에서 2010~14년 평균 39,147.0명으로 92.3% 증가

<그림 IV-9>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이직자 추이



주 :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이직자는 상용직의 경우 2010~14년 평균 1,500.4명이었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1,187.2명을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이직자는 2011년 1,600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1,683명으로 증가
 - 임시일용직의 경우 2010년 983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2년 2,415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3~14년중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2014년 145명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이직자가 2011~12년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임시일용직 이직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8>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종사상지위별 이직자 추이
(단위 : 명)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33,913	53,789	1,286	983
2011	39,480	59,712	1,600	1,954
2012	37,649	59,452	1,473	2,415
2013	40,707	31,810	1,460	439
2014	43,986	29,783	1,683	145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이직률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0~14년 평균 1.8%를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이직률은 2010~14년 평균 86.7%로 높은 수치를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임시일용직 이직률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2013년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4년 14.3% 기록

<표 IV-19>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종사상지위별 이직률 추이

(단위 : %)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1.6	29.5	1.6	70.5
2011	1.8	43.9	1.9	129.0
2012	1.7	41.8	1.8	186.7
2013	1.9	21.4	1.8	33.0
2014	1.9	19.7	2.0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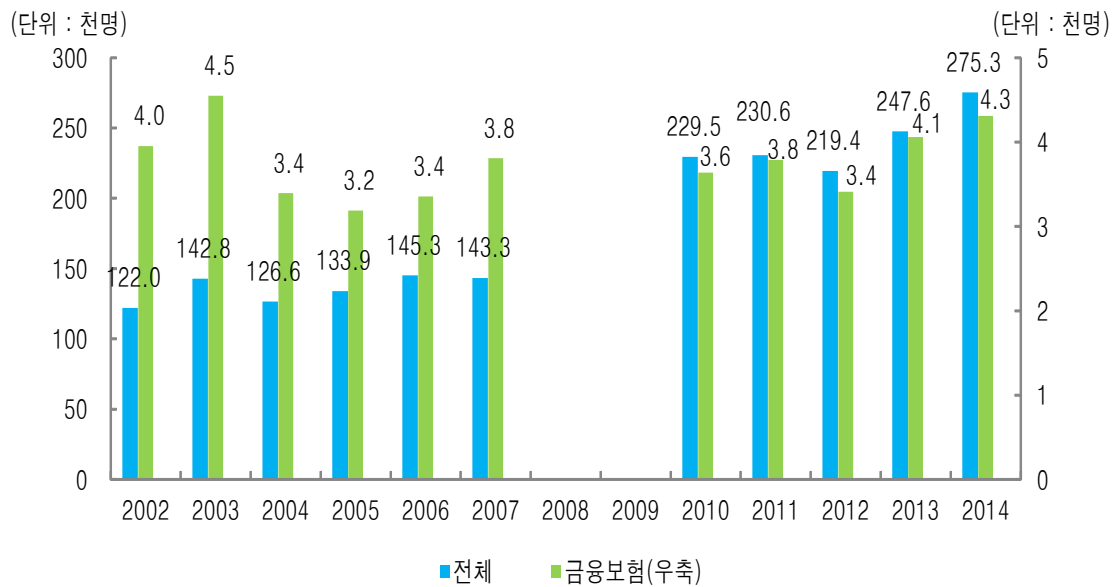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통계

다. 자발적·비자발적 퇴직

- 금융·보험분야의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3,707.5명에서 2010~14년 평균 3,840.8명으로 3.6% 증가
 - 전산업의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135,650명에서 2010~14년 평균 240,491.0명으로 77.3% 증가
 - 금융·보험분야의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는 2003년 4,548명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2년 이후 증가하면서 2014년 4,312명 기록

<그림 IV-10>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수 추이



주 :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자발적 퇴직자는 2010~14년 평균 3,039.8명을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자발적 퇴직자는 2010~14년 평균 754.0명을 기록

○ 전산업의 경우, 상용직 자발적 퇴직자는 2010~14년 평균 194,266.0명을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자발적 퇴직자는 2010~14년 평균 123,366.2명을 기록

○ 금융·보험분야의 임시일용직 자발적 퇴직자의 2010~14년 변동계수*는 0.16로 전산업의 임시일용직 자발적 퇴직자의 변동계수 0.10에 비해 크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변동계수 : 표준편차/평균

○ 금융·보험분야의 자발적 퇴직은 전반적으로 임시일용직에 비해 상용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20>

종사상지위별 자발적 퇴직 추이

(단위 : 명)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188,963	101,682	3,050	807
2011	192,422	125,533	3,260	796
2012	183,861	126,574	2,992	765
2013	192,127	123,228	3,044	874
2014	213,957	139,814	2,853	528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비자발적 퇴직자는 2010~14년 평균 801.0명을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퇴직자는 2010~14년 평균 4,441.0명을 기록

○ 전산업의 경우, 상용직 비자발적 퇴직자는 2010~14년 평균 46,225.0명을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퇴직자는 2010~14년 평균 245,630.6명을 기록

○ 금융·보험분야의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퇴직자의 2010~14년 변동계수*는 0.44로 전산업의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퇴직자의 변동계수 0.18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변동계수 : 표준편차/평균

○ 금융·보험분야의 비자발적 퇴직은 전반적으로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21>

종사상지위별 비자발적 퇴직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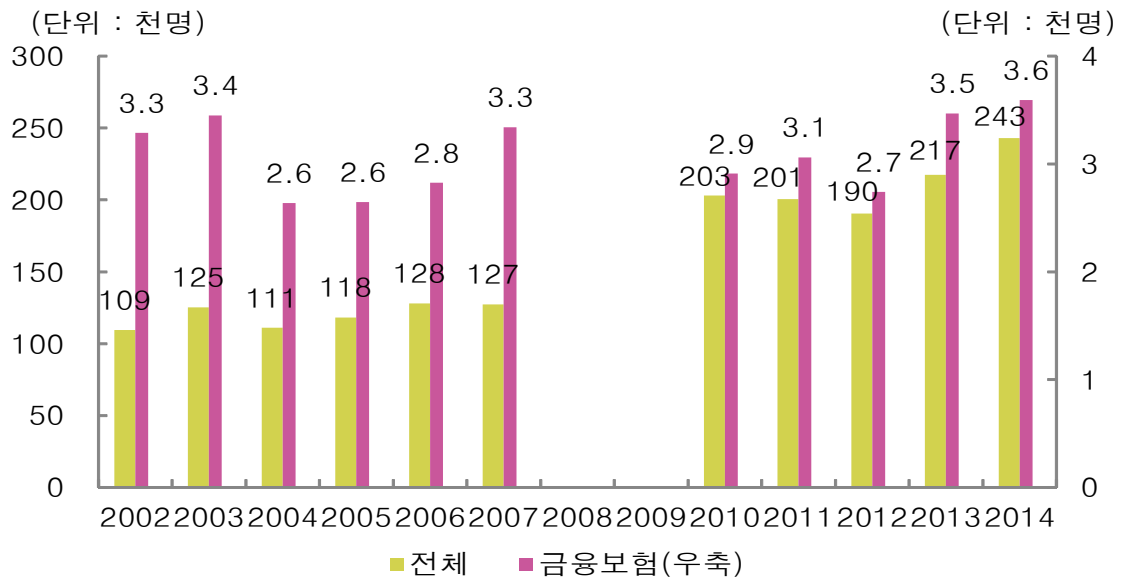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40,579	200,907	586	2,914
2011	38,153	270,594	527	5,022
2012	35,566	320,217	419	7,430
2013	55,488	221,347	1,014	1,811
2014	61,339	215,088	1,459	5,028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3,031.0명에서 2010~14년 평균 3,154.2명으로 4.1% 증가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전산업의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119,869.8명에서 2010~14년 평균 210,878.4명으로 75.9% 증가

<그림 IV-11>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수 추이



주 :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자발적 퇴직자는 상용직의 경우 2010~14년 평균 2,442.4명이었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650.2명을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자발적 퇴직자는 2010년 2,425명을 기록한 이후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4년 2,259명을 기록
- 임시일용직의 경우 2011년 636명을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467명으로 대폭 감소

<표 IV-22>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종사상지위별 자발적 퇴직 추이

(단위 : 명)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168,167	95,428	2,425	695
2011	169,607	117,916	2,614	636
2012	160,993	118,476	2,387	666
2013	170,137	113,876	2,527	787
2014	191,760	129,171	2,259	467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비자발적 퇴직자는 상용직의 경우 2010~14년 평균 711.8명이었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3,375.0명을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미만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비자발적 퇴직자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과 2014년 큰 폭으로 증가
 - 임시일용직의 경우 2012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다가 2013년 소폭 줄었으나, 2014년 4,953명으로 대폭 증가

<표 IV-23> 사업체규모 300인 미만 종사상지위별 비자발적 퇴직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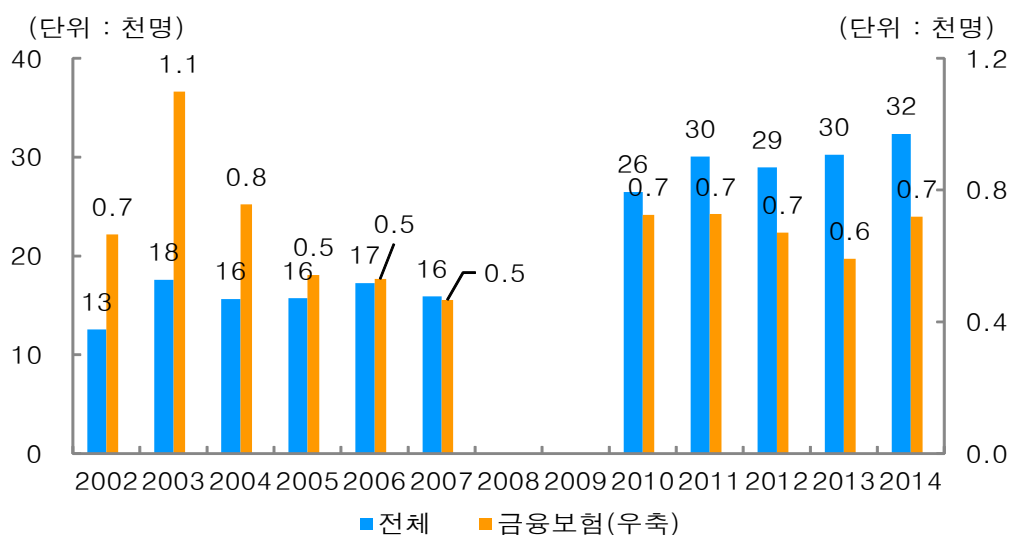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34,895	154,327	485	2,059
2011	30,924	219,135	446	3,259
2012	29,475	269,689	353	5,128
2013	47,246	199,556	940	1,476
2014	51,188	196,480	1,335	4,953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676.5명에서 2010~14년 평균 686.6명으로 1.5% 증가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전산업의 입직자는 상용근로자기준 2002~07년 평균 15,780.3명에서 2010~14년 평균 29,612.6명으로 87.7% 증가

<그림 IV-12>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수 추이



주 :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자발적 퇴직자는 상용직의 경우 2010~14년 평균 597.6명이었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103.8명을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자발적 퇴직자는 2010년 625명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4년 595명으로 감소
 - 임시일용직의 경우 2011년 160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2014년 61명을 기록

<표 IV-24>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종사상지위별 자발적 퇴직 추이

(단위 : 명)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20,796	6,254	625	112
2011	22,815	7,617	646	160
2012	22,868	8,098	605	99
2013	21,989	9,352	517	87
2014	22,197	10,643	595	61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비자발적 퇴직자는 상용직의 경우 2010~14년 평균 89.0명이었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1,066.2명을 기록
- 사업체규모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분야의 상용직 비자발적 퇴직자는 2010년 100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124명으로 증가
 - 임시일용직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2년 2,302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3~14년중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2014년 75명 기록

<표 IV-25>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종사상지위별 비자발적 퇴직 추이

(단위 : 명)

구분	전체		금융·보험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0	5,684	46,579	100	855
2011	7,229	51,459	81	1,763
2012	6,091	50,528	66	2,302
2013	8,242	21,792	74	336
2014	10,152	18,608	124	75

자료 : 고용노동통계

3. 금융권 수익과 고용간의 상관관계 분석

가. 과거 3년간* 수익성 대비 업권별 고용현황

* 2015년 10월 현재 2015년 금융회사 수익성 자료가 발표되지 않음에 따라 동 분석은 2012년, 2013년, 2014년 기간을 대상으로 함.

□ 2014년 금융권 수익성은 2013년에 비해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국내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탁, 신용카드, 상호저축, 농협 등이 2014년 당기순이익이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반면 리스사, 할부금융사는 당기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특히 할부금융사는 당기순이익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반면에 업권별로 고용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취업자수 감소가 나타나는 업권이 많았음.

○ 국내은행, 농협, 리스사, 상호저축, 신용카드, 할부금융은 전년에 비해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탁은 전년에 비해 취업자수가 감소하였음.

○ 특히 생명보험은 2013년 2.1조원에서 2014년 3.2조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는 2,269명이 감소함.

□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 수익과 고용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고용조정(labor adjustment)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임.

○ 수익성 악화시 기업들은 일차적으로는 internal margin(예: 초과근로 등)으로 대응하고 이후에 external margin(예: 신규고용 및 해고)로 대응하기 때문임.

<표 IV-26>

주요 금융업권별 수익성지표 및 고용인원

(단위 : 백만원, %, 명)

구분		2012	2013	2014
국내은행	세후당기순이익	8,681,271	3,882,325	6,024,485
	자기자본순이익률(ROE)	6.17	2.69	4.05
	명목순이자마진(NIM)	2.10	1.87	1.79
	총임직원	113,294	118,340	118,703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3,382,065	2,093,193	3,236,983
	운용자산이익율	4.76	4.61	4.51
	신계약율	19.31	13.31	17.62
	임직원	28,615	30,380	28,111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2,446,911	1,491,910	2,330,256
	운용자산이익률	4.51	4.03	3.97
	경과손해율	82.69	84.05	85.03
	임직원	31,521	33,479	33,047
신용카드	당기순이익	1,308,586	1,699,676	2,142,736
	총자산순이익률(ROA)	1.67	2.08	2.54
	총자산경비율	3.23	3.30	3.16
	총임직원	10,668	10,807	11,087
리스사	당기순이익	227,993	488,921	389,324
	총자산순이익률(ROA)	0.75	1.53	1.14
	총자산경비율	1.50	1.40	1.51
	총임직원	2,587	2,747	2,866
할부금융사	당기순이익	545,872	538,820	386,377
	총자산순이익률(ROA)	1.25	1.18	0.82
	총자산경비율	2.47	2.48	2.56
	총임직원	4,006	4,349	4,465
신탁	당기순이익	173,127	131,634	189,590
	총자산순이익률(ROA)	0.31	0.23	0.31
	총자산경비율	1.75	1.76	1.67
	총임직원	18,263	17,966	17,612
농협	당기순이익	1,411,895	1,186,824	1,235,219
	총자산순이익률(ROA)	0.52	0.42	0.42
	총자산경비율	0.98	0.99	0.97
	총임직원	92,300	93,134	93,856
상호저축	당기순이익	-1,105,108	-507,963	471,769
	총자산순이익률(ROA)	-2.43	-1.31	1.26
	자기자본순이익률(ROE)	-29.85	-12.35	11.26
	총임직원	7,928	7,337	7,971

주 : 1)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2013년부터 결산월이 3월에서 12월로 변경됨.

2)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월이 6월이어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의 자료는 2005년, ..,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의 자료는 2014년으로 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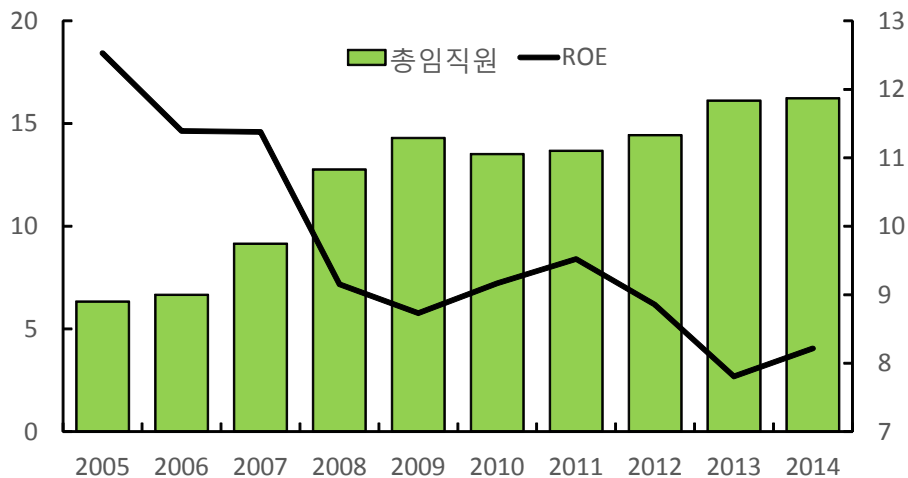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나. 주요 금융업권 수익과 고용간의 관계 분석

- 지난 10년간 국내은행의 수익성과 고용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은행은 ROE, NIM, 세후당기순이익 등 주요 수익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왔음.

<그림 IV-13> 국내은행의 ROE와 총임직원수 추이

(단위 : 만명, %)



자료 : 금융감독원

<표 IV-27> 국내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와 총임직원수 추이

(단위 : 백만원,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세후당기순이익	13,634,287	13,326,868	15,047,748	7,744,313	6,930,037
ROE	18.42	14.64	14.60	7.17	5.76
NIM	2.81	2.61	2.44	2.30	1.98
총임직원	89,011	89,972	97,447	108,283	112,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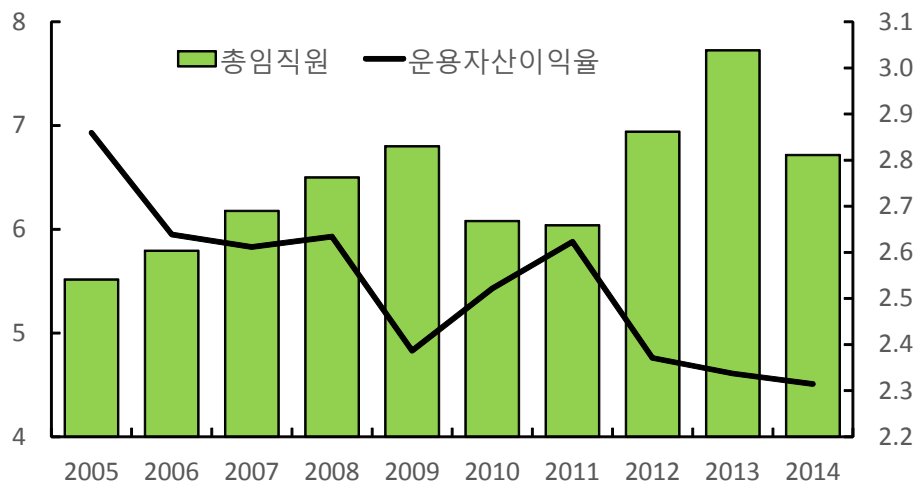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후당기순이익	9,313,418	11,750,993	8,681,271	3,882,325	6,024,485
ROE	7.22	8.40	6.17	2.69	4.05
NIM	2.32	2.30	2.10	1.87	1.79
총임직원	110,529	111,009	113,294	118,340	118,703

□ 지난 10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고용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은 2005년에는 2.1조원에서 2014년에는 3.2조원으로 증가하고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왔음.

○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4년에는 고용감소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운용자산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그림 IV-14>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총임직원수 추이

(단위 : 만명, %)



자료 : 금융감독원

<표 IV-28>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수익성 지표와 총임직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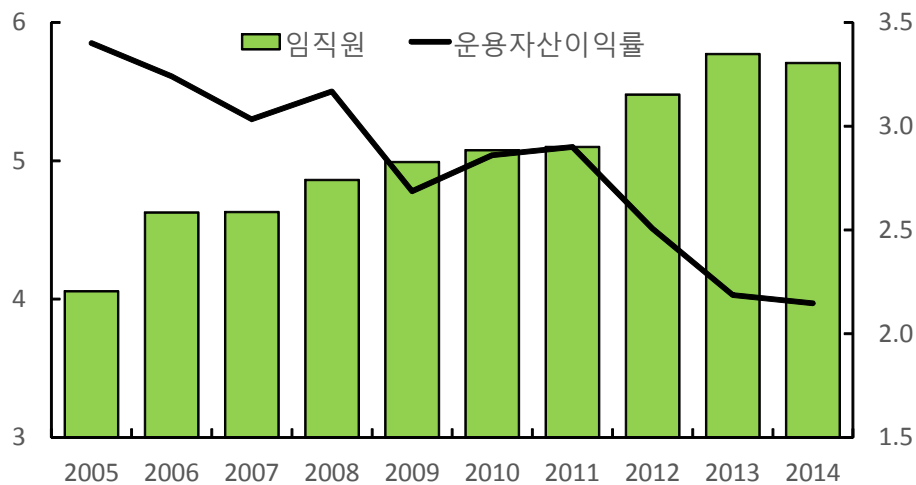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당기순이익	2,105,135	2,097,247	1,947,473	2,105,401	570,278
운용자산이익율	6.93	5.95	5.83	5.93	4.83
신계약율	27.30	27.94	24.52	25.50	23.95
총임직원	25,412	26,033	26,899	27,623	28,301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당기순이익	2,454,911	4,008,956	3,382,065	2,093,193	3,236,983
운용자산이익율	5.43	5.88	4.76	4.61	4.51
신계약율	23.11	20.13	19.31	13.31	17.62
총임직원	26,681	26,589	28,615	30,380	28,111

- 지난 10년간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고용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05년에는 1.1조에서 2014년에는 2.3조원으로 대체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 왔음.
- 그러나 운용자산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그림 IV-15>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총임직원수 추이
(단위 : 만명, %)



자료 : 금융감독원

<표 IV-29> 손해보험회사의 주요 수익성 지표와 총임직원수 추이
(단위 : 백만원,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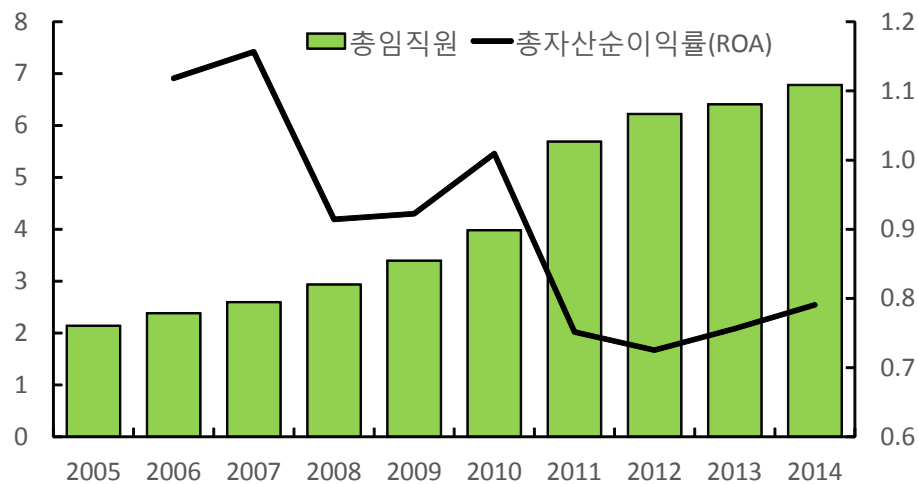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당기순이익	1,147,394	1,197,120	1,067,835	1,678,696	1,310,668
운용자산이익률	5.85	5.61	5.30	5.50	4.78
경과손해율	77.34	77.46	78.28	75.98	76.35
임직원	22,051	25,842	25,865	27,415	28,279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당기순이익	1,541,345	2,031,448	2,446,911	1,491,910	2,330,256
운용자산이익률	5.04	5.10	4.51	4.03	3.97
경과손해율	77.74	79.23	82.69	84.05	85.03
임직원	28,838	28,998	31,521	33,479	33,047

- 지난 10년간 신용카드사의 수익성과 고용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신용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05년 0.3조에서 2014년에는 2.1조원으로 대체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왔음.

<그림 IV-16> 신용카드사의 총자산이익율과 총임직원수 추이

(단위 : 만명, %)



자료 : 금융감독원

<표 IV-30> 신용카드사의 주요 수익성 지표와 총임직원수 추이

(단위 : 백만원,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당기순이익	342,352	2,163,731	2,443,866	1,719,918	1,860,558
총자산순이익률(ROA)	1.20	6.91	7.42	4.19	4.30
총자산경비율	4.67	4.70	4.73	4.41	4.04
총임직원	7,607	7,786	7,947	8,201	8,546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당기순이익	2,726,704	1,532,424	1,308,586	1,699,676	2,142,736
총자산순이익률(ROA)	5.46	2.02	1.67	2.08	2.54
총자산경비율	4.10	3.27	3.23	3.30	3.16
총임직원	8,985	10,267	10,668	10,807	11,087

V. 맺음말

1. 2014년 조사와의 비교

□ 2015년 조사에서는 2014년과 비교해 볼 때, 금융회사수와 금융회사 취업자수는 모두 감소함.

○ 금융회사 수는 2014년에는 1,365개에서 2015년에는 1,339개로, 금융업 취업자수는 286,218명에서 285,029명으로 줄어듦.

○ 업권별로 보면 금융회사수는 보험, 자산운용/신탁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줄어든 반면, 취업자수는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은행, 보험, 증권/선물, 신탁에서는 감소하였음.

- 특히 보험에서 1,502명, 증권/선물에서는 1,684명이 감소하여, 동 업권에서의 인력구조조정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V-1>

국내 금융기관 인력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2014년 조사		2015년 조사	
	금융회사수	취업자수	금융회사수	취업자수
은행	58	139,430	57	138,619
보험	56	61,818	57	60,316
증권/선물	68	37,639	63	35,955
자산운용/신탁	97	5,731	98	6,111
상호저축	87	7,141	79	8,151
여신전문	73	24,728	72	26,235
신탁	926	9,731	913	9,642
총 계	1,365	286,218	1,339	285,029

- 고용형태별로 보면 2015년 정규직 비중은 88.1%로 2014년에 비해 하락하였는데, 이는 금융권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V-2> 고용형태별 인력 비중

(단위 : %)

구 분	2014년 조사	2015년 조사
정규직	88.6	88.1
비정규직	11.4	11.9
계	100.0	100.0

- 급여수준별로 보면 1억원 이상 비중이 줄어든 반면, 1억원 미만 비중은 늘어남.

- 정년연장과 관련된 임금피크 도입,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에 따른 상여금 감소 등으로 1억 이상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표 V-3> 급여수준별 인력 비중

(단위 : %)

구 분	2014년 조사	2015년 조사
2,500만원 미만	9.8	10.3
2,500~5,000만원 미만	29.1	28.8
5,000~7,500만원 미만	24.1	24.4
7,500만원~1억 미만	17.9	19.8
1억~1.5억 미만	16.6	14.8
1.5억 이상	2.5	1.8
계	100.0	100.0

□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는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늘어난 것을 나타냄.

○ 정년연장 등으로 50대 이상 근로자의 퇴직이 늦춰지면서 50대 이상 비중이 늘어나고 20대 청년층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이와 같은 정년연장 등에 따른 연령별 구조변화로 인해 근무기간별 인력비중에 있어서도 20년 이상 장기근무 근로자의 비중이 22.0%에서 23.7%로 늘어남.

<표 V-4>

연령별 인력 비중

(단위 : %)

구 분	2014년 조사	2015년 조사
20대 미만	0.8	0.8
20대	17.6	16.3
30대	38.8	38.2
40대	31.5	31.6
50대 이상	11.3	13.0
계	100.0	100.0

<표 V-5>

근무기간별 인력 비중

(단위 : %)

구 분	2014년 조사	2015년 조사
5년 미만	37.7	37.4
5~10년 미만	19.0	18.9
10년 이상	43.3	43.7
10~15년 미만	10.4	10.0
15~20년 미만	10.9	10.0
20년 이상	22.0	23.7
계	100.0	100.0

2. 정책적 시사점

가. 금융권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본 조사에 따르면 2015년중 금융업 일자리는 금융인력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하락하였음.
 - 2015년 1/4~3/4분기까지 전산업 취업자 수는 2,586.7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05%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78.8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5.85% 감소함.
 - 이러한 경향은 2014년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2014년중에는 전체 취업자수는 2.13% 증가하였으나, 금융업 일자리는 3.13%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금융업 감소세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임.
 - 이에 따라 2015년 1/4~3/4분기까지 금융/보험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0.19%p로, 2014년 기여도인 -0.11%p보다 낮아져,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금융권 일자리가 전반적인 일자리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권 일자리 부진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 금융권 일자리는 정규직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아서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금융권 임금수준(2014년 금융권 월평균 임금수준 5,233,974원)도 타 업종(2014년 전 산업 월평균 임금수준 3,189,995원)에 비해 높아서 타 업종에 비해 선호되는 일자리라고 판단됨.

<표 V-6>

산업별 임금수준

(단위 : 원)

구분	2012	2013	2014
전 산업	2,995,471	3,110,992	3,189,995
광업	3,469,640	3,556,573	3,480,231
제조업	3,220,594	3,371,371	3,505,897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5,387,731	5,542,420	5,553,594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654,123	2,742,982	2,811,776
건설업	2,272,615	2,414,477	2,496,551
도매및소매업	3,122,341	3,168,003	3,206,051
운수업	2,589,051	2,731,605	2,804,531
숙박및음식점업	1,738,495	1,772,354	1,784,850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851,065	3,936,132	3,904,990
금융및보험업	4,988,116	5,057,579	5,233,974
부동산업및임대업	2,194,079	2,269,288	2,322,52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111,929	4,242,629	4,418,76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789,203	1,882,729	1,923,960
교육서비스업	3,123,039	3,261,110	3,374,56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608,498	2,661,753	2,699,561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211,374	2,326,067	2,398,211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228,442	2,226,196	2,248,959

주 : 1)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자료 : 고용노동부

□ 따라서 금융권에서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동 영역에서의 금융인력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

단됨.

- 인터넷 보급과 함께 인터넷 뱅킹이 등장하게 되고, 스마트 폰 개발로 인해 모바일 뱅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음.

○ 또한 우리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업 활성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금융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특히 금융권 일자리 창출은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청년들은 초기 일자리 질이 전 생애 일자리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기 보다는 필사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유휴인력으로 남아 있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정년연장으로 인해 세대간 일자리 경합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고용문제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과 고령층간 고용은 대체관계라기 보다는 보완관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등의 경우에는 연공서열식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체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고 판단됨.

나.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국제도시들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있었기 때문임.

○ 물론 뉴욕, 런던, 도쿄 등은 정책당국의 정책적인 육성에 의해 금융산업이 발전했다기 보다는 전통적인 경제·무역·상업도시에서

서 자연스럽게 금융산업도시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홍콩, 싱가포르 등은 해당국 정부가 금융산업 자체가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의 노력을 기우린 결과 지금과 같은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음.

□ 정부에서 추진중인 금융개혁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유도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임.
- 금융권이 경쟁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의 자율성, 창의성 및 역량제고 필요
- 이를 위해 코치, 과도한 검사·제재 등 감독관행을 심판, 컨설팅 검사로,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영업 규제를 과감히 폐지·개선하여야 함.

□ 따라서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금융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이 발달할수록 우수한 금융인력이 유입되고, 이에 따라 우수한 금융인력이 많이 확보되면서, 금융산업도 더욱 발달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선순환 고리는 자연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우며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산업 발전노력이 적극 추진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됨.
- 정부와 금융권이 금융업에서의 장기적인 비전과 성장가능성을 제시하게 되면 우수한 청년인력이 금융권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중에서 특히 핀테크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금융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인 핀테크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글로벌 관점의 핀테크 생태계 구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이외에 해외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까지도 포괄하는 생태계 구축이 경쟁력 제고에 긴요함.
- 또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
- 현재 대부분의 기업 중기 자금 조달은 은행대출에 의존
 - 이는 기업에게 자기자본 대비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매매위주의 편중된 수익구조를 야기
 -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업의 성장, 투자의 회수 등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어야 되는 바,
 - 사모펀드 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성과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등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금융권이 전통적인 건전성 위주의 수익창출 방식에 안주할 경우 수익기반이 취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은행은 취약한 지배구조, 단기성과주의, 문책 위주의 금융감독정책, 기술 및 신용 평가인프라 부족 등으로 안전자산 중심의 보수적 자금운용 관행이 지속
 - 그 결과 리스크가 높은 투자나 대출 등 위험자산 취급을 기피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소홀하였음.
 - 따라서 금융회사가 스스로 혁신역량을 키워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함.

- 이처럼 금융산업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혁신적인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가 반드시 필요함.
- 금융회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스스로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혁신을 선도하는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 또한 금융회사의 실적이 악화되어도 인건비를 줄일 수 없는 경직적인 구조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연구에서도 국내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 등 주요 수익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따라서 성과주의 확산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라. 기술금융 및 금융보안 인력 확충

- 효과적인 기술금융체계 마련은 거시경제 측면이나 사회경제 측면, 금융발전 측면, 글로벌 경쟁력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기술금융의 발전은 신기술(new & innovative technology)을 통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
- 또한 기술금융의 확산은 리스크 자본(risk capital)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위험분담을 통한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을 주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
- 기술금융의 체계화는 중장기 자금조달과 위험자본의 조달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친화적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촉진
- 기술금융시스템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소규모개방경제(small-open economy)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필요

- 향후 기술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은 중장기 경제성장 기반 마련에 있어서 금융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新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나타난 기술금융 인력은 전체 금융 인력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음.
 - 비록 각 금융기관들이 기보 등 외부의 기술평가 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기술금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기술평가 기관인 슈바인바이스 재단은 기술이전·사업화, 계약관리·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Horizontal Expert)와 특정기술·마케팅·재무 등에 정통한 전문가(Vertical Expert)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규직 1,572명*, 전문계약직 3,697명을 채용하고 있음.
 - * 자료 한계상 기술금융 외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까지 포함한 수치임.
 - 영국의 British Technology Group은 895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중에는 과학자 엔지니어,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인력이 포함되어 있음.
 - * 자료 한계상 기술금융 외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까지 포함한 수치임.
-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관련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정보보호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용정보와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
 - 또한 신용정보의 처리 절차를 엄격화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개별적 손해배상 도입 및 제재 상향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

○ 그리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

□ 금융보안과 관련된 신뢰성 회복을 위해 금융권도 금융보안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의 금융인력 재교육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금융인력조사 개선방안

가. 조사표 개선

□ 필수항목은 시계열 consistency를 위해 기존대로 유지하되, 비필수항목에 대해서는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설문지 작성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면 금융회사들의 응답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예를 들면 영어 등은 최근 기업들이 입사시에도 요구하지 않는 자료임을 감안하여 설문항목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직무연수, 어학능력, 현직무5년연속근무자 등에 대해서도 남녀 구분하여 인력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남녀 구분이 분석상 중요하지 않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남녀구분없이 총원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금융회사들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서 채용공고시 남녀를 구분하여 공고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에서도 남녀를 구분하여 작성하기가 쉽지 않음.

□ 또한 질문이 비슷한 항목은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 규모'는 직무별로 세분화

된 질문을 하고 있고, '입직자예상수'는 신규/경력직을 구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첩되지는 않으나, 두 항목 모두 향후 신규채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비슷한 질문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기술금융 등 주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설문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나. 조사방식 개선

□ 인터넷상에 금융인력조사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개별 금융회사가 조사표를 직접 입력하되 부정확하게 입력된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설문 인프라를 웹 공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각 금융회사들이 엑셀파일에 기입을 하고 있는데, 엑셀로서는 항목간의 연결된 합산 등을 통해 입력된 자료의 정확성을 체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항목별로 합산이 맞지 않는 경우 사후검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즉 금융회사에서 작성해 온 자료를 취합할 때 부분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입력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설문 인프라를 웹 공간에 구축하게 되면 금융인력조사가 매년 거듭될수록 누적되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금융인력조사 시점을 현행 10월~12월에서 1개월 연장한 9월~12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5년의 경우 10월 31일 금융회사 설문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금융회사가 있

는데다, 제출된 조사자료중에서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및 추가 요청을 하였음.

- 이에 따라 분석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반정도로 짧아져서 분석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였음.
- 따라서 8월말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소한 2개월 정도는 분석 및 연구기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금융인력조사 완료 이후 조사대상 금융회사에게 동 조사 결과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참여도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주요 관심항목 추가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조사항목 추가

- 국내 금융회사는 가계와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금융수요 충족과 글로벌 금융회사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해외진출에 나설 필요가 있음.
- 특히 국내 금융회사들은 실물경제 저성장, 금융시장 포화에 따른 경쟁격화 등으로 국내 영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지점, 사무소, 현지법인 형태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자체 지점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적구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금융인력조사에서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인력과 현지채용 금융인력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부록> 2015년 금융인력 통계표 작성요령

1. 직무해설표

이번 금융인력 통계조사는 금융권 종사자의 직무를 업무 특성에 따라 7가지 대분류로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금융기관의 직무분류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직무의 경우에도 기관별로 그리고 업권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직무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금융업 직무 해설표**(<표 1> 참조)에 기재하였으니 통계표를 작성하실 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통계 조사표

통계 조사표 파일에는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조사표**」와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 「**부가조사표**」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조사표**」: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조사
-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 향후 1년간(2015. 9 ~ 2016. 8)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각각 조사
- 「**부가 조사표**」: 금융기관종사자 및 이직자 현황, 채용계획 및 실제 채용규모, 시간제 근로자, 기술금융관련 종사자를 조사합니다.

직무 해설표에서 제시한 직무 개념을 참조하여 각 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수를 각 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계적 개념에 있어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한 사람이 중복 업무를 수행할 때 : 중심업무 또는 비중이 큰 업무를 선택

3. 통계 조사표 작성 요령

- 1) **총원**이라 함은 금융회사에서 일정한 근로조건하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상근임원 포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인원(비상근 임원, 사외이사 등)**이나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은 제외됩니다.
- 2) **고용형태**에서 임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주시고, 금융회사에 따라 내부적인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주십시오.
 - 정 규 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상근임원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정규직 포함)
 - 비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피크타이머, 인턴 등)

- 3) **급여**는 성과급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세전)을 의미하며, 급여 산정은 **전년도 연말 정산**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 인력의 경우 예상되는 급여수준을 반영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 4) **연령**은 **만나이** 기준입니다.
- 5) **입사 후 사내 총 근무기간**은 입사일 이후 조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휴직, 파견 등 기간 포함) ***근무경력별**(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 6) **현 직무 5년 연속 근무자**는 현재 직무에 연속해서 5년 이상 근무중인 직원을 의미합니다. 간헐적으로 현 직무에 근무한 총 합계가 5년 이상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7) **직무연수**는 연수의 1회 지속기간이 사내와 외부연수인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연수인 경우 3주 이상 연수를 이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기적으로 받은 연수의 총합이 3개월(사내, 외부연수) 또는 3주(해외연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8) **학력**의 경우 < 표 3 >의 “**교육통계 계열별 학과수**”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고졸 이하 : 고졸에 포함
 - 대졸 : **경영·경제**, 법률, 인문·사회과학, **컴퓨터·통신(통계학포함)**, 공학(**컴퓨터·통신제외**), 자연(**통계학제외**), 기타(본 분류 외 여타 전공 이수 직원)
 - 대학원 : MBA(**한국형MBA*** 졸업자 또는 해외MBA이수자), **경영·경제(법률포함)**, 문·사회과학, **컴퓨터·통신(통계학포함)**, 공학(**컴퓨터·통신제외**), 기타(본 분류 외 여타 전공 이수 직원)
 - * **한국형 MBA(14개)** : 건국·고려·동국·서강·서울·성균관·숙명여·연세·이화여·전남·중앙·한양·인하(물류)대 경영전문대학원 및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 9) **어학능력(영어)**은 TOEIC을 기준으로 875점 초과를 ‘상’, 725~875점을 ‘중’, 725점 미만을 ‘하’로 평가하여 해당되는 직원 수를 기록합니다.
 - 영어능력의 경우 TOEFL과 TEPS의 성적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래의 어학성적 환산표를 참조하여 해당 인원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어학성적 환산 참고표

TOEIC	TOEFL			TEPS	OPIc	TOHC	TOEFL			TEPS	OPIc
	CBT	iBT	PBT				CBT	iBT	PBT		
880	257	103	613	737~743	IM3	730	220	83	560	577~580	IM2
875	253	102	610	730~736	IM2	725	217	82	553	573~576	IM2
870	250	101	607	723~729	IM2	720	213	81	550	569~572	IM1

출처: TEPS관리위원회(2011.09기준). TEPS-TOEIC-TOEFL Conversion Table.

- 10) **어학능력(제2외국어)**은 중급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중급이상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중급이상 기준

구분 등급	중국어	일본어능력 시험 1급	프랑스어 DALF/DELF	스페인어 DELE 중급	러시아어 토르플	독일어 괴테어학원평가
5등급	7급(구) 5급(신)	280점이상	DELF B1	60점 이상	기본단계	B2

- 11) **자격증**의 경우 통계조사표 파일의 자격증 분류표(<표 2> 참조)를 토대로 각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력의 수를 직무별로 입력합니다.

- 한 개인이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입력합니다. 단, 기타 자격증이 복수인 경우에는 하나의 기타 자격증으로 처리합니다.
- 자격증 분류표에서 법정 자격이라 함은 ‘국가자격 및 정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의미합니다.

- 12) **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 해외에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인력의 수를 직무별로 입력합니다.

- 13) **해외금융기관 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해외 주재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말합니다. 단,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파견자는 제외합니다.

4. 기타 조사표 작성 요령

①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

- 1)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 조사표에 해당하는 채용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 이내**의 기간입니다.

② 부가조사표

- 1) “금융기관 채용규모 및 실제 채용규모” 조사표의 **2015년 채용계획**은
- 2014년 설문에 응한 기업 : 그 당시 응답한 채용 계획 규모 명기
 - 2014년 설문에 응하지 않은 기업 : 2015년초 자체적인 채용계획 규모 명기
 - ※ 2015년 채용계획 = 2014년 조사시(‘14.9~’15.8월말 입직자 예상수) = 2014년 조사시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
↳ 2014. 9월 ~ 2015. 8월

- 2) “금융기관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 조사표 -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협조

<표 1>

금융업 직무 해설표

구분	세부직무	직무개요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경영기획, 경영평가, 예산, 자금, 회계, 세무
	인사·총무·홍보	인사, 노무관리, 교육, 비서, 사무행정, 총무, 자산관리, 언론홍보
	조사 연구·리서치	경제 및 산업 분석, 금융동향 모니터링,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IT 시스템운영 및 개발	정보시스템관련 기획, 개발, 운영
	IT 보안	정보기기관리, 보안 등 관련업무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감사, 법무, 내부규율감독, 준법감시 등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창구사무, 개인고객 여신심사 및 실행, 수신, 펀드, 신탁, 카드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고객지원(콜센터)업무, 개인관련 외국환업무, 지점장, 보험영업소장 등
	기업영업(법인브로커)	기업영업, 기업여신심사 및 기업대상 방카슈랑스상품, 기타금융상품 판매, 수출입 외국환 관련업무
	상품개발	여수신상품, 펀드, 유가증권, 파생금융상품, 카드, 보험 및 기타자산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마케팅 전략기획, PR/광고, 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자산부채관리, 시장위험관리, 신용위험관리, 운영위험관리
	결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뒤 매도증권과 매수증권을 수수하는 업무
	채권추심	채무자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자산운용	펀드(주식, 채권)	펀드거래 및 수익평가, 주식, 채권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파생상품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외환	단기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외화자산의 운용,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해외 발행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주식, 채권 등 기존투자대상이 아닌 제3의 자산에 대한 투자, PE, 헤지펀드, 부동산, 원자재, 금 투자 등
자산관리	신탁	고객신탁의 기획, 운용 및 수탁재산의 관리, 기록 및 보고업무
	연금	퇴직연금, 종신연금, 개인연금 등 관리 및 고객의 연금투자계획 자문, 지급 등 연금계획과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
	투자자문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추천 등의 자문을 수행
	PB(Private Banking)	거액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자산관리, 자산계획수립 지원 등
보험	Claim관리	클레임의 등록, 조사, 해결 등 클레임과 관련된 제반내용을 처리
	언더라이팅	보험가입 희망자의 건강상태, 직업, 취미 등의 고지내용과 청약내용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
	손해사정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수행
	보험계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국내외 PF과정에 참여, 심사 및 자문수행, 비유동성자산의 유동화, 회사보유 고유자산의 직접투자, 사모펀드 조성 및 투자 등
	기업금융(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 Mgmt.)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및 주선, IPO등의 업무기획 및 개발, 이를 주관하고 사후관리를 수행
	M&A	기업의 인수와 합병, 구조조정 등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휴직자, 타기관 파견자 등

<표 2>

자격증 분류표

구분	자격의 종류		
국가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법정자격	투자권유 자문인력	1종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2종	증권투자상담사
		3종	파생상품투자상담사
		4종	투자자문상담사
		5종	전문투자자상담사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투자상담관리사
	투자운용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조사분석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증권분석전문인력		자산평가분석사
	위험관리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집합투자전문인력	집합투자재산평가사	
		집합투자재산계산사	
		집합투자기구평가사	
	증권분석사		증권분석사
	보험판매인력		변액보험판매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민간자격	공인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 신용위험관리사, 신용관리사, 재무설계사(AFPK)	
	비공인	외환전문역1종/2종, 은행텔러,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언더라이터, 종합자산관리사(IFP), 기타	
국제통용자격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FRM), 기타		

<표 3>

교육통계[대(소)계열별] 학과수

대계열	중계열	소계열
인문계열	언어·문학	언어학
		국어·국문학
		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기타아시아어·문학
		영미어·문학
		독일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스페인어·문학
		프랑스어·문학
		기타유럽어·문학
		교양어·문학
	인문과학	문헌정보학
		문화·민속·미술사학
		심리학
		역사·고고학
		종교학
		국제지역학
		철학·윤리학
		교양인문학
사회계열	경영·경제	경영학
		경제학
		관광학
		광고·홍보학
		금융·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교양경상학
	법률	법학
	사회과학	가족·사회·복지학
		국제학
		도시·지역학
		사회학
		언론·방송·매체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교양사회과학

대계열	중계열	소계열
교육계열	교육일반	교육학
	유아교육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특수교육
	초등교육	초등교육학
	중등교육	언어교육
		인문교육
		사회교육
		공학교육
		자연계교육
		예체능교육
공학계열	건축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조경학
	토목·도시	토목공학
		도시공학
	교통·운송	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해양공학
	기계·금속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전기·전자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정밀·에너지	광학공학
		에너지공학
	소재·재료	반도체·세라믹공학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컴퓨터·통신	전산학·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	산업공학
	화공	화학공학
	기타	기전공학
		응용공학
		교양공학

대계열	중계열	소계열
자연계열	농림·수산	농업학
		수산학
		산림·원예학
	생물·화학·환경	생명과학
		생물학
		동물·수의학
		자원학
		화학
		환경학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류·의상학
		교양생활과학
	수학·물리·천문·지리	수학
		통계학
		물리·과학
		천문·기상학
		지구·지리학
		교양자연과학

대계열	중계열	소계열
의약계열	의료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	간호학
	약학	약학
	치료·보건	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예체능계열	디자인	디자인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응용예술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무용·체육	무용
		체육
	미술·조형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연극·영화	연극·영화
	음악	음악학
		국악
		기악
		성악
		작곡
		기타음악

직무별 금융인력현황조사표 (1)

중분류	소분류	총원	고용형태		급여(만원)						연령(만)				
		인원수	정규직 (임원·직원 포함)	비정규직	2500 미만	2500 ~5000	5000 ~7500	7500 ~1억	1억~ 1.5억	1.5억 이상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인사·총무·홍보														
	조사·연구·리서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IT 보안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기업영업(법인브로커)														
	상품개발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결제														
	채권추심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자산관리	신탁														
	연금														
	투자자문														
	PB														
보험	Claim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계리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Mgmt.)														
	M&A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직무별 금융인력현황조사표 (2)

중분류	소분류	입사 후 사내 총근무기간					현직무 5년 연속 근무자	직무연수		
		5년 미만	5~ 10년	10~ 15년	15~ 20년	20년이상		사내연수 (3개월 이상)	외부연수 (3개월 이상)	해외연수 (3주 이상)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인사·총무·홍보									
	조사·연구·리서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IT 보안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기업영업(법인브로커)									
	상품개발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결제									
	채권추심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자산관리	신탁									
	연금									
	투자자문									
	PB									
보험	Claim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계리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IPO,RelationMgmt.)									
	M&A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직무별 금융인력현황조사표 (3)

중분류	소분류	학 력														
		고졸	전문대	대 졸							대학원					
				경영·경제	법률	인문·사회	컴퓨터·통신	공학	자연	기타	MBA	경영·경제	인문·사회	컴퓨터·통신	공학	기타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인사·총무·홍보															
	조사 연구·리서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IT 보안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기업영업(법인브로커)															
	상품개발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결제															
	채권추심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자산관리	신탁															
	연금															
	투자자문															
	PB															
보험	Claim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계리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IPO,RelationMgmt.)															
	M&A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직무별 금융인력현황조사표 (4)

중분류	소분류	어학능력(영어)			어학능력(제2외국어)			자격증										해외취업가능자	해외금융기관경력자	
		상	중	하	중국어	일본어	기타	국가자격			법정자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공인	비공인	AICPA	CFA	FRM	기타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인사·총무·홍보																			
	조사 연구·리서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IT 보안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기업영업(법인브로커)																			
	상품개발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결제																			
	채권추심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자산관리	신탁																			
	연금																			
	투자자문																			
	PB																			
보험	Claim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계리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기업금융(주식·채권발행,IPO,RelationMgmt.)																			
	M&A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 주 : 1) 금융업 직무 해설표를 참조하여 각 소분류 직무에 해당되는 인원 수를 명기
- 2) 정규직, 비정규직 정의는 금융인력 통계 작성 요령 참조
- 3) 급여는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신규인력의 경우 예상되는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직원 수를 기재
- 4) 현직무 5년연속 근무자는 현직무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직원 수를 기록
- 5) 직무연수는 조사시점 대비 최근 3년간의 사실을 토대로 작성
- 6) 직무연수의 경우 현 직무 또는 현 직무와 유사한 직무에 관련된 연수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사내' 및 '외부연수(국내)'는 3개월 이상, 해외연수는 3주 이상 이수한 직원 수를 기입
- 7)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은 직무연수 이수자 대상에서 제외
- 8) 학력의 경우 '전산'은 전자, 전산, 컴퓨터공학 및 통계학을 전공한 직원 수를 기재하고, '기타'는 인문/사회 계열 등 여타 전공을 이수한 직원 수를 명기
- 9) 어학능력(영어)은 TOEIC(TOEFL, TEPS의 경우 환산표 참조)을 기준으로 875점 초과를 '상', 725~875점을 '중', 725점 미만을 '하'로 평가하여 해당되는 직원 수를 기록
- 10) 제2외국어의 경우 각 언어별 어학능력평가시험에서 최소 등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기준으로 작성
- 11) 휴직자 및 파견자는 조사대상일 기준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 규모조사표 (1)

중분류	소분류	총원	고용형태		급여(만원)						연령(만)				
		인원수	정규직 (임원·직무 포함)	비정규직	2500 미만	2500 ~5000	5000 ~7500	7500 ~1억	1억~ 1.5억	1.5억 이상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인사·총무·홍보														
	조사·연구·리서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IT 보안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기업영업(법인브로커)														
	상품개발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결제														
	채권추심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자산관리	신탁														
	연금														
	투자자문														
	PB														
보험	Claim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계리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Mgmt.)														
	M&A														
기타	기타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 규모조사표 (2)

중분류	소분류	근무경력별 채용예상 규모					학 력								
		5년 미만	5~ 10년	10~ 15년	15~ 20년	20년 이상	고졸	전문 대졸	대 졸						
									경영· 경제	법률	인문· 사회	컴퓨터· 통신	공학	자연	기타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인사·총무·홍보														
	조사 연구·리서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IT 보안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기업영업(법인브로커)														
	상품개발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결제														
	채권추심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자산관리	신탁														
	연금														
	투자자문														
	PB														
보험	Claim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계리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IPO,RelationMgmt.)														
	M&A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직무별 금융인력현황조사표 및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 규모조사표 (3)

중분류	소분류	학력						어학능력(영어)			어학능력(제2외국어)		
		대학원						상	중	하	중국어	일본어	기타
		MBA	경영·경제	인문·사회	컴퓨터·통신	공학	기타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인사·총무·홍보												
	조사·연구·리서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IT 보안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기업영업(법인브로커)												
	상품개발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결제												
	채권추심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자산관리	신탁												
	연금												
	투자자문												
	PB												
보험	Claim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계리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IPO,RelationMgmt.)												
	M&A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직무별 금융인력현황조사표 및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 규모조사표 (4)

중분류	소분류	자 격 증										해외 인력 활용 자	해외 금융 기관 경력 자
		국가자격			법 정 자 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공인	비공인	AICPA	CFA	FRM	기타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인사·총무·홍보												
	조사 연구·리서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IT 보안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기업영업(법인브로커)												
	상품개발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결제												
	채권추심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자산관리	신탁												
	연금												
	투자자문												
	PB												
보험	Claim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계리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IPO,RelationMgmt.)												
	M&A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 주 : 1) 금융업 직무 해설표를 참조하여 각 소분류 직무에 해당되는 인원 수를 명기
2) 정규직, 비정규직 정의는 금융인력 통계 작성 요령 참조
3) 급여는 신규인력 등 추가채용자의 경우 예상되는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직원 수를 기재
4) 학력의 경우 <표3>의 "교육통계 계열별 학과수"를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5)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에 해당하는 채용기간은 2015년 9월 ~ 2016년 8월까지 1년 이내임.

부가조사표 - 금융기관 종사자 및 이직자 현황 (1)

		총원	고용형태		급여(만원)						연령(만)					입사 후 사내 총근무기간				
		임직 원수	정규 직 (임원 포함)	비정 규직	2500 미만	2500 ~5000	5000 ~7500	7500 ~1억	1억 ~1.5 억	1.5 억 이상	20 대 미 만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이 상	5년 미 만	5~ 10 년	10~ 15 년	15~ 20 년	20 년 이 상
종사자수	'14. 9월말 종사자수																			
	'15. 9월말 종사자수																			
'14.9월~'15.8월말 입직자수 ¹⁾	신규																			
	경력직																			
'14.9월~'15.8월말 이직자수	계																			
	자발적이직 ²⁾																			
	비자발적이직 ³⁾																			
	정년퇴직																			
	기타 ⁴⁾																			
'15.9월~'16.8월말 입직자예상수 ¹⁾	신규																			
	경력직																			
'15.9월~'16.8월말 이직자 예상수	계																			
	자발적이직 ²⁾																			
	비자발적이직 ³⁾																			
	정년퇴직																			
	기타 ⁴⁾																			

주 : 1) 동기간에 채용한 근로자수

2) 자발적 퇴직자 (정년퇴직자는 제외)

3) 고용계약종료(단기, 계절적 계약 모두 포함),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4) 사망 등

5) 조사대상일 기준

6) 정규직, 비정규직 정의는 금융인력 통계 작성요령 참조

부가조사표 - 금융기관 종사자 및 이직자 현황 (2)

		현직 무연 5년 속 근무 자	직무연수			학 력														
			사내 연수 (3개 월이 상)	외부 연수 (3개 월이 상)	해외 연수 (3주 이상)	고 졸	전문 대졸	대 졸							대학원					
								경영· 경제	법률	인문· 사회	컴퓨터· 통신	공학	자연	기타	MB A	경영· 경제	인문· 사회	컴퓨터· 통신	공학	기타
종사자수	'14. 9월말 종사자수																			
	'15. 9월말 종사자수																			
'14.9월~'15.8월말 입직자수 ¹⁾	신규																			
	경력직																			
'14.9월~'15.8월말 이직자수	계																			
	자발적이직 ²⁾																			
	비자발적이직 ³⁾																			
	정년퇴직																			
	기타 ⁴⁾																			
'15.9월~'16.8월말 입직자예상수 ¹⁾	신규																			
	경력직																			
'15.9월~'16.8월말 이직자 예상수	계																			
	자발적이직 ²⁾																			
	비자발적이직 ³⁾																			
	정년퇴직																			
	기타 ⁴⁾																			

총원변동사유 우선순위별로 최대3개선택	지난 1년간 총원 변동 사유 { ; ; }
	향후 1년간 총원 변동 예상 사유 { ; ; }

① 정기채용 ②계절요인으로증가/감소 ③단기일거리시작/완료
④사업의확장/축소 ⑤조직개편(구조조정) ⑥인수(합병) 또는 분리(매각)
⑦동일기업내전입/전출 ⑧용역계약체결/종료명 ⑨기간제근로체결/만료
⑩휴업(폐업) ⑪기타()

부가조사표 - 금융기관 채용 계획 및 실제 채용규모

중분류	소분류	2015년 채용계획	2015년 실제 채용규모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인사·총무·홍보		
	조사 연구·리서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IT 보안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기업영업(법인브로커)		
	상품개발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결제		
	채권추심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자산관리	신탁		
	연금		
	투자자문		
	PB		
보험	Claim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계리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IPO,RelationMgmt.)		
	M&A		
기타	기타		
총계			

주 : 1) 2014년 설문에 응한 기업의 경우 그 당시 응답한 채용 계획 규모 기재, 즉, 2015년 채용계획 = 2014년조사('14.9~'15.8월말 입직자 예상수) = 2014년조사(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 규모)
 2) 2014년 설문에 응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2015년초 자체적인 채용 계획 규모 명기

부가조사표 - 금융기관 시간제 근로자

		총원	급여(만원)						연령(만)					입사 후 사내 총근무기간					학 력			
		임직 원수	1000 미만	1000~ 2500	2500 ~5000	5000 ~7500	7500 ~1억	1억 이상	20 대 이하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이상	6개 월 미만	7~ 12 개월	13~ 24 개월	24~ 60 개월	60 개 월 이상	고 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시간제 근로자수	'14. 9월말 종사자수																					
	'15. 9월말 종사자수																					

부가조사표 - 금융기관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 (1)

	총원	고용형태		급여(만원)						연령(만)					입사 후 사내 총근무기간					현직무 5년 연속근무 자	직무연수		
	임직원수	정규 직 (임 원포 함)	비 정 규 직	2500 미만	2500 ~500 0	5000 ~750 0	7500 ~100 00	1억 ~1.5 억	1.5 억 이상	20 대 이하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이상	5년 미만	5~1 0년	10~ 15 년	15~ 20 년	20 년 이상		사내 연수 (3개 월이 상)	외부 연수 (3개 월이 상)	해외 연수 (3주 이상)
기술금융 관련 종사 자																							

부가조사표 - 금융기관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 (2)

	학 력														어학능력 (영어)			어학능력 (제2외국어)			자 격 증										해외학위 취득 자	해외 근거 자	외국 거주 자
	고졸	전문대졸	대 졸							대학원											국가자격			법정 자격	민 간 자 격		국제통용자격						
			경영·경제	법률	인문·사회	컴퓨터·통신	공학	자연	기타	MBA	경영·경제	인문·사회	컴퓨터·통신	공학	기타	상	중	하	중국어	일본어	기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공인	비공인	AICPA	CFA	FRM			
기술·금융 관련 종사 자																																	

주 : 1) 2015년 9월말 기준

2) 정규직, 비정규직 정의는 금융인력 통계 작성 요령 참조

참 고 문 헌

- 강은영, 김동규, “직종별 고용전망과 직업세계 변화 트렌트 : 정성적 전망을 중심으로,” 고용이슈 제8권 1호, 2015년 1월, pp.70-96.
- 강순희,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 노동리뷰 제86호, 2012년 5월, pp.39-50.
- 권순미, “금융체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고용체제 :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제40권 5호, 2006년 12월, pp.251-277.
- 권순원,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방안,” 노동리뷰 제114호, 2014년 9월, pp. 21-33.
- 권현지 외 3명, “금융서비스산업의 고용관계 변화,” 연구보고 2008-08,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
- 남재량, “최근 금융보험업 노동시장의 동향과 특징,” 노동리뷰 제114호, 2014년 9월, pp. 7-20
- 박정수, 김천곤, 이건우, “서비스산업 고용구조와 일자리 창출전략,” Issue Paper 2012-298, 산업연구원, 2012년 12월.
- 박정수 외 4명, “성장형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전략,” 정책자료 2013-199, 산업연구원, 2013년 12월.
-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고용창출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2010년.
- 신석하, 조동철, “금융위기의 고용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 2012-04, 2012년 11월, pp.91-116.
- 안주엽 외 3명, “경제위기 전후 금융산업과 노동,” 연구보고 2004-08, 한국노동연구원, 2004년.
- 염준용,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분석,” 금융감독원 조사연구 Review 제24호, 2008년 9월.
- 윤윤규, “경기변동과 고용 근로시간 조정패턴의 변화,” 경제위기와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2010년, pp.27~71
- 이기환, “금융산업발전과 인력수급 방안,” 국제해양문제연구 제 19권, 2007년 12월, pp. 39-64.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연구보고서 2004-05, 2004년 12월.

Abraham Mosisa and Steven Hipple, “Trend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the

-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October 2006, pp. 35 - 57.
- Andrew Alpert and Jill Auyer, "Evaluating the BLS 1988 - 2000 employment projections," *Monthly Labor Review*, October 2003, pp. 3 - 12.
- Arthur Andreassen, "An evaluation of the 2000 employment by industry projection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Carol Boyd Leon, "The employment-population ratio: its value in labor force analysis, *Monthly Labor Review*, February 1981, pp. 36 - 45.
- Claudia Goldin, "The Quiet Revolution That Transformed Women's Employment, Education, and Famil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2006, pp. 1 - 21.
- David Aaronson, Kyung-Hong Park, and Daniel Sullivan, "Explaining the Decline in Teen Labor Force Participation," *Chicago Fed Letter*, no. 234, January 2007.
- D. Wyatt, "Evaluating the 1996 - 2006 employment projections," *Monthly Labor Review*, September 2010, pp. 33 - 69.
- George Silvestri and John Lukasiewicz, "Projections of occupational employment," *Monthly Labor Review*, November 1989, pp. 42 - 65.
- Howard N Fullerton, Jr., "New labor force projections, spanning 1988 to 2000," *Monthly Labor Review*, November 1989, pp. 3 - 11.
- Howard N Fullerton, Jr., "Another look at the labor force," *Monthly Labor Review*, November 1993, pp. 31 - 40.
- Howard N Fullerton, Jr., "Labor force projections: 1986 to 2000," *Monthly Labor Review*, September 1987, pp. 19 - 29.
- Howard N Fullerton, Jr., "Evaluating the BLS labor force projections to 2000," *Monthly Labor Review*, October 2003, pp. 3 - 12.
- H.O. Stekler, "Macroeconomic Forecast Evaluation Technique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Vol. 7, 1991, pp. 375 - 84.
- H. O. Stekler and Rupin Thomas, "Evaluating BLS labor force, employment, and occupation projections for 2000," *Monthly Labor Review*, July 2005, pp. 46 - 56.
- Jacob Mincer,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pp. 63 - 106.
- Mitra Toossi, "Labor force projections to 2016: more workers in their golden years," *Monthly Labor Review*, November 2007, pp. 33 - 52.
- Mitra Toossi, "Labor force projections to 2018: older workers staying more active," *Monthly Labor Review*, November 2009, pp. 30 - 51.

- Moncarz, Roger J., Michael G. Wolf, and Benjamin Wright, "Service-providing occupations, offshoring, and the labor market," *Monthly Labor Review*, December 2009, pp. 71 - 86.
- Paul F. Velleman, "Definition and comparison of robust nonlinear data smoothing algorithm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September 1980, pp. 609 - 15.
- R.A. Kolb and H.O. Stekler, "Information Content of Long-Term Employment Forecasts," *Applied Economics*, 1992, pp. 593 - 96.
- Reuben Gronau,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December 1977, 1099 - 1123.
- R. Fildes and H.O. Stekler, "The State of Macroeconomic Forecasting," *Journal of Macroeconomic Forecasting*, Vol. 24, 2002, pp. 435 - 468.
- Stanley K. Smith and Terry Sinich, "Evaluating the Forecast Accuracy and Bias of Alternative Population Projections for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Vol. 8, 1992, pp. 495 - 508.
- Toossi, Mitra, "A behavioral model for projecting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Monthly Labor Review*, May 2011, pp. 25 - 42.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harting the projections," *Occupational Outlook Quarterly*, winter 2011 - 2012.
- Valerie Personick, "Industry output and employment: a slower trend for the nineties," *Monthly Labor Review*, November 1989, pp. 25 - 41.
- Wyatt, Ian, "Evaluating the 1996 - 2006 employment projections," *Monthly Labor Review*, September 2010, pp. 33 - 69.